정답과 해설

최우선순

고전 시가

문제편

Ⅰ 시조

01강

흥망이 유수ᄒᆞ니 | 백설이 즈자진 골에 | 오백 년 도읍지를

본문 012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② **05.** ⑤ **06.** ② **07.** ④ **08.** ⑤ **09.** ② **10.** (1) Ⓐ 불변함 또는 무한성 Ⓑ 변함 또는 유한성 (2) 왕조의 멸망으로 인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인간사의 유한성에 대한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다.

01 [작품 간의 공통적 정서 파악] **정답 ①**

(가)의 화자는 옛 궁궐터를 바라보면서 지난날 고려 왕조의 업적을 떠올리며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나)의 화자는 기울어 가는 왕조의 상황을 인식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다)의 화자는 고려의 옛 도읍지를 찾아가 돌아보고 무상감을 느끼며 한탄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화자는 모두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는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고려의 충신을 상징하는 '매화'를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가), (다)에는 왕조를 다시 일으킬 인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다) 모두 왕조가 기울어 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가)~(다) 모두 왕조를 지켜 내지 못한 이들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다) 모두 왕조의 융성했던 시절이 저문 데 대한 안타까움은 드러나 있지만 그 시절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02 [문학 갈래의 특징 파악] **정답 ⑤**

(가)~(다)가 속한 문학 갈래는 시조로, 시조는 조선 후기 사대부뿐만 아니라 기녀, 서민층까지 향유 및 창작층으로 참여하였고 현재까지도 창작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시조는 3 · 4조, 4음보 율격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일정한 운율, 즉 외형률을 지니고 있다.

② 사대부가 주요 창작층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관념적인 유교 이념을 담고 있는 작품이 많다.

③ 한글 창제 이전의 시조 작품들은 노래의 형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후에 한글로 기록되었다.

④ 10구체 향가의 3단 형식에서 영향을 받아 시조의 3장 형식이 성립되었으며, 고려 말 시조라는 문학 갈래를 완성한 주요 작자층은 신흥 사대부들이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가)에서 '석양'을 통해 색채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색채 대비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목적에 부쳐시니'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려의 멸망으로 인한 허무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해가 지는 시간적 배경과 고려 왕조의 몰락을 상징하는 '석양'을 통해 화자가 처한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였다.

④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인 '추초'를 활용하여 소멸과 몰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한 대상인 '객'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려 멸망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부각하였다.

04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②**

(가)의 화자는 오백 년 동안의 고려 왕조의 업적이 한낱 목동의 피리 소리로만 남은 상황을 통해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고 있다. (다)의 화자는 자연은 무한한 데 비해 인간의 역사는 유한함을 깨닫고 융성했던 고려가 패망한 데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와 ⓑ는 모두 화자가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와 ⓑ는 각각 (가)와 (다)의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로 볼 수 없다.

③ (가)의 화자는 ⓐ로 인해 인생의 무상감과 허무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또한 (다)의 화자가 무상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지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가 아니다.

④ (다)의 화자는 고려의 옛 도읍지를 돌아보며 그곳의 ⓑ가 의구한 데 반해 유한한 고려의 역사를 떠올리며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는 고려의 멸망이라는 과거 사건을 회고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의 화자에게 ⓐ는 미래의 상황에 기대를 갖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⑤ (가)의 화자는 ⓐ로부터 유발된 쓸쓸한 감정을 느끼고는 있지만 ⓐ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다)에서 ⓑ는 인간과 대비되는 특징을 갖는 소재로 사용되었을 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05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나)에 색채 대비, 대조적 · 영탄적 표현, 우의적 표현 등은 사용되었지만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백설', '구름'에는 흰색이 나타나고 '매화', '석양'에는 붉은색이 나타난다. 이 두 색은 대비를 이루며 기울어 가는 고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② 조선을 건국하려는 신흥 세력을 의미하는 '구름'과 고려의 충신을 의미하는 '매화'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종장의 '갈 곳 몰라 ᄒᆞ노라'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백설', '구름', '매화', '석양'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기울어 가는 고려 왕조의 상황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Q '우의적'이라는 게 뭔가요?

A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동물이나 식물, 사물에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을 부여하거나 다른 사물에 빗대는 식으로 넌지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일 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 이제현, 「사리화」

여기서 '참새'는 탐관오리를 의미합니다. 참새가 일 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가는 것은 탐관오리가 백성들의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06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은 고려의 유신(遺臣, 선왕을 모시던 신하), 즉 현재(고려)의 왕조를 지지하는 신하를 의미하고, ㉮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수양 대군 일파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수양 대군 일파를 의미하므로 새로운 왕권을 세우려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신흥 세력을 의미하는 것은 ㉠이 아니라 '구름'이다.

③ ㉮는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부정적 세력인 수양 대군 일파를 상징하므로 군자의 깨끗한 도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과 ㉮ 모두 임금의 총애를 받는 권력의 핵심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은 고려에 충성하는 신하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역시 수양대군 일파를 상징하는 것이지 세속에서의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07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④**

㉡은 고려 왕조가 융성했던 시절이 마치 꿈이었다는 듯이 아득하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인생의 무상감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④는 조선 중기 조찬한의 시조로 천지나 영웅의 출현과 소멸이 반복되듯 흥하고 망하는 것이 잠깐 잠이 들어 꾼 꿈과 같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꿈'은 인간 역사의 무상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조선 후기 이정신의 시조로, 여기서 '꿈'은 화자의 그리움을 해소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② 조선 후기 호석균의 시조로, 여기서 '꿈'은 현실과 달리 임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③ 조선 후기 이명한의 시조로, 여기서 '꿈'은 임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을 의미한다.

⑤ 조선 후기 계랑의 시조로, 여기서 '꿈'은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08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보기〉에서 회고가는 과거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감회를 드러내며, 고려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여 주는 도읍지의 어떤 장소나 사물을 보고 느끼는 여러 정서를 드러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의 '매화'는 고려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는 '어**닉** 곳**이** 픠엿**ᄂᆞᆫ**고'라고 하며 이들이 사라진 데 대한 안타까움과 이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인걸'은 '간듸업다'는 고려의 유신으로 '산천'과 대비하여 인간의 역사가 유한한 데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매화'나 '인걸' 모두 고려의 영화로웠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회고가는 고려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여 주는 도읍지의 어떤 장소나 사물을 보고 느낀 정서를 드러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의 '추초'는 고려 왕조의 궁궐터에서 본 가을 풀로 소멸, 몰락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나)에서 기울어 가는 고려 왕조의 상황을 인식하고 서 있는 때인 '석양'은 해가 지는 하강의 이미지로 고려 왕조의 몰락을 상징한다. 따라서 '추초'와 '석양' 모두 고려 왕조의 몰락을 보여 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② (가)의 '눈물계워 **ᄒᆞ**노라'와 (나)의 '갈 곳 몰라 **ᄒᆞ**노라'는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 즉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 '만월대'는 고려 왕조의 궁궐터로 (다)의 '오백 년 도읍지'를 대표하는 구체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④ (가)의 '목적'은 목동의 피리 소리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려 왕조의 멸망으로 인한 허무함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다)의 '**ᄭᅮᆷ**'은 고려의 영화로웠던 시절이 마치 꿈과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고려 왕조의 패망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09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②**

(가)에는 '만월대'만 나타날 뿐 이와 다른 공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질적 공간을 대비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보기〉는 속세를 의미하는 '홍진'과 자연을 의미하는 '산림'을 대비하여 자연에서 사는 삶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시조와 〈보기〉의 가사 모두 4음보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③ (가)는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는 자연 속에서 봄을 완상하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④ (가)의 '석양'은 해가 지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도화행화(복숭아꽃과 살구꽃)'가 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다.

⑤ (가)는 화자가 고려의 멸망에서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홍진에 묻힌 분네', 즉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10 [표현의 의미 및 화자의 정서 파악]

'산천'은 불변함 또는 영원성, 무한함을 드러내고, '인걸'은 변함 또는 유한함을 드러낸다. 이 둘의 대비를 통해 왕조의 멸망으로 인한 무상감과 인간사의 유한성에 대한 허무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강

방 안에 켜 있는 촉불 | 수양산 브라보며 | 천만리 머나먼 길히

본문 016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④ **05.** ③ **06.** ② **07.** ⑤
08. ⑤ **09.** ① '백이'와 '숙제'가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캐어 먹던 장소 ② 수양 대군('세조'가 즉위하기 전의 호칭)

0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가)에서는 영탄적 표현 '모르도다'를 통해 임과의 이별 상황에 대한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나)에서는 영탄적 표현 '한ᄒᆞ노라'를 통해 단종이 폐위된 상황에서 자신의 절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부각하고 있다. (다)에서는 영탄적 표현 '우러 밤길 녜놋다'를 통해 임과 이별한 상황에 대한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 청각적 심상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④, ⑤ (가), (나), (다) 모두 자조적 어조를 통한 화자의 자책감 표현(③), 역설적 표현을 통한 화자의 부정적 상황 극복 의지 표현(④), 가정적 상황 제시와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표현(⑤)이 나타나지 않는다.

> **Q 자조적 어조가 뭔가요?**
>
> A '자조적'은 '자신을 비웃는 듯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자기를 비웃고 비하하는 듯한 어투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
>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 이 시의 구절은 자신을 강가에 나온 아이에 비유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조적인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02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 ①**

(가)는 임(단종)과 이별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촉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별이 예기치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임과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느끼는 실망감은 표출되어 있지 않다.

⑤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03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의 '날과 같아서'는 '나와 같아서'라는 의미로 촛불과 화자 자신을 동일시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04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④**

(나)의 화자는 임(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④는 송순의 시조로,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와 물아일체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원천석의 시조로, 임(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와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정몽주의 시조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박팽년의 시조로, 충신과 간신의 구분이 어지러운 현실을 풍자하면서 임(단종)을 향한 일편단심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박팽년의 시조로, 종장에서 님님마다 다 좇을 수는 없다며 여러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05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나)의 화자는 ⓐ가 수양산의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목숨을 연명한 행위를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 비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절의가 그들보다 굳음을 부각하고 있다. ⓑ는 (다)의 화자가 이별한 대상으로, 화자에게 이별로 인한 슬픔을 안겨 주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와 (다)의 화자는 모두 내적 갈등을 겪고 있지 않다.

② (나)의 화자는 ⓐ와 자신을 구별하며 수양 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상황에서 자신의 굳은 절의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 화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다)의 화자는 ⓑ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으므로 ⓑ가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화자는 ⓐ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굳은 절의, 즉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다)의 화자는 ⓑ를 통해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⑤ (나)의 화자는 과거에 대한 추억을 환기하고 있지 않으며, (다)의 화자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 않다.

06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다)는 자연물인 시냇물을 활용하여 이별로 인한 화자의 슬픔을 구체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는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다)에 수미 상관의 구조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다)에 계절적 속성을 드러내는 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다)에는 의미가 대조되는 시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대상에 대한 풍자도 나타나지 않는다.

> **Q 수미 상관 구조가 뭔가요?**
>
> A '수미 상관'의 사전적 의미는 '머리와 꼬리,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 통함.'입니다. 문학에서 '수미 상관'이란 '처음과 끝부분이 비슷한 내용이나 구절, 또는 문장으로 배치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처음과 끝부분이 반드시 똑같지 않아도 돼요. 다음과 같이 비슷한 구절이 배치된 것도 수미 상관으로 볼 수 있어요.
>
> ㉠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중략)
>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다)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을 뿐, 극한적 상황을 설정하여 임, 즉 단종을 지키지 못한 암담한 심경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보기 2〉의 화자는 자신이 죽는 극한적 상황을 설정하여 단종에 대한 절의를 굽히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다)와 〈보기 2〉 모두 극한적 상황을 설정하여 단종을 지키지 못한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출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 1〉에서 금부도사였던 왕방연이 단종을 강원도 영월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인 (다)에서의 '고은 님'은 강원도 영월에 두고 온 단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다)에서는 임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천만리'라는 표현으로 과장하여 나타냄으로써 단종과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③ 〈보기 1〉에서 수양 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을 위협하여 왕위를 빼앗았으며 성삼문은 수양 대군이 권력을 획득한 이후 단종 복위 운동을 계획하다 모의 사실이 밝혀져 죽음을 맞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삼문의 작품인 〈보기 2〉에서 '낙락장송 되어' '독야청청하'겠다는 화자에 대립하여 세상에 가득한 '백설'은 왕위를 찬탈한 수양 대군 일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 2〉는 초장에서 질문을 하고, 중장과 종장에서 그에 대해 자신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단종에 대한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08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다)의 '져 물도 **ᄂᆡ** 온 **ᄀᆞᆺᄒᆞ**여'에서 '**ᄂᆡ** 온'은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 '져 물'처럼 임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한 화자의 슬픈 마음을 드러낼 뿐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촛불의 촛농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마치 촛불이 울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촛불에 임과 이별한 자신의 슬픈 감정을 이입한 것이다. 따라서 촛불의 '눈물'은 화자의 눈물과 슬픔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촛불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으로 화자와 동일시되는데, 이는 '저 촉불 날과 같아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의 '천만리 머나먼 길**희**'에서 '천만리'는 화자와 임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④ (다)의 '고은 님 여희옵고'에서 '여희옵고'는 '이별하고'의 의미로,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9 [시어의 중의성 파악]

〈보기〉에서 '백이', '숙제'가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고 지내다가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수양산'은 '백이'와 '숙제'가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캐어 먹던 장소를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의 창작 배경과 의미를 고려할 때, '수양산'은 '세조'가 즉위하기 전의 군호(君號)인 '수양 대군'을 암시한다고 할 수도 있다.

03강

십 년을 경영ᄒᆞ여 | 논밧 가라 기음 ᄆᆡ고 | 곡구롱 우는 소ᄅᆡ에

본문 020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③ **05.** ④ **06.** ③ **07.** ③
08. ② **09.** ④ **10.** (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물아일체의 삶을 추구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나) 고된 노동 속에서도 흥취를 느끼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다) 전원에서 가족들과 평온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가)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역동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오답 풀이]

① '**ᄒᆞᆫ** 간'을 반복적으로 나열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돌 ᄒᆞᆫ** 간에 청풍 **ᄒᆞᆫ** 간 맛져 두고'에서 '**돌**'과 '청풍'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강산'은 '들일 듸'가 없으니 마치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겠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 자연과 하나된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근경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경치를, 원경은 먼 곳에 있는 경치를 말한다. 중장에서는 달이 보이고 바람이 드는 초려삼간을 근경으로, 종장에서는 멀리 둘러져 있는 강산을 원경으로 드러내어 자연의 경치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오전에 '논밧 가라 기음 **ᄆᆡ**고' 일하러 갈 준비를 한 뒤 '산중'에 들어가서 나무를 한 다음 '점심' 도시락을 먹고 깨끗이 씻은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석양이 **지** 너머 갈 제'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어조의 변화나 시적 긴장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긴 소**ᄅᆡ** 져른 소**ᄅᆡ**'는 청각적 심상이 맞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긴 소**ᄅᆡ** 져른 소**ᄅᆡ**'의 주체는 화자에게 관찰, 묘사되고 있는 시적 대상이지 이 시의 화자가 아니다.

④ 동일한 구절의 반복이나 이를 통한 주제의 강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시선의 이동이 아닌,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농부의 하루 일과를 보여 주고 있다.

03 [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농부의 하루 일과를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보여 주고 있을 뿐, 농가에서 1년 동안 해야 할 농사에 관한 실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오전 → 저녁'으로의 시간의 흐름과 '논밧 → 산중 → **ᄉᆡ**옴'으로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삭**싸**리', '셥', '도슭', '부시이고' 등의 순우리말과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서민적 정서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③ 고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풍류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산중'에서 '마른 셥'을 모아 놓고 '**시**옴'을 찾아가서 점심을 먹은 후 입담배를 피우고 콧노래를 부르며 조는 모습에서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농부의 낙천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4 [작품 간 공통점 파악] **정답 ③**

(나)의 중장에서는 '**시**옴'에서의 농부의 일상적 행위를 나열하여 고된 노동 속에서 느끼는 여유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다)의 중장에서는 가족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나열하여 한가롭고 여유로운 일상의 풍경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초장, (다)의 초장 모두 화자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은 드러나 있지 않다. (나)의 초장에서는 대상이 오전에 행한 일상적인 행위가, (다)의 초장에서는 화자의 한가로운 일상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② (나)의 종장, (다)의 초장 모두 다른 대상에 빗대어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나)의 종장에서는 여유와 흥겨움을 느끼는 대상의 모습이, (다)의 초장에서는 화자의 한가로운 일상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④ (나)의 중장에서는 '톡톡'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다)의 종장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나)의 종장에서는 농부가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다)의 초장에서는 꾀꼬리 소리에 낮잠에서 깬 화자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외적인 특징을 묘사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Q 음성 상징어가 뭔가요?**
>
> **A** '음성 상징어'는 소리나 움직임을 표현한 말로, 의성어와 의태어가 이에 속합니다. 문장에 사용되어 생동감이나 현장감을 살리고 운율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
> ㉮ 동지(冬至)ㅅ **돌**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 황진이
>
> '서리서리'는 '뱀 따위가 몸을 똬리처럼 둥그렇게 감고 있는 모양'을, '구뷔구뷔'는 '여러 굽이로 구부러지는 모양'을 표현한 의태어입니다.

05 [공간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은 욕심 없는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한데 어우러진 삶을 추구하는 풍류의 공간이다. ㉡은 고달픈 일과 후 휴식을 취하며 여유를 즐기는 공간이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자각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② ㉠은 고독감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심화시키는 공간이라 할 수 있고, ㉡은 전원에서 느낀 흥취가 아니라 노동 후의 여유를 느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③ ㉠은 자연과 동화된 삶을 추구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은 농사일의 보람이 아니라 농사일 후의 여유를 추구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⑤ ㉠은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을 부각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동화된 삶을 부각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은 고단한 일상을 회피하기 위해 찾아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고단한 일상 속 여유를 즐기기 위해 찾아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06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③**

ⓒ '버히거니'는 '자르거나'의 의미이다.

07 [사설시조의 특징 파악] **정답 ③**

(가)는 평시조, (나)와 (다)는 사설시조이다. 안정적인 형식으로 관념적 세계와 미의식을 표현한 것은 주로 사대부들이 창작했던 평시조의 특징이다.

[오답 풀이]

① 사설시조는 형식 면에서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져 장형화되었다.
② 사설시조는 중인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창작·향유하였다.
④ 사설시조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⑤ 사설시조는 서민들이 창작·향유한 만큼 실생활의 소재들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솔하게 다루었다.

08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②**

〈보기〉에서는 시조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가)는 자연을 '안빈낙도'의 공간으로, (나)는 자연을 삶의 현장이자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가)의 화자는 '강산'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산'을 둘러 두고 보면서 '**돌**', '청풍'과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초려삼간'은 화자가 욕심 없이 청빈한 생활을 하는 안빈낙도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산중'은 농부가 '셥흘 뷔거니 버히거니' 하며 땀 흘리며 일해야 하는 노동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점심 도슭'은 '산중'에서 '셥'을 마련한 후 휴식을 취하며 맛보는 소박한 음식이라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엇**씨롤** 추이즈며' 부르는 '긴 소**릐** 져른 소**릐**'에서는 농사일을 끝낸 농부들의 여유와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

09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보기〉에서는 조선 후기 시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나)의 '석양'은 노동을 마치고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낸 것으로, 흥취를 느끼는 농부들의 모습과 함께 그려지고 있다. (다)의 '곡구롱 우**ᄂᆞᆫ** 소**릐**'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시구로, 여유 있게 일상을 보내는 일가족의 모습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어와 시구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의 '뷔거니 버히거니'는 자연 속에서의 노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② (다)의 '글 니르고', '뵈 ᄯᅳ는'은 전원에서의 여유로운 일상적 모습을 나열한 것이다.

③ (나)의 '산중'에서는 섶을 베거나 자르는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에서 '술 걸으'는 행위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산중'은 노동의 현장, '술 걸으'는 공간은 일상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나)의 '코노ᄅᆡ 조오다가'는 고단한 노동 중에, (다)의 '낫ᄌᆞᆷ'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서민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10 [한국 서정 문학의 특징]

(가)에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나)에서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흥취를 느끼는 낙천적인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에서는 전원에서 가족들과 평온하고 한가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04강

동지ㅅ ᄃᆞᆯ 기나긴 밤을 | 묏버들 갈히 것거 | 꿈에 다니는 길이

본문 024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⑤ **05.** ③ **06.** ④ **07.** ⑤ **08.** ④ **09.** Ⓐ 사랑하는 임이 부재한(결핍된) 시간이면서 느리게 흘러간다. Ⓑ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충족된) 시간이면서 빨리 지나간다. Ⓒ 임이 부재한 '동지ㅅ ᄃᆞᆯ 기나긴 밤' 시간을 잘라 두었다가 임과 함께하는 날 밤 시간을 연장하고자 한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가), (나), (다)는 모두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 (나), (다) 모두 화자 자신의 불우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③ (가), (나), (다)에서 임과 이별한 상황을 부정적 현실이라고 보았을 때, (나)의 화자가 임에게 묏버들을 보내는 것을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가), (다)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 (나), (다) 모두 절망스러운 심정보다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낼 뿐 현재에 비해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나)의 '심거 두고 보쇼서'와 '날인가도 너기쇼셔'는 화자가 자신을 잊지 말라는 염원을 담아 임에게 당부하는 것일 뿐 임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동지ㅅ ᄃᆞᆯ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하는 시간을, '어론 님 오신 날 밤'은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비되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버혀 내여', '너헛다가', '펴리라'는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필요 없을 때 잘라 넣었다가 임이 오시면 펴고 싶다고 변용한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절실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서리서리', '구뷔구뷔'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임이 부재한 시간을 잘라 보관해 두었다가 임이 오신 날 밤 시간을 연장하고 싶다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보내노라 님의손ᄃᆡ'는 도치법을 통해 임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Q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뭔가요?**
>
> A 실체가 없는 개념을 오감(五感)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독자가 마음속에서 감각적으로 대상을 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
> ㉠ 전원(田園)에 나믄 흥(興)을 전나귀에 모도 싯고
> 계산(溪山) 니근 길로 흥치며 도라와셔
> 아히야 금서(琴書)를 다스려라 나믄 히를 보내리라.
>
> – 김천택
>
> 추상적 관념인 '흥(興)'을 나귀에 짐 싣듯이 싣는다고 표현한 것에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가)는 추상적 대상인 '밤'이라는 '시간'을 상상력을 통해 마치 물질인 것처럼 구체화하여 베어 내고 갈무리해 뒀다가 다시 펼쳐 낼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리서리', '구뷔구뷔'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면서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② 일정한 음보와 음절 수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으로써 리듬감을 자아내고 있다.

③ '넣다'와 '펴다'처럼 의미상 대립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동짓달의 긴 '밤'이라는 시간을 마치 사물인 것처럼 그 중간을 잘라 내어 보관했다가 임이 오신 날 밤 펴고 싶다고 표현하여 임과 긴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04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묏버들'은 화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소재이며, 그리운 임에게 보내는 화자의 분신이다. 또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임에게 전하는 매개물이며 임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와 임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보여 주는 대상은 아니다. '묏버들'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임 곁에 항상 있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정표이므로 화자와 임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05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③

ⓐ는 밤비에 새로 돋아나는 버들잎으로, 임이 화자 자신인

것처럼 여겨 바라보아 주기를 바라는 대상이다. 즉 ⓐ는 자신을 잊지 말고 생각해 달라는 화자의 간절한 호소를 임에게 전하는 매개물이다. ③은 귀뚜라미의 넋이라도 되어 임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심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여기서 '실솔'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자 임의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애틋하면서도 간절한 연모의 정을 전하는 매개물이다.

[오답 풀이]

① 기생이었던 한우가 자신에게 구애하는 임제의 시조에 대해 사랑을 허락한 화답가로, 여기에서 '원앙침'은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② 임과 헤어진 뒤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여기에서 '추풍낙엽'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소재이다.

④ 서경덕이 정인이었던 황진이를 생각하며 지은 작품으로, 임이 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바람'은 화자의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⑤ 봄날 해 질 무렵 연못 주변의 풍경을 통해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심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여기에서 '갈매기'는 화자의 외로움을 자극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Q 객관적 상관물은 뭔가요?

A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사물이나 자연물 등을 뜻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여 화자의 정서를 대신 표출하기도 하고, 화자의 정서와 반대되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도 하며, 화자가 어떠한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는 경우는 감정 이입이라고 합니다.

예 펄펄 나는 저 꾀꼬리 /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 뉘와 함께 돌아갈꼬 – 황조가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와 반대되는 자연물인 '꾀꼬리'를 객관적 상관물로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06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은 화자가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음을 나타내는 흔적으로, 화자는 꿈에 다니는 길에 자취가 있다면 자신이 자주 찾아가 임의 집 창밖의 돌길이 닳았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과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라 할 수 없다.

②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시어로, 화자의 고독감을 심화시키는 배경이라 할 수 없다.

③ 임에게 전하는 화자의 사랑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할 수 없다.

⑤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소재라 할 수는 있지만, 화자가 임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는 없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나)에서 '새닙'을 자신으로 여겨 달라고 당부한 것은 화자가 임에게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는 호소인 동시에 자신 역시 임에 대한 사랑을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화자의 체념적 자세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임과 함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임이 부재하는 시간인 '동지ㅅ**돌** 기나긴 밤'을 잘라 내어 넣어 둠으로써 결핍된 시간, 즉 임이 부재하는 시간을 극복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가)에서는 '어론 님 오신 날 밤'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발상을 통해 임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나)에서는 '묏버들'을 '님의손**ᄃᆡ**' 보낸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도 임에게 전하고 싶은 연모의 정이 남아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자시**ᄂᆞᆫ** 창밧긔 심거 두고 보'라고 당부한 것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만은 임의 곁에 있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과 임에 대한 사랑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8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④

(다)의 '님의 집 창'은 화자가 꿈에서라도 닿고 싶은 공간이고, 〈보기〉의 '사창'은 임이 부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창이 임과의 만남을 돕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는 '그를 슬퍼하노라', 〈보기〉에서는 '하도 그리워'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다)에서는 초장에서 상황의 가정을, 〈보기〉에서는 3구에서 상황의 가정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다.

③ (다)와 〈보기〉의 화자는 자취가 남지 않는 것을 슬퍼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마음이 임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다)의 '석로라도 닳으리라', 〈보기〉의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에서는 '길'이 닳거나 '모래'가 되는 상태 변화를 통해 화자의 그리움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9 [시적 상황 및 화자의 대응 파악]

'동지ㅅ**돌** 기나긴 밤'은 사랑하는 임이 부재하는 결핍된 시간이면서 느리고 지루하게 흘러간다. '어론 님 오신 날 밤'은 임과 함께하는 충족된 시간이면서 빨리 지나간다. 따라서 화자는 임이 부재한 시간을 잘라 두었다가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05강

어져 내 일이야 | 이화우 흣뿌릴 제 |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본문 028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① **05.** ② **06.** ③ **07.** ④ **08.**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어 이별 후의 시간의 흐름(시간적 거리감)을 나타낸다. /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이별의 상황을 드러낸다. **09.** (1) '가랴마**눈**'과 '제 구**퇴**야'를 도치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제'는 임을 의미하므로, '(내가)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임이 구태여 갔으랴마는, (임을) 보내고'로 해석할 수 있다. (2) '제 구**퇴**야'를 중장과 종장의 행간 걸침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제'는 화자 자신이 되므로,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임이) 갔으랴마는, 내가 구태여 (임을) 보내고'로 해석할 수 있다. **10.** [형식적 특징]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다. / [효과] 수다스럽게 상황을 나열하여 해학성을 드러낸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가)에서 대비되는 시어의 활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어져', '**흐**노라'의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이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은 한자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순우리말을 구사하여 이별의 정한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부사 '구**퇴**야'를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진솔하게 드러냈다.

⑤ 임과 이별한 여성 화자의 어조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2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 **정답 ⑤**

(가)의 화자는 '제 구**퇴**야'의 '제'에 적용되는 중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이 있으라 하면 '임이' 굳이 갔겠느냐, 또는 '자신이' 굳이 임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자신도 모르겠다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여 임을 보낸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의 화자는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나)의 화자 모두 자신의 정서를 다른 대상에 이입하여 드러내는 감정 이입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의 화자는 대상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지만 대상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화자 역시 대상이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 대상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 (나)의 화자 모두 임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러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의 화자는 이별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을 뿐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나)의 화자도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굳은 다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나)는 '이화우'가 흩뿌리는 봄부터 '추풍낙엽'이 지는 가을까지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헤어진 임에 대한 화자의 생각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 공감각적 표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과거 화자가 임과 이별할 때 이화우가 흩뿌리던 날과 현재의 추풍낙엽이 지는 상황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대비를 통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의인화된 표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나)에서 설의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며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또한 드러나 있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①**

(나)의 '이화우'는 화자와 임이 이별하던 과거의 계절적 상황을 보여 주는 시어로, 가슴 시린 이별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화자의 사랑을 반영한 자연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는 고전 시가 중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한 작품들의 경우, 여성 작가가 자신이 실제 겪었던 이별의 상황과 아픔을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작가가 여성인 '계랑'인 것으로 볼 때 (나)에서의 '님'은 작가 자신이 실제 겪었던 이별 상황에서의 연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적 대상인 '저'도 '날 **싱**각**눈**가'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여전히 시적 대상인 임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천 리'라는 시어는 임과의 공간적 · 물리적 거리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천 리'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⑤ 임과 헤어진 상황에서의 '외로온 **쇰**'은 임을 향한 그리움을 구체화하면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05 [표현과 정서의 파악] **정답 ②**

(다)의 중장에서는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나열하여 극한적인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한 뒤 종장에서 이와 비교하여 임과 이별한 화자의 정서가 더욱 절박하고 절망적임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초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에 빠진 '가토**릐**'의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며 화자가 궁극적으로 염원하는 바를 제시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종장의 서두에는 감탄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초장과 중장은 각각 '가토**릐**'와 '도사공'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물의 변화를 바탕으로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초장과 중장은 대상만 다를 뿐 공통적으로 각각의 대상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초장과 중장의 대립된 상황을 통해 화자의 처지가 변화함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6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매게 **뚀**친 가토**릐**'는 절박하다는 측면에서 화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 화자와 비교되는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어져'는 감탄사로 이를 서두에 제시하여 이별로 인한 화자의 정한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② '보내고 그리ᄂᆞᆫ 정'은 자존심 때문에 떠나는 임을 말리지 않았지만 보내고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④ '노도 일코~치도 ᄲᅡ지고'에서는 배를 움직이는 장비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열거하여 '도사공'의 암담함과 절망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내 안히야 엇다가 ᄀᆞ을ᄒᆞ리오'는 '가토ᄅᆡ', '도사공'과의 비교를 통해 결국은 화자의 상황이 가장 암담함을 부각하고 있다.

07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다)에서는 임과 이별한 암담한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도사공이 처한 극한의 상황을 과장하여 수다스럽게 나열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슬픔을 해학적으로 승화시킨 웃음의 미학이 나타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대상의 우스꽝스러운 행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대상이 지닌 어리석은 측면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유사한 음을 반복하거나 말의 배치를 바꿔서 표현한 언어유희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도사공'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Q 사설시조에서의 '웃음의 미학'이 뭔가요?

A 사설시조에서의 '웃음의 미학'이란 주로 해학과 풍자를 의미합니다. 해학과 풍자는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해학은 인물에 대해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웃음이고, 풍자는 말뚝이가 양반을 공격하는 것처럼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예 「흥부전」에서 흥부가 형 놀부에게 먹을 것을 얻으러 갔다가 형수에게 밥주걱으로 뺨을 얻어맞습니다. 이때 흥부가 밥주걱에 붙은 밥풀을 떼어 먹으면서 반대쪽 뺨을 내밀고 '여기도 때려 주십시오, 형수님.'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해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봉산 탈춤」에서 '말뚝이'가 양반들을 '개잘량 양 자에 개다리 소반 반 자'로 표현하며 조롱하는 부분에서 '풍자'를 느낄 수 있습니다.

08 [표현 및 효과의 파악]

㉮는 과거 임과 이별할 때의 계절적 상황을 나타내고 ㉯는 임과의 이별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계절적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 ㉯는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어 이별 후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또한 이화우는 비처럼 내리는 배꽃, 추풍낙엽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으로 둘다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이별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09 [표현 및 효과의 파악]

'제 구ᄐᆡ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는데, 임을 주어('제')로 하여 임의 행위를 강조하는 도치로 볼 수도 있고, 화자를 주어로 하여 행간 걸침으로 볼 수도 있다. 임을 주어로 하면 '임에게 있으라고 했더라면 임이 굳이 떠났겠느냐마는'으로 해석할 수 있고, 화자를 주어로 하면 '임에게 있으라고 했더라면 임이 떠났겠느냐마는 / 내 굳이'로 해석할 수 있다.

10 [사설시조의 특징 파악]

(가), (나)는 평시조, (다)는 사설시조이다. 사설시조의 '사설'은 '말씀 사(辭)'와 '말씀 설(說)'이 결합된 말로 '사설이 장황하다'와 같이 쓰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입말이 늘어지는 것을 표현한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에 비해 중장의 길이가 길고, 중장에서 수다스럽게 상황을 나열하여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06강

님이 오마 흔거놀 | 어이 못 오던가 |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본문 032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④ **07.** ⑤ **08.** [표현상의 특징] '너(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반복적·연쇄적으로 나열하였으며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 [효과] '너(임)'가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화자의 심정] '너(임)'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있다. **09.** 홰홰, 버동버동, 캉캉 / 운율을 형성하고 생동감, 해학성을 살린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④**

(가)에서는 화자의 경솔한 행동을 통해 임과의 만남에 대한 화자의 들뜬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다)에서는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과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 대한 원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 모두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정서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다) 모두 화자가 처한 참담한 생활상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다) 모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이 표출되어 있지는 않다. (나)의 종장에서는 오지 않는 '너', 즉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 대한 원망으로 전가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가)~(다) 모두 상대에 대한 연민의 정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나)와 (다)에는 상대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⑤ (가)~(다) 모두 자연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설의적 표현은 (나)의 종장에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화자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한 상황을 '주추리 삼대'가 '**솔**드리도' 자신을 속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솔**드리도'는 '살뜰하게도'라는 의미로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하므로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낭패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나)의 중장에서는 임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로서 일상적인 소재들을 연쇄적으로 연결하여 임을 기다리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④ (나)의 초장에서는 '무**솜** 일노 못 오던가'라고 하여 임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임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서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임에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과장된 행동을 나열하여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는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과장되게 추측하여 나열함으로써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03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엣말~소겨다'는 화자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한 것을 '주추리 삼대'가 자신을 속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지, 사랑하는 임에게 화자가 속았음을 자각하는 부분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ㄱ'은 임을 기다리고 있는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② 'ㄴ'은 임에 대한 그리움, 임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화자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③ 'ㄷ'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허둥대며 임을 만나러 가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⑤ 'ㅁ'은 화자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밤이었으니 다행이지 만약 낮이었다면 남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웃었을 것이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애써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04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②**

'보션', '신'이라는 소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는 맞지만 임의 소중함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곰**븨**님**븨**'는 엎치락뒤치락 급히 구는 모양을, '천방지방'은 허둥대는 모양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로 (가)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화자의 허둥대는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허둥지둥 달려가는 화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해학성이 드러나고 있다.

④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절실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화자가 임을 만나러 가는 행위를 과장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다 보니 중장이 장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즌 ᄃᆡ ᄆᆞ른 ᄃᆡ **ᄀᆞᆯ**희지' 않고 임에게 가서 정이 있는 말, 즉 마음에 품은 말을 하려는 모습에서 임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려는 화자의 대담성을 엿볼 수 있다.

05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③**

이 글은 임이 왜 오지 않는지 이유를 상상하여 따지는 것으로 시상이 전개되는데, 그 이유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상이 전개되기는 하지만 배경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너(임)'를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열거하며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못 오던가(오던다)'의 구절, '~고(코)'의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중장에서 사물을 연쇄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종장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올 수 있음에도 오지 않는 '너(그리운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06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게 전가하는 장치를 통해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의 초장, 종장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개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다)의 중장에서는 '홰홰', '버동버동', '캉캉' 등의 음성 상징어로 개의 행동을 묘사하여 화자의 바람과 다르게 행동하는 개와 그런 개를 얄밉게 생각하는 주인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다)의 초장에서는 '얄**믜**오랴'라고 하며 개에 대한 미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종장에서는 그 미움을 쉰밥이 남아도 주지 않을 정도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⑤ '뭐온 님' 오면 반갑다고 꼬리 치고, '고온 님'이 오면 짖어서 쫓아 버리는 모습에서 대조되는 대상에 대한 개의 상반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국 개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정서가 임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7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가)에서 ㉠은 화자가 '임'으로 착각한 대상으로, 이는 화자가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만든 소재라 할 수 있다. (다)에서 ㉡은 미운 임은 반기고 고운 임은 쫓아내어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과 ㉡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라 할 수 없다. ㉡의 경우 화자가 임에 대한 원망을 전가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② ㉠과 ㉡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라 할 수 없다.

③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가 아닌, 화자가 '임'으로 착각하는 소재이고, ㉡은 화자와 처지가 동일한 소재가 아닌, 원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④ ㉠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라 할 수 없으며 ㉡ 역시 과거의 사건에 대한 반성의 계기라 할 수 없다. (나)에는 반성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08 [표현상 특징과 정서의 파악]

(나)의 중장에서는 '너(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반복적·연쇄적으로 나열하여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결국은 '너(임)'가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종장에는 오지 않는 '너(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다.

09 [음성 상징어의 효과 파악]

(다)에서는 우리말의 의태어 '홰홰', '버동버동'과 의성어 '캉캉'을 활용해 얄미운 개의 행동을 표현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생동감을 부여하며 해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07강

창 내고쟈 창을 내고쟈 | 한숨아 셰 한숨아

본문 036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② **06.** ④ **07.** ⑤ **08.** ⑤ **09.** (1) 삶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는 통로 (2) 화자는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가슴에 창을 내어 여닫고 싶다고 할 정도로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10.** (1) 문의 종류와 부속물 같은 일상적 사물들을 나열하였다.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 과장과 수다스러운 진술을 통해 해학성을 부여하고 있다.(이 중 2개) (2) (가)의 화자는 마음의 답답함을 창을 내어 밖으로 내보내려 하고, (나)의 화자는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틈을 없애서 근심이나 시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④**

(가)의 화자는 근심으로 답답한 마음을 '방'에 비유하고 '창'을 내어 답답함을 풀어 보고자 한다. (나)의 화자는 한숨에 인격을 부여하여 '너'로 구체화하고, 자물쇠를 채우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한숨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한숨'은 자연물이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에 해당한다.

② (나)는 '드러온다(들어오느냐)'라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한숨'으로 인한 괴로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에는 의문형 어미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나)는 '한숨'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만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으며 (가)는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정을 혼잣말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고 있지 않다.

02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②**

(가)의 화자는 가슴에 창을 내서라도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듯 마음에 한숨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 (나)의 화자 모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나)의 화자 모두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가), (나)의 화자 모두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가), (나)의 화자 모두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양반들의 욕심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 (나)의 화자 모두 각각 현실의 근심과 한숨이 나오는 상황을 해

결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 대한 자책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3 [갈래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 절제되고 정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은 평시조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가)와 (나)는 사설시조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여 서민들의 처지를 생생하고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일상적인 소재의 나열과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 중장이 현저하게 길어졌다.

② (가)와 (나)에서는 괴롭고 답답한 심정과 시름으로 인한 괴로움을 각각 가슴에 창을 만드는 것과 문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으로 벗어나 보려는 해학적 발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오는 고통이나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낙천적인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는 답답한 마음을 '방'에 비유하고 창을 내어 그것을 여닫는 것으로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기발한 발상이, (나)에는 문의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한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기발한 발상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삶의 고단함과 근심을 그려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창문이나 문과 관련된 일상적인 언어와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에서의 근심을 견뎌 내려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4 [표현의 의도 파악] **정답 ⑤**

(가)에서는 마음이 답답한 상황을 고통과 비애로 표현하지 않고 기발하고 참신한 발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가 '창을 내'는 것은 마음의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해 행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가슴에 창'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중장에서는 창을 내는 과정을 재현하듯 문의 종류와 부속물들을 나열하여 수다스럽게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괴롭고 답답한 상황을 해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창 내고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절박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②**

(가)의 화자는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해학을 통해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남편이 병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이며 해학적 태도로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 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보기〉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의 답답함을 해학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06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나)에서는 화자의 치밀한 문단속에도 불구하고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한숨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해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쑥닥', '뒤뒤글'과 같은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여 한숨을 막기 위해 문단속을 하는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② '한숨'에 인격을 부여하여 '너'라고 지칭함으로써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③ 화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대상인 '한숨'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장ᄌᆞ', '돌저귀', 'ᄌᆞ물쇠'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나열하여 화자의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07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에서 화자는 한숨이 자신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이 한숨을 쉬는 것으로 파악(초장)하고,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철저하게 문단속을 하여 틈을 막고자(중장)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화자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

② ㉠에서 화자는 근심을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 한숨에 대해 못마땅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에서 화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근심거리가 생긴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에서 화자는 한숨이 자신의 안에서 생긴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④ ㉠에서 화자는 한숨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한숨을 자꾸 쉬어서 자신이 가진 긍정적 기운이 빠져나갈까 봐 근심하고 있지 않다.

08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병풍'은 추상적 대상인 '한숨'을 비유한 구체적 대상이다. 즉 ⓔ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사물로 비유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창'은 화자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는 매개체이다.

② '쟝도리'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므로 화자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③ '한숨'은 화자의 근심과 걱정을 구체적으로 집약시킨 대상이다.

④ 'ᄌᆞ물쇠'는 화자가 한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사물이다.

09 [소재의 상징성 및 화자의 태도 파악]

'창'은 화자가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마음에 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 상징적 의미는 삶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자는 종장에서 가끔 너무 답답할 때면 가슴의 그 창을 여닫아 보겠노라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의 화자는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가슴에 창을 내어 그 창을 여닫고 싶다고 할 정도로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가)와 (나)의 중장은 문의 종류와 부속물 같은 일상생활 속 사물들을 나열하였으며, (가)에서는 '쭝닥', (나)에서는 '쭉닥' 등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또한 (가)와 (나)의 중장은 과장과 수다스러운 진술을 통해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내용상 (가)의 화자는 마음의 답답함을 창을 내어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발상을 보이고, (나)의 화자는 문을 달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근심이나 시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8강

시어머님 며늘아기 나빠 | 두터비 파리를 물고 | 일신이 사쟈 ᄒᆞ이

본문 040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① 05. ③ 06. ⑤ 07. ④
08. ⑤ 09. ③ 10. ㉮ 백성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무리들 ㉯ 쉬ᄑᆞ리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가)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밤나무 썩은 등걸에 휘초리나 같이 알살피신 시아버님', '볕 쬔 쇠똥 같이 되종고신 시어머님' 등을 통해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에서 명령형 어미가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볕 쬔 쇠똥같이 되종고신 시어머님', '삼 년 결은 망태에 새 송곳 부리 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등은 인물의 특징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어디를 나빠 하시는고'에서 의문형 문장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 [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 ②**

'시아버님'을 '밤나무 썩은 등걸에 휘초리' 같다고 하였다. '휘초리'는 '시아버님'이 '며늘아기'를 매섭게 대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시어머님'이 '며늘아기'를 미워하여 '부엌 바닥을 구르'고 있으므로 '부엌 바닥'은 '시어머님'이 '며늘아기'를 미워하고 꾸중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시어머님'과 '며늘아기'가 살림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나누는 공간은 아니다.

③ '삼 년 결은 망태'는 삼 년을 써서 낡은 망태기라는 뜻인데 특정 기간을 강조하여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삼 년 결은 망태'는 시누이의 뾰족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이다.

④ '당피 간 밭에 돌피'는 '며늘아기'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⑤ '샛노란 외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은 '며늘아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 아들이 '시어머님'이 '며늘아기'를 미워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03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빚에 받은 며느리', '값에 쳐 온 며느리'라는 표현은 빚을 대신해 받은 며느리인 것처럼, 돈을 주고 사 온 며느리인 것처럼 며느리를 미워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며느리에 대한 하대가 만연한 세태가 드러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구르지 마오'는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님의 행동에 변화를 바라며 당부를 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알살피신'은 시아버지를, '되종고신'은 시어머니를, '뾰족하신'은 시누

이를 수식하는 말이다. 시집 식구들을 말라빠진 모습, 매섭고 뾰족한 성격으로 표현한 것은 시집 식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시어머니는 '볕 쬔 쇠똥'처럼 말라빠졌다고 하였으므로 '볕 쬔 쇠똥'은 시어머니의 외양을 희화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건밭에 메꽃 같은 며느리'는 며느리가 기름진 밭에 메꽃같이 고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시집 식구들에 대한 부정적 표현들과 대비되면서 며느리가 미워할 곳이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04 [공간의 의미 파악] **정답 ①**

'두터비'는 ⓐ 위에서 '파리'를 물고 앉아 위엄을 부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두터비'는 '파리'를 물고 ⓐ에 앉아 있다. '두터비'가 ⓐ를 빼앗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는 '백송골'이 떠 있는 곳이다. '파리'를 괴롭히는 것은 '백송골'이 아니라 '두터비'라고 볼 수 있다.

④ '백송골'은 '두터비'가 두려워하는 존재이다. '백송골'이 '두터비'를 두려워하여 ⓑ로 도망한 것은 아니다.

⑤ '두터비'가 '파리'를 통해 ⓑ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는 '백송골'의 공간이다.

05 [시적 상황의 파악] **정답 ③**

(가)의 중장부터 화자가 '두터비'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중장은 '두터비'가 '백송골'을 보고 드러낸 행동(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심리를 직접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중장부터 화자가 '두터비'로 바뀐다고 해도 '백송골'이 우위에 놓인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② 중장에 '백송골'과 '두터비'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다각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④ 종장은 '두터비'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이다. 중장부터 화자가 '두터비'로 바뀐다고 종장에서 '두터비'가 부정적인 상황에 맞서려는 의지를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종장에서 '두터비'가 과거의 행적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06 [시적 대상의 태도 파악] **정답 ⑤**

'두터비'는 '백송골'로 인해 두엄 아래 자빠지고 나서 자신이 날랬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허장성세'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뜻한다.

[오답 풀이]

①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한다.

② '자가당착'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을 뜻한다.

③ '침소봉대'는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을 뜻한다.

④ '호가호위'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뜻한다.

07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갈앙니', '슈통니', '별록', '빈대 삿기', '등에아비' 등 비슷한 대상을 열거하여 이 대상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청유형 어미는 사용하지 않았다.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다.

③ 대상을 열거하고는 있지만 이들 대상은 서로 대조적인 성격이 아니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⑤ '피ㅅ겨 ᄀᆞᆺ튼 갈앙니 볼리알 ᄀᆞᆺ튼 슈통니' 등에서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표현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Q 감정을 이입한다는 것은 뭔가요?**
>
> A 고전 시가 작품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이입한다는 것은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투영한다는 것으로, 화자의 감정이 기쁠 때 자연물 역시 기쁨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화자의 감정이 슬플 때 자연물 역시 슬픔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
> 예 수풀에 우는 새 춘기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
> – 정극인, 「상춘곡」
>
> 이 작품에서는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완상하는 화자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새'라는 자연물에 투영되어 '새'가 아양을 떨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새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것입니다.

08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⑤**

종장에 화자의 목소리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변화된 화자의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오뉴월 복더위예 쉬ᄑᆞ리'라고 말하면서 상황의 고통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초장에서는 화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물썻'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중장에서는 '갈앙니'는 피의 껍질같이 작고, '슈통니'는 보리알같이 크며, '빈대 삿기'는 비파 같다고 하는 등 여러 곤충의 외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중장에 등장하는 '갈앙니', '슈통니', '별록', '빈대 삿기', ' 등에아비' 등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며, 화자는 이 대상들로 인한 상황에 대해 '얼여왜라'라고 말하며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종장에서 화자의 어려움이 극대화되는 시기는 '오뉴월'이며, 어려움을 극대화하는 대상은 '쉬ᄑᆞ리'라고 밝히고 있다.

09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③**

(다)가 서민들의 고통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것은 맞지만 그 고통은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물썻'으로 표현한 탐관오리 때문에 생긴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 주목하여 시집살이라는 일상의 문제 상황을 다루고 있다.

② (나)의 초장에서는 '두터비'의 행동을, 중장과 종장에서는 '두터비'의

말을 희화화여 제시하며,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의 '두터비'와 (다)의 '쉬ᄑᆞ리'는 모두 일상의 소재로서 당시 서민들을 착취하던 탐욕스러운 관리들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다)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쇠똥', (나)의 '두엄', (다)의 '별록' 등은 일상적 소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 (나), (다)와 같은 사설시조가 서민들의 삶과 밀착해 있음을 드러낸다.

10 [소재의 의미 파악]

'물ᄊᆡᆺ'은 백성을 착취하는 부류들을 상징한다. 종장의 '츰아 못 견들쓴'이라는 표현에서 '쉬ᄑᆞ리'가 가장 견딜 수 없는 존재, 즉 착취와 횡포가 가장 극심했던 탐관오리임을 짐작할 수 있다.

09강 도산십이곡

본문 044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⑤ **05.** ④ **06.** ④ **07.** ①
08. ⑤ **09.** ③ **10.** (1) 어듸 가 ᄃᆞ니다가 이제ᅀᅡ 도라온고 (2) 벼슬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학문에 다시 힘쓸 것이다.

01 [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 ⑤**

화자가 목표 의식 없이 학문을 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답 풀이]

① 〈제7곡〉의 '천운대 도라드러 완락재 소쇄ᄒᆞᆫ듸', '이 듕에 왕래 풍류'를 즐기고 있음을 보아 화자가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제10곡〉의 '어듸 가 ᄃᆞ니다가 이제ᅀᅡ 도라온고'를 통해 화자가 학문의 길을 버려두고 벼슬길에 나아간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제12곡〉의 '성인도 ᄆᆞᆫ다 ᄒᆞ시니 긔 아니 어려온가'를 통해 화자가 학문의 길이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제10곡〉의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 듸 ᄆᆞᄉᆞᆷ 마로리'를 통해 화자는 학문에 소홀했던 때가 있었음을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제8곡〉의 '뇌정이 파산ᄒᆞ야도 농자는 ᄆᆞᆫ 듣ᄂᆞ니 / 백일이 중천ᄒᆞ야도 고자는 ᄆᆞᆫ 보ᄂᆞ니', 〈제9곡〉의 '고인도 날 ᄆᆞᆫ 보고 나도 고인 ᄆᆞᆫ 뵈' 등에서 대구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적 표현은 내용을 강조하고 운율감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② 명사형으로 종결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③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④ '뇌정이 파산ᄒᆞ야도'에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대화체를 활용한 부분은 없다.

03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는 학문에 정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의 현재 삶의 모습이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말해 준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현재에도 학문에 정진하는 삶을 살고 있으므로 ⓐ가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바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화자가 학문에 정진하게 되면서 한가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④ 화자는 학문에 정진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화자가 학문을 하면서 쓸쓸함과 적막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화자는 학문 정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는 화자가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원인이 아니다.

04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⑤**

화자는 학문 정진에 대한 뜻을 밝히고 있으나, 학문 정진을 인재 양성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제11곡〉의 '우리도 그티디 마라 만고상청 호리라'를 통해 화자가 학문 정진을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제9곡〉의 '고인을 **몯** 뵈도 녀던 길 알**퓌** 잇**닉**'를 통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③ 〈제10곡〉의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 듸 **ᄆᆞᅀᆞᆷ** 마로리'를 통해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진리 탐구에만 매진하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읽어 낼 수 있다.

④ 〈제12곡〉의 '우부도 알며 **ᄒᆞ**거니 긔 아니 쉬운가'를 통해 학문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성인도 **몯**다 **ᄒᆞ**시니 긔 아니 어려온가'를 통해 학문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화자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05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④**

'당시예 녀든 길'은 학문 정진의 길로, '년 듸 **ᄆᆞᅀᆞᆷ**'을 두고 가던 길, 즉 벼슬길과는 대조적인 삶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천운대를 돌아들어 있는 '완락재'를 들며 '왕래 풍류'는 말해 무엇하느냐고 하였으므로 '왕래 풍류'는 '완락재'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농자'와 '고자'는 귀먹은 사람과 눈먼 사람으로, 이 글에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농자'와 '고자'는 눈과 귀가 밝은 사람이라는 뜻, 즉 학문을 닦아 도를 깨달은 상태를 의미하는 '이목총명 남자'와 대조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③ '고인'을 못 뵈어도 고인이 가던 학문의 길이 앞에 있으니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나'가 '고인'의 삶을 따르고자 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청산'은 '만고애 프르르'고 '유수'는 '주야애 긋디 아니'하다고 하였으므로 '청산'은 불변성에 대한, '유수'는 영원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06 [표현상의 특징 비교] **정답 ④**

[B]의 부정 표현 '년 듸 **ᄆᆞᅀᆞᆷ** 마로리'에서는 성인이 '녀든 길'을 버려두었던 자신의 지난 모습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A]의 부정 표현 '**몯** 보고'와 '**몯** 뵈'는 종장의 '아니 녀고 엇뎔고'와 이어져 마땅히 '**몯** 뵈'었던 '고인'을 '고인'이 가던 길(학문의 길)에서 만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A]의 초장에는 '고인도 날 **몯** 보고'와 '나도 고인 **몯** 뵈'가 대구를 이루며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B]에서는 '당시'에 가던 길(학문)을 버렸다가 '이제나' 그 길로 돌아온 상황에서 화자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다짐하는 기점(시작점, 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A]에서는 '아니 녀고 엇뎔고'에서 설의법으로 화자의 다짐을, [B]에서는 '이제**사** 도라온고'라는 의문형 어구로 과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A]는 '초장(고인 **몯** 뵈) – 중장(고인을 **몯** 뵈도)'과 '중장(녀던 길 알**퓌** 잇**닉**) – 종장(녀던 길 알**퓌** 잇거든)'에서, [B]는 '중장(이제**사** 도라온고) – 종장(이제나 도라오나니)'에서 연쇄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이해] **정답 ①**

〈제8곡〉에서는 '뇌정'과 '백일'에도 깨닫지 못하는 '농자'와 '고자'를 통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농자'와 '고자'는 학문에 열중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제9곡〉에서는 '나'와 '고인(옛 성인)'은 서로 만난 적이 없으나, '나'가 '고인'이 '녀던 길(학문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 길을 걸었던 '고인'의 삶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0곡〉에서 '당시예 녀든 길'은 학문의 길을, '년 듸'는 학문의 길을 벗어난 것(벼슬길)을 의미하므로 둘은 대비가 된다. 또한 '이제**사**' 다시 그 길만을 걷고 '년 듸'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학문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1곡〉에서는 '청산'과 '유수'의 영속성을 보며 자신도 그와 같이 '만고상청' 하며 끊임없이 학문의 길을 걷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2곡〉에서는 '성인도 **몯**다' 할 정도로 학문 완성이 어렵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학문 수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Q 사대부 시가의 특징은 뭔가요?

A 이황의 「도산십이곡」은 대표적인 사대부 시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대부들은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 작품을 통해 사대부의 관념적 인식을 드러냈는데, 사대부 시가에서 자연은 우주 만물의 보편타당한 이치가 내재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학문을 정진하고 내면을 수양할 수 있는 조화롭고 이상적인 곳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세속을 떠나 자연에서 머무는 사대부들뿐만 아니라 정계에 진출하여 벼슬을 했던 사대부들에게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자연 인식이에요. 사대부 시가를 읽을 때 자연에 대한 사대부들의 이러한 인식을 염두에 두면 작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08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제11곡〉에서는 '청산'과 '유수'라는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불변성과 영속성이라는 자연물의 속성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청산'에서 색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나 색채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 '청산'과 '유수'를 통해 자연이라는 시적 공간을 파악할 수 있지만 자연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자연의 탈속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③ '청산'과 '유수'는 다른 속성을 지닌 대상이 아니라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엇뎨**ᄒᆞ**야 만고애 프르르며', '주야애 긋디 아니**ᄂᆞᆫ**고'에 의문형 문장이 활용되었으나 이를 통해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9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이해] **정답 ③**

〈보기 1〉에서 이황은 이속의 말로 작품을 지어 노래를 하기에 좋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속'의 말이란 사전적으로는 '상스럽고 속된' 말을 의미하는데, 유학자였던 이황에게는 고상하고 학문적인 한자어가 아닌, 일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우리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녀던 길 알**픠** 잇거든 아니 녀고 엇뎔고'에는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뜻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소쇄'는 기운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의 한자어로, 이속의 말이라고 하기 어렵다.

② '뇌정', '파산', '농자'는 이속의 말이라고 하기 어렵다.

④ '유수', '주야'라는 한자어가 쓰였다.

⑤ '만고상청'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 없이 푸르다는 의미의 한자성어로, 이속의 말과 거리가 멀다.

10 [주제 의식의 파악]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벼슬을 지낸 과거의 삶에 대해 회고하면서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10곡〉의 '어듸 가 **ᄃᆞᆫ**니다가 이제**ᅀᅡ** 도라온고'에는 과거에 대한 화자의 후회가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후회의 밑바탕에는 벼슬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학문에 다시 힘쓰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0강 고산구곡가

본문 048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④ **06.** ④ **07.** 벽파에 곳을 **씌**워 **08.** 일곡부터 구곡까지 '~은 어**듸****미**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관암에 **힌** 비쵠다', '황혼에 낙대를 메고', '문산에 세모커다'에서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생동감을 부각하는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고산의 아홉 굽이의 경치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 점층적 표현을 통해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④ 주자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역사적 인물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02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제10수〉의 '유인'은 속세의 사람들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에서 누리는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제1수〉의 '사**ᄅᆞᆷ**'은 고산의 구곡담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학문 수양의 방법이나 태도를 모르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화자는 이런 '사**ᄅᆞᆷ**'에게 고산의 뛰어난 경치 또는 학문에 정진하는 즐거움을 알려 주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사**ᄅᆞᆷ**'과 마찬가지로 '학주자'에 대해 모른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제2수〉의 '녹준'은 술통을 가리키는데, 이는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과 풍류를 의미한다. 세속에서의 부귀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③ 〈제3수〉의 '승지'는 경치가 좋은 곳이고, 화자가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공간으로, 화자가 동경하는 공간이 아니다.

④ 〈제6수〉의 '은병'은 병풍처럼 되어 있는 절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곡의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다. '은병'을 통해 화자가 속세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다.

03 [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 ③**

[A]에서 화자는 잡초가 우거진 들판에 안개가 걷히고 난 뒤의 먼 산을 그림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찾아올 벗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A]에서 화자가 먼 산을 보면서 그리운 친구를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A]의 '관암에 **힌** 비쵠다'를 통해 해가 뜬 아침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A]의 중장에서 잡초가 우거진 들판에 안개가 걷히고 난 뒤의 먼 산을 그림 같다고 말하고 있다.

④ [A]의 '평무에 **닉** 거드니'에서 안개가 걷히며 달라진 산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A]에는 해가 뜰 무렵의 아름다운 산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기쁨과 만족감이 나타나 있다.

04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④**

㉠에서 화자는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보면서 시를 지어 읊으며 즐기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완상하고 풍류를 즐기면서도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화자는 자신의 학문 정진의 뜻을 드러내고 있을 뿐 후학을 양성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② ㉠에는 화자가 자연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을 뿐 화자가 자연이 지닌 가치를 내면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에서 화자가 속세에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파악할 수 없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지 않다.

⑤ ㉠에서 화자가 풍류도 즐기고 학문에도 정진하고자 함을 알 수 있으나 화자가 풍류와 학문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하고 있지는 않다.

05 [화자의 공통된 정서 파악] **정답 ④**

㉡은 '나와 물고기 중 누가 더욱 즐길 수 있으랴'라는 말로 화

자와 물고기 모두 자연을 즐기고 만끽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화자와 자연이 하나 되어 즐거움을 누리는 경지를 표현한 것이다. 송순의 시조 「십 년을 경영하여」에서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 두고'는 자연과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자연과 하나된 화자의 상태를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우탁의 시조이다. '귀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 볼까 하노라'에서 귀밑에 해묵은 서리, 즉 흰 머리를 녹여 없애고 싶다는 화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늙음에 대한 한탄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시조이다. '가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고 하며 씻은 몸이 더럽혀질까 염려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싸움, 부정한 것들과 거리를 두라는 경계를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이 작품은 원천석의 시조이다. '아마도 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라고 한 것을 통해 대나무의 곧은 절개를 예찬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이 작품은 홍랑의 시조이다. '묏버들 가려 꺾어' 임에게 보내고 '나인가도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6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수변 정사'는 이이가 해주 석담에 지은 은병 정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생활하면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공간이다. '수변 정사'는 세속과 연결되는 공간이나 자연에서의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곳이 아니라, 학문 정진과 후학 양성의 뜻을 펼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이이가 주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은병 정사를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무이'를 상상한다는 것은 화자가 주자와 같은 삶을 지향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승지'는 경치가 좋은 곳, 즉 속세와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는 주자가 후학을 양성하며 지낸 곳인 '무이산'과 같은 곳이므로 아름다운 자연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은병'은 '은병 정사'라는 이름과 연관되는 것으로, 화자가 거처하고 있는 자연, 삶의 공간이 주자의 '대은병', 즉 '무이산'과 유사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⑤ '강학'과 '영월음풍'의 공간인 자연은 주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하고자 하는 화자의 지향성을 드러내는 곳으로,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Q 고전 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뭔가요?

A 「고산구곡가」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 그곳에서의 만족감을 드러낸 작품으로, 고전 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고전 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는 자연에 대한 예찬, 지조와 절개, 효와 충, 늙는 것에 대한 슬픔 등을 꼽을 수 있어요. 특히 자연에 대해 예찬하고 있는 작품은 안빈낙도, 안분지족, 유유자적, 물아일체 등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 안빈낙도(安貧樂道):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 안분지족(安分知足):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
- 유유자적(悠悠自適):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
- 물아일체(物我一體): 외부의 자연물과 자아가 어울려 하나가 됨.

지조와 절개를 다루는 작품에서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등이 상징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효와 충의 관념을 강조하는 작품은 가르침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늙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작품에는 흰머리, 지팡이와 같은 소재가 자주 나온답니다.

07 [표현상의 특징 파악]

색채 이미지는 색깔을 표현하는 색채어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색채를 지닌 대상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색채 이미지를 제시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벽파에 곳을 씌워'이다. '벽파'는 '푸른 물결'이라는 뜻이다.

08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이해]

「고산구곡가」는 총 10수로 되어 있는데, 서사에 해당하는 〈제1수〉를 제외하고 일곡부터 구곡까지 형식적인 면에서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곧 '~은 어듸미오'라는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구조적 안정감과 통일성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강 훈민가

본문 052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③ **05.** ③ **06.** ④ **07.** ① **08.** (1) ᄆᆞᅀᆞᆯ 사ᄅᆞᆷᄃᆞᆯ하 올ᄒᆞᆫ 일 ᄒᆞ쟈ᄉᆞ라, 오ᄂᆞᆯ도 다 새거다 호ᄆᆡ 메고 가쟈ᄉᆞ라, 올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겨 보쟈ᄉᆞ라 (2) 청유형 어미(문장)를 활용하여 행동을 함께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09.** ② **10.** 상부상조(相扶相助), 서로서로 도와 가며 힘을 합쳐 일을 한다.

01 [작품의 성격 파악] **정답 ②**

백성들에게 유교적 덕목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작품으로 교훈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오답 풀이]

①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이 아니므로 서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③ 어떤 대상이나 인물, 자연 등을 예찬하고 있지 않다.

④ 백성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을 뿐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 않다.

⑤ 이 작품은 관조, 즉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관조적이라고 볼 수 없다.

Q 시가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훈민가」는 교훈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작품인데, 교훈적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어렵지 않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가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그 뜻이 어려운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알아 두면 시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 관조적: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음미하는.
- 관념적: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 우의적: 다른 사물에 빗대어 어떤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 역설적: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 경세적: 세상 사람을 가르쳐 깨우치는.
- 서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 서사적: 이야기의 형식으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기술하는.

02 [주제 의식의 파악] **정답 ④**

〈제9수〉의 'ᄑᆞᆯ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티리라'는 어른을 공경하여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자가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제3수〉의 '**ᄒᆞᆫ 졋** 먹고 길러나이셔 닷ᄆᆞᄋᆞᆷ을 먹디 마라'는 한 부모에게서 자라난 형제는 우애를 해치는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② 〈제4수〉의 '어버이 사라신 제 셤길 일란 다ᄒᆞ여라'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극진히 섬기라는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③ 〈제8수〉의 '**ᄆᆞᅀᆞᆯ** 사ᄅᆞᆷᄃᆞᆯ하 올ᄒᆞᆫ 일 ᄒᆞ쟈ᄉᆞ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⑤ 〈제14수〉의 '비록 못 니버도 **ᄂᆞᄆᆡ** 오ᄉᆞᆯ 앗디 마라'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제14수〉의 '비록 못 니버도 **ᄂᆞᄆᆡ** 오ᄉᆞᆯ 앗디 마라 / 비록 못 머거도 **ᄂᆞᄆᆡ** 밥을 비디 마라'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고사성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선경 후정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계절과 관련 있는 시어나 시구가 제시되지 않았다.

⑤ '**ᄒᆞ쟈ᄉᆞ라**'와 '가쟈ᄉᆞ라'에 청유형 어미가 활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제9수〉의 '막대 들고 조ᄎᆞ리라'는 어른께서 나갈 데가 있을 때에 지팡이를 들고 쫓아가 보살펴 드리라는 의미이다. 사람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제3수〉에서 '네 **ᄉᆞᆯᄒᆞᆯ ᄆᆞᆫ**져 보아'라고 한 것은 형과 아우가 한 핏줄에서 태어나 모습이 같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애를 지키라는 뜻을 담고 있다.

② 〈제4수〉에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효를 다하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효도를 다시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④ 〈제13수〉에서는 부지런히 호미를 메고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뽕을 따자고 말하고 있다. '올 길에 뽕 따다가'는 막간에도 부지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⑤ 〈제14수〉에서는 도둑질이나 동냥을 하면 때가 묻어 다시 씻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도둑질이나 동냥을 했던 경험이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05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제9수〉에서는 향음주가 다 끝날 때까지 어른을 기다렸다 모셔 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향음주'는 어른께 드리는 좋은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른께서 밖에 나가 즐기는 모임을 가리킨다.

[오답 풀이]

① 형제는 '**ᄒᆞᆫ 졋** 먹고 길러나이셔'라고 하였으므로 '**ᄒᆞᆫ 졋**'은 한 부모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팔목을 쥐시면 '두 손'으로 받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어른에 대한 공경의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오늘도 날이 밝았으니 '**호ᄆᆡ**'를 메고 가자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부지런히 일을 하자는 의미이므로 '**호ᄆᆡ**'는 노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ᄂᆞᄆᆡ** 밥'을 구걸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ᄂᆞᄆᆡ** 밥'은 탐내거나 빚져서는 안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6 [주제 의식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④**

〈제4수〉에는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효도를 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풍수지탄'이다. '풍수지탄'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간난신고'는 몹시 힘들고 어려우며 고생스러움을 뜻한다.
② '경이원지'는 공경하되 가까이하지는 않음을 뜻한다.
③ '맥수지탄'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함구무언'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이해] **정답 ①**

'디나간 후ㅣ면' 어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라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ᄆᆞᄋᆞᆯ 사ᄅᆞᆷᄃᆞᆯ하 올ᄒᆞᆫ 일 ᄒᆞ쟈ᄉᆞ라'를 보면, 구체적인 청자로 'ᄆᆞᄋᆞᆯ 사ᄅᆞᆷᄃᆞᆯ'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ᄆᆞ쇼ᄅᆞᆯ 갓 곳갈 ᄉᆡ워 밥 머기나 다ᄅᆞ랴'를 보면, '갓 곳갈'을 쓰고 '밥'을 먹는 'ᄆᆞ쇼'는 옳지 못한 사람을 비유한 대상으로 이를 통해 옳은 일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ᄑᆞᆯ목'을 '쥐시'면 '두 손으로 바티리라'는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내용이다.
⑤ '내'가 자신의 '논'을 다 매거든 '네 논'도 매어 준다는 것에서 화자가 스스로 상부상조의 행위를 실천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구절의 의미와 표현 파악]

〈보기〉에서는 「훈민가」가 유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하는 교훈적 작품이지만 그 교훈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대신 같은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행실을 함께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독자를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행동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특징은 독자에게 어떠한 행동 따위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형 어미, 문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청유형 문장은 'ᄆᆞᄋᆞᆯ 사ᄅᆞᆷᄃᆞᆯ하 올ᄒᆞᆫ 일 ᄒᆞ쟈ᄉᆞ라', '오ᄂᆞᆯ도 다 새거다 호ᄆᆡ 메고 가쟈ᄉᆞ라', '올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겨 보쟈ᄉᆞ라' 등이다.

09 [다른 작품과의 비교] **정답 ②**

〈보기〉에서는 '아바님 랄 나ᄒᆞ시고 어마님 랄 기ᄅᆞ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구분해 다루고 있지 않다.
〈보기〉에 제시된 오륜가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이 나를 기르시니
> 부모님 아니시면 내 몸이 없을 것입니다.
>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처럼 끝이 없습니다.
> 〈제2수〉
>
> 형님이 잡수신 젖을 내가 따라 먹습니다.
> 아아, 우리 아우야, 너는 어머님의 사랑이야.
> 형제가 불화하면 개나 돼지라 할 것입니다. 〈제5수〉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보기〉의 〈제5수〉는 아우와 형의 대화를 통해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
③ 이 글의 〈제4수〉에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효도할 것을, 〈보기〉의 〈제2수〉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효행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이 글의 〈제3수〉와 〈보기〉의 〈제5수〉는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면서 공통적으로 형제가 함께 양육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이 글의 〈제8수〉에서는 사람이 옳지 않으면 마소와 다름이 없음을, 〈보기〉의 〈제5수〉에서는 형제가 불화하면 즉, 우애를 지키지 않으면 개돼지와 다름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10 [시구의 의미 파악]

㉠에서는 자신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일도 함께 돕는, 상부상조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상부상조는 서로서로 도와 가며 힘을 합쳐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강 전원사시가

본문 057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⑤ 06. 계절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이 작품에서는 춘하추동 각 수의 종장에서 '아해야'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형식적인 통일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제석의 초장에서도 '이바 아해들아 ~ 마라'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형식적인 통일감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전원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태도가 드러나 있을 뿐 애상적 분위기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사물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전원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을 뿐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02 [공간의 성격 이해] **정답 ②**

㉠에서 화자는 '도화'가 활짝 핀 모습을 보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봄의 아름다운 정경을 접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는 화자가 녹음이 깊어 가는 여름날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계면조 노래를 부르자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에서 여름의 한가로움과 여유를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은 화자가 본 장소일 뿐

거주를 소망하는지 나타난 바가 없다.

③ ㉠에서 화자는 봄날의 아름다운 정경을 접했으므로 현재 삶에 대한 충족감을 느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은 외로움으로 인한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 아니다. ㉡은 화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에서 화자는 한가로움과 여유를 느끼고 있다.

④ 화자는 현재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생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 속세와 구분되는 공간이다.

⑤ ㉠에서 화자는 봄날의 아름다운 정경을 접하고 있을 뿐, 봄에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에서도 여름에 해야 할 일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3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⑤**

[A]에서 화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를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질겨 마라', '깃거 마라' 등에서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경계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② '이바 아해들아'와 같이 대상을 부르는 형식을 취해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새해를 즐거워하다가 어느덧 백발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자가 깨우쳐야 할 내용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백발이 되였노라', '나는 굿버 하노라'에 늙어 감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04 [시적 기능의 이해] **정답 ②**

ⓐ는 이른 봄에 핀 매화가 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매화가 진 만큼 봄이 시작된 지 시간이 꽤 흘렀음을 나타낸다. ⓑ는 봄에 폈던 꽃들이 대부분 졌지만 여름이 오기 전엔 지지 않고 남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름이 와서 그마저 다 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역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따라서 ⓐ, ⓑ는 모두 정경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 화자는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다. ⓐ는 봄의, ⓑ는 여름의 정경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계절의 정취를 즐기는 화자의 태도와 연결된다. ⓐ, ⓑ 모두 시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지 않다.

③ ⓐ의 '매화', ⓑ의 '잔화'가 지는 것을 보고 화자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는 봄의 정취가, ⓑ는 여름의 정취가 깊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④ ⓐ, ⓑ는 모두 꽃이 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꽃이 지는 것을 통해 화자와 자연물의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가 ⓐ, ⓑ를 계기로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모습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다.

05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동 1〉에서 '앞 뫼'에서 '눈'이 떨어지는 것은 겨울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 2〉의 '구들'이 따뜻함을 제시한 것은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한 채비를 잘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 뫼'의 차가움과 '구들'의 따뜻함을 자연 현상의 순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춘 1〉의 '버들가지 누르렷다'는 누런 색채를 표현하므로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와 같은 감각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의 '여러 방법으로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를 근거로 하여 볼 때 적절한 감상이다.

② 〈춘 1〉의 '잔설이 다 녹겠다'는 봄이 되어 날이 따뜻해져 남아 있던 눈이 다 녹는다는 것이다. 이는 봄의 특징적인 전개 양상을 보여 준다. 〈하 1〉의 '녹음이 **짙**피 간다'는 것은 여름이 와서 녹음의 푸름이 더욱 짙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여름의 특징적인 전개 양상을 보여 준다. 〈보기〉의 '계절의 특징적인 전개 양상을 제시'를 근거로 하여 볼 때 적절한 감상이다.

③ 〈춘 2〉의 '도화', 〈추 1〉의 '서리', 〈동 1〉의 '눈' 등은 각각 봄, 가을, 겨울을 대표하는 자연물들이다. 〈보기〉의 '계절을 대표하는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적절한 감상이다.

④ 〈추 1〉에서 '비진 술 걸러라'는 가을의 정취에 취한 화자가 풍류를 즐기기 위해 아이에게 하는 말로, ④는 〈보기〉의 '계절의 정취에 취해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한 감상으로 적절하다.

06 [시상 전개 과정의 이해]

이 시는 춘하추동의 계절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각 수의 종장에서는 각각의 계절과 관련하여 화자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가령 〈춘 1〉에서는 봄이 와 울타리를 고치고 채소밭을 갈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하 1〉에서는 여름날에 한가롭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동 1〉의 종장에서는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 풍습과 관련하여 팥죽을 먹고 자겠다고 말하고 있다.

13강 만흥

본문 060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③ **05.** ① **06.** ④ **07.** ④
08.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며 자연 속에 은거하는 소부와 허유의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이 작품에는 자연에서 생활하며 화자가 누리는 즐거움이 드러나 있으나 감정 이입을 통해 그러한 즐거움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제3수〉에서 화자는 '먼 뫼'에 대해 '말**솜**도 우움도 아녀도', 즉 말하거나 웃지 않아도 자신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제2수〉의 '부ᄅᆞᆯ 줄이 이시랴', 〈제4수〉의 '만승이 이만ᄒᆞ랴'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설의적 표현을 사용해 자연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④ 〈제4수〉에서 화자는 '삼공', '만승'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제4수〉에서 '만승이 이만ᄒᆞ랴'라고 말한 것은 자연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이 만 개의 수레를 부리는 천자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는 과장된 표현으로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2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은 소박한 음식을 의미한다. 화자는 이렇듯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안빈낙도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현하고 있다. 즉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속세에서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것과 관계없다.

② ㉠은 소박한 음식으로, 세속의 명리를 추구하는 삶에서의 문제점과 거리가 멀다.

③ ㉠은 속세와 거리를 두며 자연에서 소박하게 생활하는 것을 표상한다. 속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④ ㉠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박하게 생활하고 있다.

03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④**

㉡는 화자가 오로지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인간 만ᄉᆞ'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자연에서 생활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화자가 속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에서도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자신을 '어리고 햐암'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겸손하게 지칭한 것이다. '뷔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내 분'으로 여기는 것은 안분지족의 태도를 보여 준다.

② 화자는 바위 끝이나 물가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자연에서 은거하며 자연을 즐기는 풍류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화자는 먼 산과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마음이 통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연과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화자는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임금의 은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일로도 갚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0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제3수〉에서 화자는 '뫼'를 바라보는 감흥이 그리운 임이 오는 반가움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자연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과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지 이를 통해 임과의 거리감을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제1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지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ᄂᆞᆷ들'의 생각이 대비되고 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화자와 'ᄂᆞᆷ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나고 있다.

② 〈제2수〉에서 '바횟 긋 믉ᄀᆞ'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사는 화자는 속세의 일을 '녀나믄 일'이라고 말하며 '녀나믄 일'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제4수〉에서는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⑤ 〈제6수〉에서 화자는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이라고 말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자연과의 친화는 임금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 [시상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 ①**

〈제1수〉의 '산수 간 바회 아래 뷔집'은 화자가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이다. 〈제6수〉의 '강산'은 특정 공간을 의미하지 않고 자연을 의미하고 있는 시어로 화자로 하여금 '님군 은혜'를 더욱 잘 알 수 있게 해 준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강산'이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제2수〉의 '보리밥 픗ᄂᆞ물'은 일상 속의 구체적 소재에 해당하며, 〈제3수〉의 '잔' 역시 일상 속의 구체적 소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수〉에서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2수〉에서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제5수〉에서 화자의 의문이 해소되었음이 드러나 있지도 않다.

④ 〈제3수〉에서의 '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연 속에 거처하는 현재에 대한 긍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4수〉에서는 고대 중국의 은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역사에 대한 부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3수〉에는 '뫼'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06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④**

이 글에서는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보기〉에서도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제3수〉에서는 화자가 자연과 이심전심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에서도 '청풍명월'만이 벗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제2수〉에서 '그 나믄 녀나믄 일', 즉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을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공명'과 '부귀'를 다 꺼린다고 말하고 있다.

③ 〈제2수〉, 〈제4수〉의 종장에 자연에서의 생활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보기〉에서도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를 통해 자연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보기〉의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꺼리는 주체는 공명이나 부귀가 아니라 화자인데 주체와 객체를 전도하여 공명과 부귀가 화자를 꺼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제5수〉에서 '하ᄂᆞᆯ히 아ᄅᆞ실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천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안다는 것으로 자연에서 한가롭게 생활하는 것이 천명에 따른 것임을 말한 것이다. '하ᄂᆞᆯ히 아ᄅᆞ실샤'를 화자 자신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자연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제1수〉에서 화자는 '그 모론 ᄂᆞᆷ들'의 '웃'음에도 불구하고 '뛰집'을 짓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실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준다.

② 〈제2수〉에서 화자는 '그 나믄 녀나믄 일'을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삶보다 자연에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③ 〈제3수〉에서 화자는 '그리던 님'보다 '먼 뫼'를 더 반가워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⑤ 〈제6수〉에서 '더옥 아노이다'라고 말한 것은 임금의 은혜를 잘 알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표출한 것은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08 [화자의 가치관 이해]

허유와 소부는 속세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부귀를 누리는 삶을 거부한 인물들이다. 화자는 이러한 소부와 허유가 영리하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며 자연 속에 은거하는 소부와 허유의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14강 어부사시사

본문 064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② **05.** ④ **06.** 딘원

01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④**

이 글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향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4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춘 1〉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대구를 사용하여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③ 〈동 8〉의 '외로온 솔'에서는 '솔'에 인격을 부여하여 솔의 속성으로 여겨지는 고고함을 표현하고 있다.

⑤ '지국총 지국총 어ᄉᆞ와'를 각 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품의 유기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있다.

02 [화자에 대한 이해] **정답 ⑤**

〈추 1〉에서 화자는 흥취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츄강(가을 강)'을 꼽고 있으며, 〈추 2〉에서는 가을이 되어 고기들이 살져 있다고 말하며 가을의 풍요로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화자의 무상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춘 1〉의 종장에는 화자가 온갖 꽃이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춘 6〉의 중장을 통해 화자가 언덕 위의 버들과 물가의 꽃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하 1〉에서 '구즌비'가 멈춘 후에 화자가 맑아진 물에서 낚시를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하 6〉에서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3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A]의 종장에서는 자연에서 생활하며 '삼정승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만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음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B]의 종장에서도 '애내셩듕에 만고심'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을 물음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 [A], [B]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A]에는 '고ᄇᆡ고ᄇᆡ 새롭고야'와 같이 감탄형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을 [B]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③ [A], [B]에서는 명령형 표현으로 '돋 디여라'라는 여음구를 확인할 수 있다. '돋 디여라'는 '돛 내려라'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 뿐 자연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A]의 초장에서는 '도라가쟈'와 같이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B]의 중장에서는 '블러 보쟈'와 같이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A]의 청유형 표현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 자연을 그만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B]의 청유형 표현도 자연에서의 흥취를 즐기는 노래를 부르자는 의미일 뿐 [A], [B] 모두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의 종장에는 의문형의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자연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도 의문형의 설의적 표현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자연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0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하 6〉의 초장에서 화자는 여름날이 긴데, 긴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를 정도로 흥에 취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흥에 취해 '수됴가'를 부르고자 하는 태도와 연결되는 것이다. '긴 날이 져므ᄂᆞᆫ'을 현실의 혼탁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춘 1〉의 초장과 중장의 풍경은 각각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으로,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③ 〈하 6〉의 '만고심'은 화자가 '수됴가'를 부르면서 어부 생활의 풍류를 즐기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근심으로, 이는 자신이 즐기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결여된 현실을 떠올리고 느끼는 화자의 심리로 볼 수 있다.

④ 〈추 2〉에서 화자는 '고기마다 **솔져 읻**'는 가을의 어촌 풍경에 감탄하며 '만경딩파'에서 실컷 즐기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추 2〉의 종장에서 '인간'은 '슈국'과 대조적인 공간으로, 멀수록 더욱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의미한다. 화자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멀리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5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은 고고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상이다. ㉣을 자연에 귀의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벗어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 ㉡은 화자를 둘러싼 자연 경관이 누군가가 그려 낸 것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③ ㉢은 인간 세상과 대립되는 자연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자연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⑤ ㉤은 파도의 물결 소리가 속세의 시끄러움을 차단하므로 그것을 꺼리지 말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06 [시어의 의미 파악]

'딘훤'은 속세의 더러움과 소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과 대조되는 인간 세상의 부정적 속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5강 율리유곡

본문 069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⑤ **05.** ②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제1곡〉, 〈제2곡〉의 종장, 〈제8곡〉의 초장, 종장, 〈제10곡〉의 종장, 〈제17곡〉의 종장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관직을 빼앗긴 화자가 속세를 잊고 자연에 묻혀 생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뿐 가정적 진술을 통해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이 글에서는 연쇄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제11곡〉에서 어린 시절에 '대막대'를 놀이 기구로 삼았던 것과 나이가 들어 지팡이로 삼는 것을 대비하고 있으나 이는 세월이 많이 흘러 화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음을 나타낸 것일 뿐 화자의 지향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⑤ 〈제6곡〉에서 '백구'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다.

0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제10곡〉에서는 '율리'로 돌아온 상황에 대해 '이대도록 **ᄉᆡ훤ᄒᆞ랴**'라고 말해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제1곡〉에서는 '밤ᄆᆞᆯ'이라는 지명에 주목하여 '도연명'처럼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② 〈제8곡〉에서는 '삼공'과 '강산'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통해 부귀공명보다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자연에서 낚시를 하며 흥취를 즐기므로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가 부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한 것이다.

④ 〈제15곡〉에서는 세버들 가지를 꺾고, 낚은 고기를 꿰어 드는 등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제17곡〉에서는 '최 행수', '조 동갑' 등의 청자를 호명하며 쑥달임과 꽃달임을 같이 하자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03 [시구의 의미 및 기능 파악] **정답 ③**

㉢은 화자가 잡은 고기를 꿰는 데 사용한 것이다. 이를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았던 인물이다. 화자는 도연명처럼 '밤ᄆᆞᆯ'에서 살고자 하고 있다.

② ㉡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의 삼정승을 의미한다.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④ ㉣은 화자가 한가롭게 생활하며 흥취를 즐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⑤ ㉤은 번잡한 속세의 일과 관련된 것으로, 화자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제15곡〉에서 화자는 '주가'를 찾기 위해 '단교'를 건넜다. '단교'를 건너 만난 공간은 '왼 골'이다. 즉 '주가'는 '왼 골'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가'와 '왼 골'을 대비되는 공간으로 보고, 두 공간 모두에 화자가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수졸전원'은 '밤ᄆᆞ을'에서의 삶의 태도로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화자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화자는 '율리'에서 '공명'과 '부귀'를 잊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율리'와 대립되는 '공명', '부귀', '번우한 일'이 있는 공간이 이면에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다.
③ '헛글고 싯근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은 속세이다. 이 공간과 화자가 돌아온 '율리'는 성격이 대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율리'에서 '이대도록 **싀훤ᄒᆞ**랴'라고 말한 것이다.
④ 화자는 '대막대'에 대해 '유신'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대막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대막대'가 포함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백구'는 갈대숲을 배회하며 물고기를 엿보고 있다. 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물고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백구'의 태도에 대해 화자는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은 '군ᄆᆞ음'을 품고 있지 않아 '백구'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백구'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므로, 이를 즐거움을 주어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백구'는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이지만 화자가 부러워하고 있는 대상은 아니다.
④ '백구'는 먼 곳의 소식을 전해 주는 대상이 아니다.
⑤ '백구'는 비판적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높여 주는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Ⅱ 가사

16강

면앙정가

본문 074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④ **05.** ④ **06.** ① **07.** ⑤
08. 청려장, 희황, 이태백 **09.** (1) '이 몸이 이렁 굼도 역군은이**샷**다'라고 하며 자연 속의 풍류를 임금의 은혜로 보고 있다(자연 속의 풍류를 유교적 충의 사상과 연관 짓고 있다.). (2) 블**뉘**며 ᄐᆞ이며 혀이며 이아며

01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⑤**

'취흥'은 술을 먹고 즐기는 흥을 가리키는 말로, 화자가 자연을 마음 놓고 즐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취흥'은 특별한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수음'은 녹음을 의미하며 계절적 배경이 여름임을 나타낸다.
② '즌 서리'는 '된서리(늦가을에 아주 되게 내리는 서리)'로,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나타낸다.
③ '황운'은 잘 익은 곡식의 누런 물결을 구름에 비유한 것으로,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나타낸다.
④ '빙설'은 '얼음과 눈'을 가리키는 말로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나타낸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반어적 진술은 겉으로 드러난 진술과 속뜻이 반대로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 글에서는 반어적 진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1행의 '흰구름 브흰 연하 프로니**ᄂᆞᆫ** 산람이라'에서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또 5행의 '프르락 블그락'에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며, 9행의 '녹양'은 녹색, 9, 14행의 '황앵, 황운'은 노란색, 17행의 '빙설', 18행의 '옥해 은산'은 흰색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② 21~22행의 '니것도 보려 **ᄒᆞ**고 져것도 드르려코 / **ᄇᆞ**람도 혀려 **ᄒᆞ**고 **ᄃᆞᆯ**도 마즈려코'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통한 운율의 조성이 나타난다.
③ 25행의 '나조**히**라 슬흘소냐', 34행의 '시**ᄆᆞᆷ**이라 브터시라', 42행의 '호탕 정회야 이예셔 더**ᄒᆞᆯ**소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9행의 '녹양의 우**ᄂᆞᆫ** 황앵'에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03 [시어와 시구의 의미 이해] **정답 ②**

'남여'는 산의 여기저기를 보고 듣고 싶은 화자가 타고 다니는 뚜껑 없는 가마로, 자연을 얼른 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세우'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나타낸 것이므로 화자가 세우를 피하기 위해 남여를 재촉

해서 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일히'는 '연하'와 '산람'이 '천암만학'을 들락거리는 변화무쌍한 모습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③ '수음'은 '나모'와 '새'가 어우러져 드리우는 녹음, 즉 그늘을 가리키는 말로, 여름날 시원한 기운으로 '조으름'을 느낄 수 있는 배경이 된다.

④ '겨를 업다'는 한가할 틈이 없다는 것으로, 자연의 '니것', '져것'을 보고 듣고 싶은 화자의 마음과 관련된다.

⑤ '신선'은 자연에서 '을프락 ᄑᆞ람ᄒᆞ락'하며 즐겁고 만족스럽게 노닌 화자가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을 표현한 말이다.

04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④**

마지막 행의 '이 몸이 이렁 굼도 역군은이샷다'에서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ㄱ). 또한 20행의 '인간을 ᄲᅥ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에서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ㄴ). 31행의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에서 자연 속의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ㄷ).

[오답 풀이]

ㄹ.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 주는 내용은 이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05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④**

㉠은 꾀꼬리가 흥에 겨워 아양을 떤다는 것으로, 여름을 맞은 화자의 즐거운 감정이 이입된 표현이다. ④에서 '귀또리'가 '슬픈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도 화자의 슬픈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감정 이입의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네(너의)'라는 표현을 통해 한숨을 사람처럼 여기고 말을 거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바람, 구름이 고개를 쉬어 넘는다는 데서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휘초리 난 것같이'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홰홰', '버동버동', '캉캉' 등에서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으며 '미운 님'과 '고운 님'의 대비, 대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06 [소재의 심층적 이해] **정답 ①**

㉡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그 흥취를 더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풍류를 즐기는 수단이 된다. ㉢은 화자가 현재의 갈등과 고뇌를 잊기 위해 마시려는 것으로 갈등 해소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번로ᄒᆞᆫ ᄆᆞᄋᆞᆷ'은 자연을 즐기는 바쁜 마음을 나타낸 것이지 면앙정 주변의 경치가 변화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의 '경궁요대'와 '옥해 은산'은 눈 덮인 아름다운 자연을 비유한 표현으로, 면앙정에서 바라본 겨울의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낸다. ①은 〈보기〉의 "면앙정'에서 본 경치'를 바탕으로 감상이므로 적절하다.

② ⓑ '간 대마다 경이로다'는 자연의 모습이 아름다워 감탄스럽다는 표현으로, 면앙정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탄의 정서를 나타낸다. ②는 〈보기〉의 "면앙정'에서 본 경치'를 중심으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표현'을 바탕으로 한 감상이므로 적절하다.

③ ⓒ '인간'은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을 나타낸다. ③은 〈보기〉의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를 바탕으로 한 감상이므로 적절하다.

④ ⓓ '이 뫼히 안ᄌᆞ 보고 져 뫼히 거러 보니'는 자연에 묻혀 여기저기 앉아 보고 걸어 다닌다는 것으로, 자연의 여러 곳을 다니며 즐기려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④는 〈보기〉의 '자연을 즐기려는 화자의 모습'을 바탕으로 한 감상이므로 적절하다.

08 [감상의 적절성 파악]

화자는 자연을 즐기느라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을 30행에서 '청려장', 즉 지팡이가 다 무디어져 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자신이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당대를 태평성대로 인식하며 이를 38행에서 '희황', 즉 복희 황제의 시대로 표현하였고, 자연을 즐기는 호탕함을 부각하기 위해 41행에서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해도 자신이 느끼는 호탕함이 더 클 것이라며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09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1) 마지막의 '이 몸이 이렁 굼도 역군은이샷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연을 즐기는 풍류의 생활이 모두 임금의 은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유교적 충의 사상을 연관 지어 노래한 강호가도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2)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기는데 특히 32행의 '블닉며 ᄐᆞ이며 혀이며 이아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온갖 악기를 '부르게 하며 타게 하며 켜게 하며 흔들게 하여' 취흥을 더욱 돋우고 있다.

17강

관동별곡

본문 078쪽

01. ① 02. ① 03. ② 04. ④ 05. ④ 06. ② 07. ②
08. ① 09. ③ 10. (1) 화자가 스스로를 신선에 비유하고 자신의 신선적 풍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 취션(취선), 우개지륜

01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산영누'는 화자가 금강산에서 동해로 여정을 옮기면서 거치는 공간일 뿐 특별히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청간뎡'은 사선이 지나간 여정의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우개지륜'은 신선이 타는 수레로, 자신이 신선의 풍모를 지녔음을 과시하려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소재이다.

④ '대양'은 경포 너머의 넓은 바다로, 화자의 감탄을 자아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⑤ '비옥가봉'은 자신이 선정을 펼쳐 풍속이 좋아졌다는 의미로 화자의 자부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02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①

이 글은 산중에서 동해로 들어가 거치는 여정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어 있다. 통천(총석정), 고성(삼일포), 낙산(의상대), 경포, 강릉 등 동해 지역의 명승지를 유람한 후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에 대한 감흥을 여정에 따라 읊고 있다.

03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 ②

이 글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거나 화자의 정서 등을 나타내고 있으나, 동일한 시어를 반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21행 '샹운이 집픠ᄂᆞᆫ 동 뉵뇽이 바퇴ᄂᆞᆫ 동' 등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찾아볼 수 있다.

③ 11~12행 '다ᄃᆞᆫ문가', '샹톳던고' 등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 총석정에 남아 있는 기둥의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④ 25행 '시션은 어ᄃᆡ 가고 ᄒᆡ타만 나맛ᄂᆞ니'에서 '시션'은 이백을 가리키는데, 그가 남긴 글에 천지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며 감탄하는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⑤ 26행 '텬디간 장ᄒᆞᆫ 긔별 ᄌᆞ셔히도 ᄒᆞᆯ셔이고'는 이백의 시구에 담겨 있는 세간의 이치, 36행 '홍장 고ᄉᆞᄅᆞᆯ 헌ᄉᆞ타 ᄒᆞ리로다'는 경포호의 고요한 아름다움에 대한 감흥을 강조한다. 이처럼 이 글에서는 'ᄒᆞᆯ셔이고', 'ᄒᆞ리로다' 등 감탄형의 말투를 활용해 대상에 대한 감흥을 강조하고 있다.

04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 ④

㉠은 산을 떠나 산영루로 이동하는 여정에서 시냇물과 새들이 이별을 원망하는 듯이 운다는 것으로, 산중을 떠나는 화자의 아쉬움을 시냇물과 새들에게 투영하여 나타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산영루에 오른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산영루에 오르는 일이 힘들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화자가 동해로 간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날이 흐린 것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화자가 남여를 타고 산영루에 오른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느리게 가서 답답하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정기를 떨치는 것은 산중을 떠나는 화자의 일행을 배웅하기 위해서이며, 이와 관련하여 불만스러워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05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이 글에서 ㉡은 해를 가리는 존재로, 〈보기〉의 '구름'은 해를 덮는 존재로 제시되어 있다. 이 글과 〈보기〉의 해는 임금을 상징하므로 ㉡과 〈보기〉의 '구름'은 모두 임금의 총명한 지혜를 가리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6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②

이 글에서 화자는 총석정으로 가서 백옥루를 받치고 있던 네 개의 기둥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기둥에 올라가서 바다를 굽어보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3행 '녕농 벽계와 수셩 뎨됴ᄂᆞᆫ 니별을 원ᄒᆞᄂᆞᆫ ᄃᆞᆺ'에서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③ 13~14행 '삼일포ᄅᆞᆯ ᄎᆞ자가니 / 단셔ᄂᆞᆫ 완연ᄒᆞ되 ᄉᆞ션은 어ᄃᆡ 가니'에서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④ 19~20행 '의샹ᄃᆡ예 올라 안자 / 일출을 보리라 밤듕만 니러ᄒᆞ니'에서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⑤ 37~38행 '강능 대도호 풍쇽이 됴흘시고 / 절효졍문이 골골이 버러시니'에서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②

이 글의 화자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여정이나 경치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자연의 경치에서 느끼는 감흥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정신이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는 바다를 나는 갈매기를 보며 자신이 갈매기의 벗이라며 자연 친화의 태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는 화자가 산중을 떠날 때의 배웅 장면과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③ ㉯는 고성을 두고 삼일포로 여정을 옮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서술이다.

④ ㉱는 기울어 가는 저녁 현산의 철쭉을 연달아 밟으며 가는 여정을 묘사하고 있다.

⑤ ㉲는 배를 띄워 경포호의 정자로 올라간 여정을 전달하고 있다.

08 [화자의 의도 파악] 정답 ①

〈보기〉는 박신과 기생 홍장의 사랑 이야기인 홍장 고사의 내용이다. 화자가 홍장 고사를 언급한 이유는 경포호의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에 비해 인간들의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야단스러운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즉 ㉢과 같이 말함으로

써 야단스러운 인간들의 사랑 이야기와 달리 경포호가 고요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09 [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③

이 글에서 ⓐ는 해가 하늘로 떠올라 주위가 매우 밝아서 가느다란 털까지도 셀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 ⓑ는 물결이 맑고 잔잔해서 물속 모래의 수까지도 셀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0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이 글의 화자는 목민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유교적 정신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취**션(취선)'으로 비유하거나(6행) 자신이 타는 수레를 '우개지륜', 즉 신선이 타는 수레로 비유하여(28행) 자신을 은근히 신선적 풍모를 가진 존재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도교 사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Q '도교 사상'은 뭔가요?

A 중국의 무위자연설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 사상을 가리키는데요, 대개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여 불로장생술과 신선 사상을 신봉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시가에서는 화자가 신선과 관련된 풍모를 보이는 부분에서 도교 사상적 면모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18강 사미인곡

본문 082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② **05.** ④ **06.** ⑤ **07.** ⑤
08. ㉮ 산, 구름 ㉯ **청**광 ㉰ 팔황 **09.** (1) 매화는 눈 속에서 꽃을 피워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기 때문에 화자가 이를 통해 자신의 충성심을 임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다. (2) 님이 너**롤**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01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 ③

6행의 '늙거야 므ᄉᆞ 일로 외오 두고 글이**ᄂᆞᆫ**고'는 늙어서 무슨 일로 헤어지게 되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뜻이지, 늙어서야 헤어진 일을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2행 '**ᄒᆞᆫ싕** 연분이며 하**ᄂᆞᆯ** 모**ᄅᆞᆯ** 일이런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4행 '이 **ᄆᆞ**음 이 **ᄉᆞ**랑 견졸 **ᄃᆡ** 노여 업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5행 '평**싕**애 원**ᄒᆞ**요**ᄃᆡ** **ᄒᆞᆫᄃᆡ** 녜쟈 **ᄒᆞ**얏더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4행 '쳔리만리 길흘 뉘라셔 **ᄎᆞ**자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소재의 특성 파악] 정답 ①

'비슨 머리'는 여인의 곱게 빗은 머리를, '연지분'은 여인의 화장품을 각각 가리키는 소재라는 점에서 이 글의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염냥', '**젹**셜'은 모두 계절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이다.
③ '창', '부용'은 화자가 있는 공간의 특성을 나타낸다.
④ '황혼'은 시간적 배경을, '새닙'은 계절의 변화에도 화자의 근심과 사랑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금자'와 '**빅**옥함'은 값진 사물로, 임에 대해 쏟는 화자의 정성을 나타낸다.

03 [공간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은 화자가 현재 임과 떨어져 지내며 임을 그리워하는 공간이다. 화자가 ㉡에서 임과 다시 재회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은 현재 임이 있는 곳이며 과거에 화자가 임을 모셨던 공간이다.
② ㉠은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며 떠올리는 공간이다.
③ ㉡은 화자가 임과 헤어져 외롭게 지내는 공간이다.
⑤ ㉠은 임과 지내던 공간, ㉡은 임과 떨어져 지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대조적인 공간이다.

04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②

[A]에서 '**ᄃᆞᆯ**'은 화자의 베갯머리에 비추어 마치 임인 것처럼 느껴지는 소재로 제시되어 있다. 화자가 '**ᄃᆞᆯ**'이 비치자 임인 것처럼 반가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에도 임을 상징하는 소재가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에도 '**ᄃᆞᆯ**', '별'처럼 임을 상징하는 소재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B]에는 임을 상징하는 소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는 '동풍'에서 '봄'을, [B]는 '녹음'에서 '여름'을, [C]는 '서리'에서 '가을'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B]의 '오**ᄉᆡᆨ**션 플텨 내여'는 옷을 만들기 위한 화자의 행동을, [C]의 '수졍렴 거든 말이'는 하늘의 달과 별을 보기 위한 화자의 행동을 묘사한 것이다.
④ [A], [B], [C] 모두에서 임과 헤어져 홀로 지내는 외롭고 적막한 화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A]의 '**ᄇᆡ**화', [B]의 '님의 옷', [C]의 '**청**광'은 화자가 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임에게 보내려는 소재들이다.

05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슈품은**ᄀᆞ**니와 제도도 **ᄀᆞᄌᆞᆯ**시고'는 임에게 보내기 위해 자신이 만든 옷이 솜씨와 격식을 잘 갖추었음을 과시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임금에게 신하의 직분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며 〈보기〉에도 이러한 태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는 자신과 임이 함께 태어났다는 것으로, 임과 한 몸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다. 이는 〈보기〉의 '임금과 한 몸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를 근거로 할 때 적절한 감상이다.
② '**짓**ᄂᆞ니 한숨이오 디ᄂᆞ니 눈믈이라'는 임과의 이별에 따른 슬픔과 시름으로 인해 한숨 짓고 눈물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보기〉의 '이 글의 작가는 이별의 슬픔과 시름을 겪는 상황'을 근거로 할 때 적절한 감상이다.

③ '곶득 ᄂᆡᆼ담ᄒᆞᆫᄃᆡ 암향은 므ᄉᆞ 일고'는 추운 겨울에도 향기를 내뿜는 매화처럼 쓸쓸한 현실 속에서도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이 변함없음을 나타낸다. 이는 〈보기〉의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근거로 할 때 적절한 감상이다.

⑤ '쳔리만리 길흘 뉘라셔 ᄎᆞ자갈고'는 임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있으나 멀리 떨어진 임에게 이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낸다. 이는 〈보기〉의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를 근거로 할 때 적절한 감상이다.

06 [시구의 의미 이해] **정답 ⑤**

ⓔ는 화자가 임금에게 '**쳥**광'을 보내고자 하니 온 세상을 밝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 즉 밝은 지혜로 시끄러운 조정을 환하게 만들고 자신이 있는 곳을 포함해 온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부탁을 ⓔ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는 시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② ⓑ는 임과 헤어진 슬픔이 크고 시름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③ ⓒ는 임을 만난 것 같은 반가운 마음을 나타낸다.

④ ⓓ는 임을 만난 것 같은 감격스러움을 나타낸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염냥'이 '가ᄂᆞᆫ ᄃᆞᆺ 고텨' 온다는 것은 더위와 추위가 가는 듯 다시 오는 계절의 순환을 통해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인식은 유한한 인생에서 임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시간의 흐름이 속절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언제 임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과 단절된 채 흐르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유한한 화자의 인생에 비해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임과의 '연분'을 '하ᄂᆞᆯ'과 연결 짓는 것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하늘과 임을 연관시켜 임과 화자의 관계가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보기〉의 '천상에서는~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한 감상이다.

② '졈어 잇고'는 '천상의 시간', 'ᄂᆞᆰ거야'는 '지상의 시간'에 해당한다. '졈어 잇고'와 'ᄂᆞᆰ거야'의 대비는 화자가 임과 있던 천상에서 벗어나 임과 헤어져 지상으로 편입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③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임과 함께한 기억의 생생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상의 물리적 시간과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시간이 다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보기〉의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한 감상이다.

④ '인**ᄉᆡᆼ**은 유**ᄒᆞᆫ**'과 '무심**ᄒᆞᆫ** 셰월'은 화자에게 유한한 시간이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으로, 임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이 실현될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불안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보기〉의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들게 하는데'를 근거로 할 때 적절한 감상이다.

08 [감상의 적절성 파악]

화자는 임에게 보낼 옷, 즉 임금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라며 '산'과 '구름'에 가려 임에게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여기서 '산'과 '구름'은 임금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간신배를 상징한다. 아울러 화자는 달을 보며 맑은 달빛, 즉 '**쳥**광'을 임금이 계신 곳에 보내어 임금이 그것을 '팔황', 즉 온누리에 다 비추게 하여 이 세상을 밝게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09 [시어 및 구절의 이해]

조선 시대 사대부들에게 '**ᄆᆡ**화'는 자신의 변함없는 절개와 지조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소재였다. 이 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매화는 '곶득 ᄂᆡᆼ담ᄒᆞᆫᄃᆡ 암향'까지 피우는 꽃으로 온갖 시련에도 꿋꿋하게 절개를 지키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화자는 매화를 꺾어 임금께 보내고 '님이 너**ᄅᆞᆯ**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라며 우려하는데 이는 유배당한 처지에서 임금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 것이다.

19강 속미인곡

본문 086쪽

01. ① **02.** ④ **03.** ② **04.** ⑤ **05.** ① **06.** ② **07.** ④ **08.** ⑤ **09.** Ⓐ 구롬, 안개 Ⓑ **ᄇᆞ**람, 믈결 **10.**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더욱 애절하게 표현하고, 표면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01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①**

이 글은 두 명의 여성 화자, 즉 '각시'로 불리는 여성과, '각시'에게 '너'로 불리는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02 [화자의 역할 이해] **정답 ④**

이 글에서 '을'은 임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며 자책하고 있는데, 그런 '을'에게 '갑'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며 '을'의 하소연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을'이 자책하는 '갑'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강변'은 '각시'가 임을 만나지 못한 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는 공간으로 '각시'의 시름과 고통을 나타내는 장소이다. 이곳이 '각시'가 헤어진 임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믈 ᄀᆞᄐᆞᆫ 얼굴'은 임의 연약한 체질을 나타내는 말로 '각시'가 임을 걱정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③ '정성이 지극ᄒᆞ야' 꿈에서라도 임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정성'은 임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각시'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눈믈'은 비록 꿈속이지만 '각시'가 임을 만난 상황에서 너무나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다.

⑤ '구ᄌᆞᆫ비'는 '낙월'이나 되겠다는 '각시'에게 궂은비라도 되어 임에게 비통한 마음을 전하라는 다른 여인의 생각을 담고 있다.

04 [화자의 상황 파악] **정답 ⑤**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는 하늘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허물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이 모든 사연이 모두 운명에 의한 것이거나 자신의 책임 때문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과 임에 대한 원망과 허물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에는 '뎌 각시'가 임을 모시다가 헤어지게 된 사연이 나타난다.

② ㉠을 통해 '뎌 각시'는 과거에 '텬샹 ᄇᆡᆨ옥경'에서 임을 모시고 지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뎌 각시'는 '내 몸의 지은 죄'로 인해 임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④ ㉠을 보면 '뎌 각시'는 임이 '반기시ᄂᆞᆫ ᄂᆞᆺ비치' 달라지면서 임과 헤어지게 되었다.

05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①**

㉡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즉 화자는 자신이 너무나 보고 싶은 임을 꿈속에서나마 보게 되므로 ㉡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에서 화자와 다른 인물과의 갈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에 나타나는 화자의 과거 이력은 임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며 화자가 살아온 과거 이력 전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④ 화자의 소망은 임과의 재회이며,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은 화자의 소망을 일시적으로 이루어 줄 뿐이다. ㉡의 이후에 ㉡과 관련된 사건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은 화자에게 벌어질 앞으로의 사건을 예고한다고 볼 수 없다.

06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화자가 보고 싶어 하는 대상, 즉 그리움의 대상이다. ㉯는 화자가 임과 만나지 못하는 현실의 상황에서 죽어서도 임에 대해 변함없는 마음을 지닐 것을 다짐하며 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임과의 재회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비극적 초월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죽어서 낙월이 되겠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모ᄎᆞᆷ 촌 자리'는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은 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감에서 비롯되므로 ⓐ와 관련된다.

② 높은 산에 오르고 뱃길을 찾아 나서는 것은 임에게로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므로 ⓑ에 해당한다.

③ '지척을 모ᄅᆞ거든 쳔리ᄅᆞᆯ ᄇᆞ라보랴'는 임에게로 가고자 하는 시도가 좌절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에 해당한다.

⑤ 'ᄎᆞᆯ하리 ᄉᆡ여디여'라는 구절은 갖은 노력에도 결국 임과 만나지 못하는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를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보기〉의 '개'는 얄밉게도 미운 사람이 오면 꼬리를 쳐서 반갑게 맞이하고 고운 사람(임)이 오면 짖어서 오지 못하게 한다. 이 글에서 '계셩'은 꿈에서 겨우 본 임에게 할 말을 미처 못했는데 화자의 꿈을 깨워 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보기〉의 '개'와 같이 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즉조반'은 임에 대한 화자의 걱정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② 'ᄌᆞᆷ'은 화자가 임을 걱정하면서 언급하는 소재이다.

③ '뫼'는 임에 관한 소식을 알기 위해 찾아가는 공간이다.

④ '반벽쳥등'은 임이 없는 화자의 외로운 신세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09 [감상의 적절성 파악]

이 글에서는 화자가 임과 떨어져 지내면서 임에게로 가까이 가거나 소식을 알고 싶은 마음에 '놉픈 뫼(높은 산)'로 '믈ᄀᆞ(물가)'로 찾아다닌다. 그러나 '놉픈 산'에 가서는 '구롬'과 '안개'에 가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믈ᄀᆞ'로 가서도 'ᄇᆞ람'과 '믈결'이 굽이쳐 배를 띄우지 못하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다.

10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이해]

이 글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작품이다. 표면상 임과 헤어진 여인이 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처럼 표현하여 임금에 대한 충정과 임금 곁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0강 누항사

본문 090쪽

01. ① 02. ③ 03. ③ 04. ② 05. ③ 06. ⑤ 07. ㉮ 백구 ㉯ 단사표음 ㉰ 충효, 화형제, 신붕우 08. ③ 09. ④

01 [작품의 특징 이해] **정답 ①**

이 시가는 임진왜란 직후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는 화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관념적인 성격의 조선 전기 가사와는 달리 양반 사대부이지만 화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나 소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해 실망하는 모습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가사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시가는 선경 후정의 방식이 활용되지 않았으며, 선경 후정의 방식은 조선 후기 가사만의 특징은 아니다.

③ 압축과 생략의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시가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조선 후기 가사만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④ 가사는 정형화된 4음보 율격에 의해 운율감이 형성되므로 이것은 조선 후기 가사만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⑤ 사대부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지식과 교양을 나타내는 것은 조선 전기 가사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 시가에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는 작가의 경험과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지식과 교양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02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 ③**

[A]에는 농사지을 준비를 다 해 놓고 소를 빌려 농사를 열심히 짓겠다는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B]에는 소 주인에게 소를 빌리지 못하고 돌아오는 화자의 실망감이 드러나 있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이 글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대상과 화자의 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인법이 활용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화자와 소 주인 간에 소를 빌리는 일을 둘러싼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현장감을 주고 있다.

② '누어시라', '나아오라', '삼겨시리', '뉘 이시리'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④ '허위허위', '아함', '설피설피' 등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화자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⑤ '녹죽도 하도 할샤'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나무로 가득한 모습에 대한 감탄을 나타내고 있다.

04 [공간의 의미 이해] **정답 ②**

'풍월강산'은 농사짓는 일조차 포기한 화자가 소박하게 살면서 앞으로 계속 머물고자 하는 공간이다. 즉 가난해도 편안히 여기고 근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화자가 현재의 소망을 다짐하고 실현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풍월강산'은 전통적인 정한, 애상과는 관련 없다.

③ '풍월강산'은 과거의 삶이나 추억과는 관련 없다.

④ '풍월강산'은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며 고뇌하는 일과는 관련 없다.

⑤ '풍월강산'은 낭만과 신비, 환상의 유발과는 관련 없다.

05 [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③**

'두세 이렁 밧논를 다 무겨 더뎌두고'는 소가 없어서 갈지 못하는 땅을 그대로 던져둔다는 의미로 농사짓는 일에 너무 애쓰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게을렀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아함'은 '에헴'의 옛말로, '자신의 인기척을 내려고 일부러 내는 큰기침 소리'를 의미한다. 화자가 소 주인에게 자신이 문간에 와 있다고 알리기 위해 기침 소리를 낸 것이다.

② '와실'은 화자가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을 지칭한 것인데, '매우 좁은 집'을 뜻한다. 이는 화자의 현재 처지가 매우 곤궁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④ '인간 어닉 일이 명 밧긔 삼겨시리'는 인간의 모든 일이 운명에 속한다며 자신의 가난한 삶이 다 운명에 의해 결정된 일이라고 여기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⑤ '삼긴 ᄃᆡ로 살렷노라'는 '생긴 것', 즉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 이상의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06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⑤**

ⓔ는 소 주인의 말로, 건넛집 사람이 자신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였는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그 사람에게 소를 빌려주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즉 ⓔ에서 갚겠다는 것은 소를 빌려준 일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음식과 술을 얻어먹은 일에 대한 은혜이다.

[오답 풀이]

① 소 주인의 ⓐ와 같은 약속은 엉성하게 한 말이었다는 점에서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소를 빌리러 와서 스스로를 '염치가 없다'고 한 것은 소를 빌리는 것에 대한 겸연쩍음과 미안함을 표현한 것이다.

③ ⓒ에서 소 주인은 화자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 주인이 결국 화자에게 소를 빌려주지 않는 이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소를 빌려주기 싫어 짐짓 소를 빌려주겠다고 했던 자신의 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이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화자가 연년 그래 왔다는 말은 소를 빌리는 일이 매년 계속되었다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나타낸다.

07 [감상의 적절성 파악]

㉮: 이 글에서 화자는 '백구'에게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며, 백구와 자신을 같은 마음을 가진 일체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즉 '백구'를 통해 자연과 일체를 이루는 자연 친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이 글에서 강호는 소박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단사표음'은 이 글에서 소박한 삶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 자연에 묻혀서도 유교적 도리를 다하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충효', '화형제', '신붕우' 등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님ᄌᆞ'는 어떤 물건의 소유자로 풍월강산에는 소유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제시된 존재이다. '유비군자'는 교양 있는 선비로서 자연의 풍류를 함께 나눌 만한 품성을 지닌 존재로 세속의 물욕을 취하려는 존재와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목 불근 수기치'와 '간 이근 삼해주'는 소 주인이 건넛집 사람에게 받았다는 음식과 술로, 소를 빌리려는 화자의 부탁을 거절하는 명분이 된다.

② '녹죽'과 '노화'는 각각 대나무와 갈대꽃으로, 자연 속의 사물들이며, 자연에 은둔하고자 하는 화자가 추구하며 지향하는 공간에 있는 것들이다.

④ '죽'은 가난한 삶 속에서 먹는 음식이며, '빈천'은 가난을 의미하므로 모두 가난한 화자의 현재 상황과 관련 있는 시어이다.

⑤ '부귀'는 많은 재산과 권력을, '온포'는 따뜻한 옷과 배불리 먹는 음식을 나타내므로 모두 세속적 가치를 나타내며 화자가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09 [시상 전개 양상 파악] **정답 ④**

㉣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빌리고자 했던 소를 빌리지 못한 실망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의 상황을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결심이 나타나는 부분은 25행 '춘경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뎌두쟈'부터이다.

[오답 풀이]

① ㉠에는 사대부인 화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소를 빌리려는 다급한 마음이 나타나 있다.

② 빈이무원, 즉 가난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을 지향하는 화자는 ㉡에서 자신의 궁핍한 상황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며 소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③ 소 주인은 ㉢을 통해 화자에게 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것은 곧 화자가 소를 빌릴 수 없는 상황이 확정된 것이다.

⑤ ㉤에서 화자가 낚싯대를 빌리는 것은 ㉡의 심리를 충족하고 ㉡의 상황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21강 고공가

본문 095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③ 05. ③ 06. ④ 07. 너희ᄂᆡ ᄃᆞ리고 새 ᄉᆞ리 사쟈 ᄒᆞ니 08. ③ 09. Ⓐ ᄒᆞᆫ 솔(한 솔) Ⓑ 집 Ⓒ ᄌᆡ조(재주)

01 [표현상의 특징 이해] **정답 ①**

ㄱ: 25행의 '**ᄒᆞᆫ** 집이 가**ᄋᆞᆷ** 열면 옷 밥을 분별**ᄒᆞ랴**'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유하게 되면 모두에게 혜택이 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예상하는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ㄴ: 31~32행의 '칠석의 호**ᄆᆡ** 씻고 기음을 다 **ᄆᆡᆫ** 후의 / **ᄉᆞᆺ** **쇼**기 뉘 잘**ᄒᆞ**며 셤으란 뉘 엿그랴'와 같이 김매기, 새끼 꼬기, 섬 엮기 등의 일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공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ㄷ. 화자가 고공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거리감을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만, 이를 역설적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ㄹ. 15행에서 '**흘긧할긧**'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고공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지만, 이는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긍정적 모습이 아닌 부정적 모습에 해당한다.

Q 설의적 표현이 뭔가요?

A 설의적 표현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문문이지만 궁금하거나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예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그 나머지 다른 일들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 윤선도, 「만흥」 〈제2수〉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표현법 중에서도 강조법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02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7행에서 '셔리 보십 장기 쇼로 전답을 긔경**ᄒᆞ**니'와 같이 다양한 농기구를 사용하여 논밭을 갈아 일구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집'의 농기구가 다른 집보다 더 많다고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5행의 '인심을 만히 쓰니'를 통해 '우리 집'이 과거에 어진 마음을 바탕으로 다스려진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9~10행의 '자손에 전계**ᄒᆞ**야 대대로 나려오니 / 논밧도 죠커니와'를 통해 좋은 논과 텃밭이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5행의 '사ᄅᆞᆷ이 절로 모다'를 통해 '우리 집'에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드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④ 10행의 '고공도 근검터라'를 통해 '우리 집'은 부지런하고 검소한 모습을 지닌 고공들이 있던 내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시적 상황의 파악] **정답 ⑤**

㉮는 고공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시절이 사나운 상황에서 강도까지 들어서 가산이 탕진된 상황이므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인 '설상가상'에 해당한다. ㉯는 앞으로 고공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으로 서로 도와 가며 일을 해 나가는 모습이므로, '서로서로 도움.'을 의미하는 '상부상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호사다마'는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을 의미한다. ㉮는 좋지 않은 상황이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부화뇌동'은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의미하는데, ㉯는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이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고군분투'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힘에 벅찬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는 서로 도우며 일을 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구절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 파악] **정답 ③**

㉢은 새로운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과정의 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김을 매자고 권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놀 됴흔 호ᄆᆡ'는 김을 잘 매기 위한 좋은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 이를 시적 청자인 고공이 갖추어야 할 모습으로 구체화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여드레'라는 시간 표현을 사용하여 과거의 우리 집이 여덟 날 동안 일구어야 할 정도로 논과 텃밭이 컸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젊다는 것을 이유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의미이다. 이는 고공들이 젊음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생각없이 지낼 것이라고 여기는 화자가 그러한 고공들의 태도를 문제 삼고 책망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은 스스로 집을 짓는 노동을 하며 고공들의 재주를 헤아리는 자신과 같이 고공들 스스로도 제 할 일을 깊이 생각하며 지낼 것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에는 고공들의 모습에 애달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시적 청자가 보이는 부정적 모습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의 심정이 '**ᄋᆡ ᄃᆞ라ᄒᆞ며셔**'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05 [시구의 의미상 관계 파악] **정답 ③**

화자는 '한어버이 사ᄅᆞᆷᄉᆞ리'를 부유하고 풍족했던 시절로 나타내면서 이후 가산을 탕진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살림살이를 대비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1행에서 '김가 이가 고공들아 **ᄉᆡ ᄆᆞᄆᆞᆷ** 먹어슬라'와 같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ᄂᆡ** 셰간'의 현재 상황을 미처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탄식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화자는 '**ᄂᆡ** 셰간'에 대한 언급을 통해 고공들에게 각성할 것을 촉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 고공들에게 미안함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한어버이 사ᄅᆞᆷᄉᆞ리'는 현재의 모습과 달리 부유하고 풍족한 시절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ᄂᆡ** 셰간'의 현재 상황을 변화시켜 추구해야 할 모습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계기가 된다고 보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ᄂᆡ** 셰간'은 '한어버이 사ᄅᆞᆷᄉᆞ리'와 달리 가산이 줄어든 부정적 현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어버이 사ᄅᆞᆷᄉᆞ리'와 '**ᄂᆡ** 셰간'을 유사한 상황으로 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산전도 것츠럿고 무논도 기워 간다'라는 화자의 말은 산밭 잡초와 논의 김이 무성하니 김을 매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하나된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말한, 황폐해진 조선의 현실을 극복하고 재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재건을 통해 풍요로워진 조선의 구체적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밥사발 큰나 쟈그나 동옷시 죠코 즈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시기, 질투하며 다투는 고공들의 모습을 구체화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관리들이 서로 이익을 두고 다투는 이기적 행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집 **ᄒᆞ**나 불타 붓고 먹을 **ᄲᅳᆺ**시 젼혀 업다'는 '화강도'가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의 '화강도'는 외부의 침입자라는 점에서 〈보기〉에 따르면 당대 조선에 위기를 가져온 외적 요인, 즉 전란 상황과 관련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고, 해당 구절은 그러한 외적 요인으로 인해 궁핍하고 황폐해진 조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ᄉᆡ ᄆᆞᄆᆞᆷ** 먹어슬라'는 '큰나큰 셰ᄉᆞ', 즉 집안의 세간을 다시금 일으키고자 하는 화자가 '김가 이가'로 호명된 고공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즉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노력이 필요함을 관리들에게 역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너희 **ᄌᆡ**조 셰아려 자라자라 맛스라'는 고공들에게 각자의 재주를 헤아려서 그에 맞게 일을 맡으라고 명령하는 부분이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는 고공이 가리키는 존재, 즉 당대 관리들이 각자가 가진 능력에 따라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과 통찰이 반영된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7 [구절의 내용 이해]

[A]에서 화자는 '너희**ᄂᆡ** ᄃᆞ리고 새 ᄉᆞ리 사쟈 **ᄒᆞ**니'와 같이 현재의 좋지 않은 상황에 절망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엇그**ᄌᆡ** 왓던 도적

아니 멀리 갓다'와 같이 도적이 여전히 근처에 있는데, '화살을 젼혀 언고 옷 밥만 닷토는다', '은혜란 싱각 아녀 졔 일만 ᄒᆞ려 ᄒᆞ니'에서 고공들은 도적에 제대로 대비할 줄 모르며, 먹여 준 은혜도 모른 채 자기 일만 하며 잇속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부정적 현실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08 [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 ③**

〈보기〉의 화자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종들을 휘어잡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 글의 화자는 고공들을 비판하면서도, 함께 농사지을 것을 당부하거나 타이르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는 이 글의 화자에 비해 고공들을 엄하게 대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화자는 고공들이 '**혬**'이 없으므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이러한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없다.

② 〈보기〉의 화자는 '새끼 꼬기 멈추시고'라고 말하고 있고, 이 글의 첫 행부터 3행까지와 마지막 행을 통해 이 글의 화자는 새끼를 꼬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보기〉의 화자가 새끼 꼬기를 멈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집중해서 듣도록 한 것일 뿐, 새끼 꼬는 행동 자체를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④ 〈보기〉의 화자는 고공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른 종을 믿으소서'와 같이 고공들 중에서도 어른 고공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고공 사이의 위계를 새롭게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계가 잡혀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의 화자는 '집안 절로 일어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종들을 휘어잡고 상벌을 밝히고 어른 종을 믿어야 비로소 상황이 나아질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집안의 상황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Q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뭔가요?

A '낙관적(樂觀的)'은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학 작품에서 '낙관적 전망'은 미래의 모습을 긍정적인 상태일 것으로 기대하거나 작품 속의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앞은 한강수요 뒤는 삼각산이여
많은 덕을 쌓으신 강산에서 만세를 누리소서
– 정도전, 「신도가」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쓰이는 용어는 '비관적 전망'입니다. '비관적 전망'은 작품 속의 현재보다 미래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현재의 좋지 못한 상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09 [세부 내용 파악]

화자는 23행에서 고공들이 다투는 모습과 관련하여 서로 반목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ᄒᆞᆫ** 소**ᄐᆡ** 밥'을 먹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고공들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34~36행에서 살림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일로 '성조'를 들고, '집으란 내 지으게 움으란 녜 무더라 / 너희 **지**조을 내 짐작**ᄒᆞ**엿노라'와 같이 먼저 나서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솔선수범의 태도와, 고공들이 재주를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며 고공들을 타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강 용추유영가

본문 100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④ **05.** ⑤ **06.** ③ **07.** ③
08. 산새의 모습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화자가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임화'에 투영하는 감정 이입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다. **09.** [B]와 〈보기〉 모두 '백 년'이라는 시구를 통해 일평생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추구할 것이라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1 [화자의 태도 이해] **정답 ⑤**

화자는 47~48행에서 '깨끗한 풍채'를 지향하면서 '옛**ᄉᆞ**람', 즉 옛 성현들을 만나 보고 싶어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화자는 49행에서 '애통함도 쓸**ᄃᆡ**업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슬픔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용추동의 빼어나고 다양한 경치를 7행에서 '온가지 짙은 풍경'과 같이 압축적으로 제시하면서 '거두어 어듸 두리'와 같이 자연 풍경을 담아 두고 싶어 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② 이 글의 44행에는 '오륙 아이들과 노래하며 도라오'며 자연 속에서 다른 이들과 즐겁게 노니는 삶을 마음껏 즐기는 화자의 면모가 나타난다.

③ 이 글에서는 39행의 '오**ᄂᆞᆯ**이 낫부거니 **ᄂᆡ**일이라 슬**ᄆᆞᆯ**런가'와 같이 자연 속에서의 삶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싫증이 날 일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자연에서의 삶에 화자가 심취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글의 화자는 33행의 '낚싯대 드리우'거나 43~44행의 '소쇄**ᄒᆞᆫ** 맑은 바람 슬커지 쐬온 후에 / 오륙 아이들과 노래하며 도라오'는 활동들을 통해 자연 속의 흥취를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37행의 '이별천지는 나밖에 뉘 아**ᄂᆞᆫ**고', 45행의 '**녯**사**ᄅᆞᆷ** 기상을 미**ᄎᆞᆯ**가 못 미**ᄎᆞᆯ**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①**

이 글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며 자연을 즐기고 있을 뿐, '인생의 덧없음'을 의미하는 '인생무상(人生無常)'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낙목한천(落木寒天)'은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의 춥고 쓸쓸한 풍경'을 의미하며, 24행의 '나뭇잎이 다 진 후의 계산이 삭막거**ᄂᆞᆯ**'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유유자적(悠悠自適)'은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

하게 삶.'을 의미하며, 18행의 '송정 긴 좁의 고열도 모로리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안분지족(安分知足)'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을 의미하며, 23행의 '일반 청미ᄂᆞᆫ 세상 모ᄅᆞᆯ 이리로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자연과 자아가 하나가 됨.'을 의미하며, 14행의 '골 안의 청향이 지팡이에 묻었구나'와 50행의 '산조산화ᄅᆞᆯ 내 버즐 삼아 두고'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03 [공간적 배경의 시적 기능 파악] **정답 ④**

'이원의 반곡'은 화자가 용추동의 자연에 머물면서 '(용추동처럼) 이러턴가 엇더ᄒᆞ며'와 같이 환기하는 공간이다. 이는 '무이산의 청계'가 '이예셔 (용추동보다) 더 됴흔가'라고 한 것처럼, 자신이 현재 지내는 공간과 비교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옛 명승지에 비견될 만큼 자신이 거처하는 용추동이 빼어난 곳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수간모옥'의 '서창을 비겨 안자' 병풍처럼 둘러싸인 자연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이때의 '수간모옥'은 속세의 공간이 아니라 '구름 사이에 지어' 둔 것과 같은 자연 속 공간이다.

② 맑디맑은 '장공'을 울며 지나가는 '기러기'는 '장공'과 대비되는 서글픈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맑은 하늘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제시된 것이다.

③ '계산'은 '바람이 소슬ᄒᆞ야', '삭막거ᄂᆞᆯ'에서 보듯 바람이 불어 고요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공간으로, 겨울에 '백설'이 내리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화자가 삭막하다고 한 것은 눈이 내리기 전 나뭇잎이 다 진 후의 '계산'이므로, '계산'을 '백설'이 떨어지면서 더욱 삭막하게 느끼는 공간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봉', 즉 봉우리는 '푸른 안개'에 의지하여 화자가 올라가게 되는 곳이자 마음껏 즐기며 노니는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여유로움을 느끼고 있을 뿐, 봉의 드높은 모습으로 인해 경외감을 느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04 [구절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 파악] **정답 ④**

㉣에서는 '눈썹을 찡그리며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노피 드니'와 같이 행동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경요굴', 즉 눈 내린 산봉우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속세의 삶을 돌아보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아ᄎᆞᆷ비', '사양' 등과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그 경과를 알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화자는 아침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저녁에는 노을로 밝은 빛이 비치는 자연의 변화 양상을 묘사하고 있다.

② ㉡에서는 '청향'이라는 후각적 이미지를 '지팡이에 묻었구나'와 같이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하는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맑은 자연과 지팡이를 쥐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조화되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③ ㉢에서는 '일대 강 그림자'가 '푸른 유리'가 되어 있다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⑤ ㉤에서는 '추위ᄅᆞᆯ 어이 알ᄭᅩ'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우활ᄒᆞᆫ 정신', 즉 자연에 취해 추위도 못 느끼고 지냄을 강조하고 있다.

> **Q 공감각적 이미지와 복합적 이미지가 뭔가요?**
>
> **A** 감각적 이미지에는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미각적, 후각적 이미지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 중에서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을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감각을 옮긴다는 점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
> ㉠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청각의 후각화) – 한용운, 「님의 침묵」
>
> 한편, 복합적 이미지는 이러한 감각의 전이 없이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나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을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 결국 공감각적 이미지와 복합적 이미지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5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화자가 '단사표음'을 '내 분수'로 생각하니 '일월도 한가'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화자가 자연을 정신적 풍요로움을 주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화자가 삶의 단조로움을 느껴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23행의 '일반 청미ᄂᆞᆫ 세상 모ᄅᆞᆯ 이리로다'는 속세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이 아닌 자연 속에서 느끼는 소박한 즐거움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만족감은 현실 소외에 대한 보상 공간으로서 자연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28행의 '가없는 설경'은 자연이 만들어 내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화자는 주체할 수 없는 흥취를 '시'를 통해 표출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자연 속에서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고 풍류를 즐기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50~51행의 자연을 '버즐 삼아 두고' '삼긴 대로 노ᄂᆞᆫ 몸'은 정치·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자연 속에서 산새와 산꽃을 벗으로 삼아 즐기며 살고 있는 화자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자연이 화자에게 안식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52행의 '공명을 생각ᄒᆞ'지 않고 '빈천을 셜워'하지 않겠다는 것은 속세의 삶이 아닌 자연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신념을 보여 준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현실에서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며 살아가려는 화자의 태도에 해당한다.

06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③**

화자는 가을 경치에서 '양안 단풍 숲'이 붉은 비단처럼 강에 비치는 풍경을 접하게 된다. 이 속에서 화자는 '황화ᄅᆞᆯ 잔의 ᄯᅴ워 무지개를 마자 오니'와 같이 국화를 자신의 술잔에 띄우며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러한 모습은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봄 경치에서 13행의 '이 고즤 안자 보고 져 고즤 둘러보니'와 같이 분주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연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것이나 그에 따른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봄날의 자연을 여기저기 다니며 즐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② 화자가 여름 경치에서 맞이하게 되는, 17행의 '반공 빛난 구름 골짜기예 좁겨시니'는 구름의 그림자가 골짜기에 드리우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는 비현실적 경험이 아니라 화자가 맞이하는 실제적 경험으로서의 풍경이다.

④ 화자는 겨울 경치에서 소슬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기도 하고, 백설이 내린 풍경을 맞이하기도 한다. 특히 화자는 백설이 내린 것을 25행에서 '겨울이 조화'를 부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낸 자연의 섭리에 대한 감탄을 담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여기고 이를 수용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화자는 31행에서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치에 흥취도 ᄀᆞ즐셰고'와 같이 흥취를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30행에서 '사계절의 모습이 가ᄂᆞᆫ ᄃᆞᆺ 도라오니'라고 하며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이 흥취를 더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사계절의 풍경을 다시 맞이할 수 없는 모습이라 여기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Q 비현실적 경험, 현실적 경험이 뭔가요?

A 비현실적 경험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문학에서 대부분 꿈을 통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경우, 초월적 존재(옥황상제, 신선 등)와 만나거나 초월적 존재가 머무는 공간을 배경으로 시상이나 사건이 전개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현실적 경험은 일상적인 삶에서 실제로 존재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현실적 경험은 현실 경험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거나 고난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잠깐 사이에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옥 같은 곱던 모습이 반 넘어 늙었구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사뢰려고 하였더니
눈물이 계속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회를 못다 풀어 목마저 메니,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 정철, 「속미인곡」

위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보면 꿈을 꾸는 상황 자체는 현실적 경험에 해당하지만, 꿈속에서 떨어져 있던 임을 만나는 것은 비현실적 경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전 시가에서 현실적 경험이라는 개념은 임진왜란 이후 사실성에 입각한 가사가 나타난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 이전의 가사들이 관념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임진왜란 이후에는 현실적 경험이 반영된 「누항사」 등과 같은 작품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③**

〈보기〉를 통해 허유가 천하를 통치해 달라는 요임금의 제안을 거부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는 화자 역시 그러한 삶을 추구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소부는 허유가 요임금의 눈에 띄어 제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허유보다 더욱 속세를 멀리하는 태도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추동에서의 삶을 소부의 삶과 비교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속세를 멀리하겠다는 표현의 의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제시된 허유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에는 화자 역시 허유와 같이 용추동에서의 삶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 허유는 기산이라는 자연에 은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현재 용추동에 머물고 있으므로 기산에 머물렀던 허유는 용추동에 머무르고 있는 화자와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④ 〈보기〉에서 허유는 강물에 귀를 씻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에서의 화자의 행동과 같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요임금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 통치함을 의미하는데 허유는 이러한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기 위해 귀를 씻는 행동을 한다. 화자 역시 허유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고 있고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에는 정계 진출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화자의 생각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8 [표현상의 특징 파악]

[A]는 '지저귀는', '노래홀 소ᄅᆡ' 등과 같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산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즐거움을 '임화'가 웃음을 머금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감정 이입의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09 [작품의 비교 감상]

[B]와 〈보기〉는 '백 년'이라는 시구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평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B]와 〈보기〉에서 화자는 각각 '계산 경물'과 '강산풍월'로 제시된 자연에서 자신의 일평생을 보내겠다는 태도를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3강 규원가

본문 105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⑤ **05.** ④ **06.** ⑤ **07.** Ⓐ 자취눈 Ⓑ 궂은비 Ⓒ 실솔 Ⓓ 감정 이입 **08.** (1) 화자는 ㉮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고 있고, ㉯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느끼고 있다. (2) ㉮에서는 화자가 곱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이 오래가지 못하고 빨리 보기 싫게 변해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에서는 화자가 임을 기다리며 보내는 세월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01 [시적 상황의 파악] **정답 ⑤**

여인은 8행에서 '당시의 용심하기 살어름 디디는 듯'이라고 하며 남편과 결혼 후의 생활도 살얼음을 디디는 것처럼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 여인의 생활이 평안하고 즐거웠다가 남편이 떠난 후 반대의 상황으로 뒤바뀌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3행에서 '늘거야 설운 말씀 하자 하니 목이 멘다'를 통해 여인이 자신의 처지가 서럽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후의 내용에서 그 사연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9행에서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를 통해 여인이 집을 나간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모르는 채로 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화자는 9행에서 '삼오 이팔 겨오 지나 천연여질'의 모습으로 혼인을 하였으나 13~14행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설빈화안'이 '면목가증'이 되어 '어느 임이 날 괼소냐'라고 말하고 있다.

④ 5행의 '군자호구 원하더니'를 통해 여인이 어진 인물의 아내가 되어 살기를 바랐음을, 7행의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이셔'를 통해 실제로는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사람을 만나 그 바람을 이룰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①**

20행의 '인연을 그쳤은들'에서 임과 인연이 끊어진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생각이야 없을소냐'나 21행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려믄'과 같이 임에 대한 그리움을 여전히 품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임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 자책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화자는 1행에서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라며 옛날과 달리 변해 버린 자신의 현재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말에는 흐르는 세월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다.

③ 화자는 13행의 '설빈화안 어디 가고 면목가증 되거고나'에서 꽃 같은 아름다운 얼굴을 지니고 있었지만 현재는 보기 싫은 얼굴을 지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11행의 '조물이 다시하여'와 같이 조물주의 시기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④ 화자는 임의 부재로 서글픔과 외로움을 느끼다가 이를 달래기 위해 31~32행에서 '녹기금 빗겨 안아 / 벽련화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는 모습을 보인다.

⑤ 화자는 41행에서 설화 속의 비운의 연인인 '견우직녀'도 칠월 칠석에 때를 놓치지 않고 만나는 존재임을 밝히면서 이와 반대되게 자신은 44행에서 '오거니 가거니 소식조차 그쳤'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천상에 있는 견우직녀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비교하여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강조한 것이다.

03 [시적 상황의 파악] **정답 ③**

ⓒ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정처 없이 나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는 남편이 부재하는 시간이자 '백마 금편'과 같이 화려한 행장을 한 남편이 어디에 머무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된다. 따라서 호사스럽게 꾸민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부재한 시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는 즐거웠던 과거의 시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자는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일러도 속절없다'라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말해 봤자 소용없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이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는 남편이 찾아가는 '야유원'에 있는 기생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자는 ⓑ가 자신과 남편 사이의 장애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가 남편의 귀가를 도와줄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는 화자가 '시름없다'라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남편과 이별한 처지로 인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대상으로, '삼춘화류 호시절'과 어울리게 펼쳐진 아름다운 봄 경치를 가리키는 것이지 서로 대비되는 풍경이 아니다.

⑤ ⓔ는 남편의 부재로 인해 '적막'한 느낌을 자아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독수공방하는 화자의 처지와 조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옛 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과 달리, ⓔ는 남편이 부재하는 상황이라는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옛 소리'와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Q 조응되는 공간적 배경이 뭔가요?

A '조응'은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시에서 주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정서와 주변 환경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응되는 공간적 배경'이라 함은 시적 화자의 상황 혹은 정서와 제시된 공간적 배경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어울려 호응될 때를 말합니다.

예 보슬보슬 봄비는 못에 내리고
찬 바람이 장막 속 스며들 제
뜬시름 못내 이겨 병풍 기대니
송이송이 살구꽃 담 위에 지네. – 허난설헌, 「봄비」

이러한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정서를 파악한 뒤 묘사된 주변의 풍경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응한다'는 판단을 내릴 때는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04 [구절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 파악] **정답 ⑤**

'박명한 홍안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는 자신이 가장 '박명', 즉 복이 없으면서 팔자가 사나운 사람일 것이라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준다.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운이 가장 나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외적 요인에 따른 귀인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월하의 연분으로'는 '삼생의 원업'과 더불어 임과의 인연과 그 이후의 이별 상황을 운명으로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준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현재 상황의 배경을 '운'이라는 외적 요인에 따라 귀인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랴'에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외부의 다른 대상이나 존재를 원망할 수 없다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준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임과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자신의 외모라는 자질에서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 요인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때문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데, 시적 상황상 화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임이 오는 소식을 알고자 하기 때문임, 즉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보기〉에 따르면, 잠이 깬 것의 원인을 외부의 대상에서 찾는 것은 원인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귀인 오류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무슨 약수 가렸관대'는 임이 오지 않는 것이 '약수'라는 장애물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준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임이 자신에게 오지 않는 사태를 외부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납득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다.

05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는 남편을 잊을 수 없어 차라리 꿈속에서라도 만나고자 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만남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기다림을 강요당했던 현실 세계에서의 회한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바람을 진솔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이셔'에서 '장안유협 경박자'는 자신의 남편인 '임'을 가리킨다. 이는 현재의 이별 상황으로 인해 회한을 품게 한 원인에 해당하는 임을 풍류객이자 경박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회한의 원인이 되는 인물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혬**만 만타'는 집을 나간 남편을 찾지도 못한 채 기다리며 회한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기다림을 강요당했던 전형적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대 여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간장이 구곡 되야 굽이굽이 끊쳤세라'는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굽이굽이 속이 뒤틀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깊은 회한의 상태를 '간장'이 '구곡' 되었다는 대상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죽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회한의 심경으로 인해 주변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서럽게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회한 섞인 삶을 주변 세계에 투영하여 동일시하는 화자의 모습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06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에서 화자는 '아마도'라는 추측의 표현과 '이 임의 지위'로 인해 '살동말동'하다는 인과의 표현을 사용하여 임과 떨어져 있는 현재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임의 탓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원망의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삼오 이팔'은 '천연여질', 즉 타고난 고운 모습을 보였던 화자의 15~16세를 가리키며 변해 버린 지금의 모습과 다른 예전을 의미할 뿐 그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의미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에서 '어느 임이 날 괼소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을 만큼 스스로의 모습이 보잘것없게 되었다는 화자의 인식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 얼굴 내 보거니'와 같이 자신의 외양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내면의 아름다움을 몰라주어서 아쉽다는 정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에서 '화표 천년의 별학'은 화자가 연주하는 '녹기금' 소리를 묘사하기 위해 비유한 소재일 뿐 화자가 직접 만나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그 연주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슬픈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④ ㉣에서 화자는 '난간에 빗겨 서' 있는 모습으로 '임 가신 데'를 바라보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는 화자의 행동 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담긴 행동으로 볼 수 있을 뿐, 임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07 [시어 및 화자의 태도 파악]

화자는 겨울밤과 여름날의 풍경을 각각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눈 섞어 치니'와 '여름날 길고 길 제 궂은비는 무스 일고'와 같이 '자취눈'과 '궂은비'가 내리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쓸쓸한 마음과 어울려 그러한 마음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소재는 화자의 정서와 관련된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한편, 화자는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이 상에 울 제'와 같이 가을밤 귀뚜라미가 우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귀뚜라미의 모습은 화자의 서러운 감정을 이입하여 귀뚜라미 역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실솔'은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서글픔이 투영된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Q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이 뭔가요?

A 감정 이입은 어떤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반영해서 마치 그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가진 것과 같이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정 이입의 표현이 쓰이게 되면 화자와 대상이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지니고 있는 정서와 감

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또한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실제로 그러한 정서를 가질 수 없는 대상이 정서를 지닌 것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의인화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예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우니다니 / 산(山)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 정서, 「정과정」

한편 객관적 상관물은 시에서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모습에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은 화자의 정서와 아예 무관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대부분의 대상은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 역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환기시키고 드러내기 위한 표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와 동일시되어 대상의 모습이 드러나는 감정 이입을 포함하여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감정 이입의 개념보다 더 넓은 범주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와 상반되는 풍경이나 소재가 등장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경우에 감정 이입은 될 수 없지만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 훨훨 나는 꾀꼬리 /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롭구나 이내 몸은 /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 유리왕, 「황조가」

따라서 감정 이입에 해당하는지, 객관적 상관물로만 볼 수 있을지는 대상이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면서 의인화된 방식으로 이를 드러내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감정 이입으로, 그렇지 않다면 감정 이입이 아닌 객관적 상관물로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08 [시적 상황 및 화자의 정서 파악]

화자는 ㉮에서 '봄바람 가을 물'이 지나는 것, 즉 세월이 베올 사이에서 북이 지나가듯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에서는 하루의 열두 때와 한 달의 서른 날이 '지리하다'라고 할 만큼 세월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와 ㉯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상반된 느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느낌은 ㉮의 경우 자신의 모습과 관련되는데, 예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이 현재와 같이 보기 싫은 모습으로 변해 버린 것에 대한 한탄과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시간이 매우 빨리 흘렀음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의 경우는 임의 부재라는 현재의 처지와 관련되는데, 하염없이 임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길다고 여기는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24강 일동장유가

본문 110쪽

01. ① **02.** ④ **03.** ② **04.** ② **05.** ④ **06.** ① **07.** ④ **08.** ④
09. ㉮ 여정 ㉯ 견문 ㉰ 일출 ㉱ 대구

01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①

이 글은 부산에서 배가 출발해 일본까지 이르는 여정과 일본에서의 경험을 주로 다루고 있는 기행 가사이다. 제시된 부분에서도 배가 출발하는 부산, 대마도에 이르기까지의 뱃길, 일본 등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시간의 흐름대로 전개되나,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26행의 '푸른빛'에서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나, 이와 대비되는 색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④ 시간 순서대로 시상이 전개되나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대조적 소재가 나타나지 않으며 교훈적 태도와도 관련이 없다.

Q 시상 전개 방식은 뭔가요?

A 시상은 시에 나타난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를 말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은 바로 이 시상을 구현해 나가는 방식을 말하지요. 시상 전개 방식에는 시간이나 공간의 흐름에 따르는 방식, 시선의 이동에 따르는 방식, 수미 상관 등이 있습니다. 시상이 급격히 바뀌는 것을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고, 시상이 압축되어 있는 것은 시상의 집약 또는 응축이라고 합니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이 글에서 '고래'나 '용' 같은 동물 소재는 파도가 심하게 치는 모습을 비유하는 데 활용되어 역동성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들이 바다나 배와 같은 작품 속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10행의 '태산 같은 성난 물결'에서 보듯이 거대한 자연물을 비유적 표현에 활용해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② 11행의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에서 화자가 타고 있는 배를 연약한 속성을 지닌 나뭇잎에 비유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배가 풍랑으로 물결에 따라 오르내리는 상황을 12행에서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라고 하여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표현함으로써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⑤ 38행의 '필담으로 써서 뵈되', 44행의 '승산이 다시 하되' 등을 통해 전승산의 행동을, 42행의 '내 웃고 써서 뵈되' 등을 통해 화자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3 [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②

배가 출발한 뒤 배 방에 누워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고 심란

해 있는 상황에서 대풍이 일어난 것이므로, '대풍이 일어나서' 마음이 심란해진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2행의 '산해를 진동하니'는 환송을 위해 연주하는 악기 소리가 산과 바다를 진동할 정도로 매우 컸음을 과장하여 나타낸 것이다.

③ 21행의 '어와 장할시고'는 날이 밝아 끝없이 넓게 펼쳐진 바다의 장관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다.

④ 31행의 '저마다 수질하야'는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뱃멀미로 인해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⑤ 55행의 '의에 크가 가하지 않아'는 전승산이 글에 대한 값으로 비단과 은자를 주려 한 것에 대해 거절하며 돌려보낸 이유에 해당한다. 즉 화자는 전승산이 글 값으로 돈이나 물품을 주려 한 것이 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04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②**

함께 떠난 여섯 척의 배들은 풍랑을 만나 큰 고초를 겪은 뒤 뿔뿔이 흩어져 화자가 있는 배에서 다른 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큰 풍랑에 배나 배에 탄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는 점에서 배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풍랑을 견뎌 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0~11행의 '태산 같은 성난 물결~나뭇잎 불리이듯'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성난 물결을 만나 큰 배가 흔들려 위태로움을 느꼈다.

③ 33행의 '다행할사 종사상은 태연히 앉았구나'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뱃멀미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종사상은 풍랑이 심한 배에서 태연히 앉아 있다고 하였다.

④ 38행의 '필담으로 써서 뵈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문인 전승산은 화자와 종이에 글을 써서 대화를 나누는 필담을 하였다.

⑤ 47~51행의 '어디로 나가더니~은자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전승산은 밖으로 나갔다가 글 값으로 돈 등을 담은 궤를 가져왔다.

05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B]의 '귀한 별호 퇴석'은 일본의 문인 전승산이 화자인 '나'를 지칭하는 말이고,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전승산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선비의 예법을 동원한 것은 맞지만 서로 다른 사람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는 전승산이 화자가 글 쓰는 것을 보는 것을 시작으로 [B]~[D]의 필담이 시작됨을 나타낸다.

②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전승산의 평가를 보여 주는 것이고 [C]의 '늙고 병든 둔한 글'은 화자가 자신의 글을 겸손하게 평가하여 지칭한 것이다.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뵈되'와 [C]의 '내 웃고 써서 뵈되'를 통해, 필담으로 문답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D]에는 '나'의 글에 대한 전승산의 찬사가, [E]에는 상대의 글 값이 의에 어긋난다며 거절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06 [시구의 내용 이해] **정답 ①**

㉠은 배가 해안가를 출발해 오륙도를 뒤로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 배가 출발한 이후 오륙도를 지나서 일본 쪽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② 삼현과 군악 소리를 통해 성대한 환대를 받았으나 ㉠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③ 배가 오륙도에 당도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배가 출발하기까지 오랜 기간 준비를 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배가 출발하고 나서 본 오륙도가 매우 아름답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라고 한 것은 풍랑을 만난 후에 배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힘겨워하여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일에 대한 한탄으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육선이 함께 떠났'다는 것은 여섯 척의 배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이다.

② '삼현과 군악' 등 공식적 행사에 사용하는 악기의 등장은 사행을 배웅하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③ 바다가 가없이 '위아래로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는 것은 여정을 진행하며 바다를 관찰한 풍경을 나타낸다.

⑤ '대마도 가깝다'는 사공의 말은 사신의 구성원으로 대마도, 즉 외국을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08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 ④**

ⓐ는 날이 밝아 바다를 둘러보고 느낀 장관에 대해 감탄하는 것이므로 자연 경관에 대한 감탄을 나타낸다. ⓑ는 전승산이 화자의 글을 보고 느낀 감탄을 표현한 것이므로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③ ⓐ는 외부 풍경에 대한 만족감을, ⓑ는 화자가 쓴 글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낸다.

09 [감상의 적절성 파악]

이 글에서는 부산, 오륙도, 대마도 등 지명의 언급과 함께 일본으로 향하는 여정이 드러나며, 일본으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난 경험이나 풍랑 뒤의 해돋이, 즉 일출의 광경 등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13~14행의 '열두 발 쌍돛대는~배불렀네'에서는 대구법과 직유법을 사용해 풍랑이 치는 상황을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25강 만언사

본문 115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⑤ **05.** ② **06.** ③ **07.** ⑤
08.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는고 / 별포에 배 떠나니 노 젓는 소리로다 **09.** Ⓐ 절망감 Ⓑ 구렁이(구렁배암) Ⓒ 푸른 지네(청진의) Ⓓ 불만

01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 **정답 ⑤**

화자는 유배지에서의 궁핍한 생활에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해 돌이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44행의 '어이없어 웃음 난다'와 같이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자조의 태도로 이어질 뿐 현실 변화나 그에 따른 희망을 가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유배지인 추자도에 도착한 후 막막함과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8행의 '눈물이 가리우니 걸음마다 엎더진다'와 같이 구체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3행의 '추자섬 생길 제는 천작 지옥이로다'에서 보듯이 추자도를 하늘이 만든 곳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자도의 모습에 대해 2행에서 '벽해상전 갈린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되'었다든지, 4행에서 '해수로 성을 싸고 운산으로 문을 지'었다든지와 같이 섬이 만들어진 과정을 상상하여 서술하고 있다.

③ 화자는 20행의 '냉지에 누습하고 즘생도 하도 할사'에서 보듯 눅눅하고 차가운 땅에서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31행의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려웨라'에서 보듯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길게 느끼며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화자는 자신이 지낼 집을 찾아나서지만 섬 주민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꺼리며 홀대하는 모습을 9~10행에서 '이 집에 가 의지하자 가난하다 핑계하고 / 저 집에 가 주인하자 연고 있다 칭탈하네'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02 [시구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 파악] **정답 ①**

㉠은 유배를 온 화자에게 적객 주인이 건넨 말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는 유배객을 맡은 자신(적객 주인)의 처지에 대한 한탄, 자기 연민만이 드러나 있을 뿐 유배객에 대한 연민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에서는 '서산에 일락', 즉 서산에 해가 지고 있는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초라하게 지내는 화자의 우울한 처지와 조응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에서는 '옥식 진찬', 즉 훌륭한 밥과 반찬과 같이 화려하고 풍요로운 음식과 '맥반 염장', 즉 보리밥에 소금과 간장이라는 초라한 음식을 대조하여 '맥반 염장'을 먹으며 지내는 현재의 궁핍한 삶을 부각하고 있다.

④ ㉣에서는 '~ 끝에 ~고 ~ 끝에 ~이라'와 같은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로 인해 한스러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⑤ ㉤에서는 감탄사 '어와'를 활용한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보리가을 되었는가 전산 후산에 황금빛이로다'와 같이 보리를 수확하는 가을을 맞이하여 황금빛을 띠는 주변 풍경에 대한 감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Q 하강적 이미지와 상승적 이미지가 뭔가요?

A 하강적 이미지는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을 주는 상징적 이미지의 하나로, 부정적인 시적 상황이나 정서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승적 이미지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자아내는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03 [표현상의 특징 이해] **정답 ⑤**

㉤에는 과거 자신의 삶과 대조되는 농부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는데, 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을 뿐 반어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가잔 말고'라는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여 화자가 막막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에서는 '뉘 좋달고'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추자도의 섬 주민들이 유배객을 맡기 싫어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는 섬 주민이 유배객인 화자를 맡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세간 그릇을 던지는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④ ㉣에서 '덥고'는 촉각적, '검기'는 시각적, '내암새'는 후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므로, 복합적 이미지를 활용해 유배지에서의 궁핍한 생활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4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⑤**

〈보기〉 시에서 '춘하추동 사시절'은 '한서 온랭'과 결합하여 춥고 더움, 따뜻함과 차가움은 계절의 순환에 따라 바뀌어 찾아오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에 해당한다. 이는 〈보기〉 시의 화자가 이 글의 화자에게 현재의 춥고 차가운 처지로부터 따뜻한 처지가 될 수 있으니 참고 견디라는 위로와 조언을 해 주려 한 것이지 순환하는 자연에 적응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화자는 추자섬을 '풍도섬'이라고 여기며 지옥 같은 곳이라는 절망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기〉 시의 화자는 '하늘'에도 '변화'가 있음을 말하는데, 이는 이 글의 화자가 처한 불우한 처지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로의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이 글에서 화자는 '내 일', 즉 유배의 처지에 있는 스스로를 딱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해 〈보기〉 시의 화자는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라는 '진퇴'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내 일'의 불우한 상황도 밀물과 썰물처럼 바뀌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화자는 '현순백결'의 고난을 겪고 있다. 이는 〈보기〉 시에서 화자가 화려하게 치장하다가 섬 고생을 지낸 것으로 밝힌 '경대부'나 '귀공자'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 시의 화자는 고생을 하던 경대부와 귀공자가 '천은'을 입고 고생의 처지에서 벗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위로의 차원에서 이 글의 화자 역시 '미친 사람', 즉 유배지에서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5 [시구의 비교 파악] **정답 ②**

[A]에는 '관채다려 못한 말을 만만할손 내가 듣네'와 같이 적객 주인이 관청의 아전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유배 온 화자를 만만하게 여겨 불만의 소리를 한다고 여기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B]에서는 '일분은 밥쌀 하고~격양가를 부르나니'를 통해 유배 온 화자가 청자인 '저 농부'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의 적객 주인은 잘사는 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신이 유배객까지 맡게 된 것이 관인들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불만을 품고 있다. 이를 볼 때 [A]는 유배 온 화자가 적객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적객 주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B]에 제시된 농부들은 화자가 부당한 대우를 했던 인물이 아니라 화자가 닮고자 하는 인물이다.

③ [B]에 묘사된 농부들은 '함포고복하여 격양가를 부르'며 흥겨워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배 온 화자의 사연을 모른 채 즐거움을 누린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A]의 적객 주인은 '내 살이 담박한 줄 보시다야 아니 알가'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유배객을 맡기 전부터 자신이 가난한 상태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화자를 맡음으로써 가난해졌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A]의 '관력으로 핍박하고 세부득이 맡았으니'라는 구절에서 유배 온 화자를 맡은 적객 주인이 관가의 압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B]에서는 농부들이 여유롭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이 화자를 외면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⑤ [B]에서는 '연년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를 바탕으로 농부들의 여유로운 삶의 풍경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B]는 매년 반복되는 풍년 속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A]에서 적객 주인의 말에 따르면 섬에는 '이 집 저 집 잘사는 집'이 있기도 하고 자신처럼 가난한 집이 있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잘사는 집과 적객 주인의 형편 차이를 짐작케 해 주지만, 그렇게 된 사연은 [A]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06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③**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는 스스로를 죽어 있는 귀신의 모습으로 여길 정도로 자신의 현실이 비참한 상태임을 드러내는 부분에 해당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그만큼 유배 생활의 고통스러움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귀신'은 화자의 현재 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삶과 죽음을 분간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이나니 바다히요 들리나니 물소리라'는 유배지의 풍경을 나타낸 것인데, 유배지를 이와 같이 서술한 것은 주변이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보기〉의 '유배지에서의 막막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남방 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는 여름이 되었어도 겨울 의복을 입고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의생활을 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보기〉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사실적 체험'을 서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은 농부들과 같은 삶을 추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귀 공명과 같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보기〉의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후회'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탐화봉접', 즉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에 비유하고 법을 어겨 죄를 지은 일을 '그물에 걸리'게 된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는 〈보기〉의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후회'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07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⑤**

'지게'는 한가로운 삶을 누리는 농부가 벗어 놓은 도구이다. 그런데 화자는 이러한 농부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게'는 화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될 수 없는 농부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남북촌 두세 집'은 '솔불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역동적 분위기가 아니라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덜 쓰른 보리밥'은 화자의 노고를 통해 얻은 수확물이 아니라 화자에게 주어지는 초라한 먹거리이다.

③ '굴뚝 막은 덕석'은 화자의 갑갑한 심경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빨지 못해 때가 끼어 검게 변한 누비바지를 비유한 것이다.

④ '손잡고 반기는 집'은 화자의 기대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유배 오기 전 과거의 여유롭고 기세 좋은 시절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08 [화자의 정서 및 표현상 특징 파악]

25~26행의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는고 / 별포에 배 떠나니 노 젓는 소리로다'에는 유배 생활을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근심이 심화되어 가는 화자의 심경이 직접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 별포에서 떠나가는 배의 '노 젓는 소리'를 제시하였다.

09 [시상의 전개 양상 파악]

화자가 추자도를 지옥으로 칭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유배 생활이 험난하고 고달플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의 유배 생활에 대한 화자의 절망적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화자의 실제 유배 생활은 21~22행의 '발 남은 구렁배암 뼘 넘운 청진의라 / 좌우로 둘렀으니 무섭고도 증그럽다'에 잘 드러나는데, 특히 구렁이나 푸른 지네에 대한 화자의 반응은 쾌적하지 못한 거처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심경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6강 농가월령가

본문 119쪽

01. ③ 02. ① 03. ③ 04. ① 05. ④ 06. ⑤ 07. ⑤
08. ① 09. 연날리기, 널뛰기 / 더위팔기, 달맞이

01 [창작의 동기 파악] 정답 ③

이 글은 정월을 맞이해 농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우를 살피는 일, 이엉을 엮는 일, 실과나무에 돌 끼우는 일 등 정월에 해야 할 농사일들을 열거하여 농부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줌으로써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02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①

이 글은 정월이라는 계절적 상황을 바탕으로 농부들이 해야 할 농사일과 세시 풍속 등을 제시하고 있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이 글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거나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감정 이입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18행의 '낮이면 이엉 엮고 밤이면 새끼 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9행의 '와삭버석 울긋불긋'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21행의 '시험조로 하여 보자', 23행의 '화전 일취 하여 보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7행의 '성의를 어길쏘냐', 34행의 '오신채를 부러하랴', 36행의 '육미와 바꿀쏘냐'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①

22행에서 정월에는 며느리에게 소국주를 거르게 하여 꽃이 피는 봄날에 소국주를 먹으며 취해 보자고 하였다. 정월에 소국주를 만들어 취하도록 먹겠다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24행의 '상원날 달을 보아 수한을 안다 하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14~15행의 '농기를 다스리고 농우를 살펴 먹여 / 재거름 재워 놓고 한편으로 실어 내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30행의 '사내아이 연 띄우고 계집아이 널뛰기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38행의 '먼저 불러 더위팔기 달맞이 횃불 켜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05 [화자의 생각 파악] 정답 ④

33~34행의 '엄파와 미나리를 무엄에 곁들이면 / 보기에 신신하여 오신채를 부러하랴'는 엄파와 미나리를 무엄에 곁들여 먹으면 오신채도 부럽지 않다는 것이지 이를 모두 함께 먹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10행의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는 면하리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② 12행의 '일년지계 재춘하니 범사를 미리 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24~25행의 '상원날 달을 보아 수한을 안다 하니 / 노농의 징험이라 대강은 짐작느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36행의 '묵은 산채 삶아 내니 육미와 바꿀쏘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06 [음성 상징어의 효과] 정답 ⑤

㉠은 세배를 다니는 사람들의 옷에서 나는 소리와 옷의 색을 음성 상징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생동감을 부여하여 세배를 다니는 사람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새 의복 떨쳐 입고 친척 인리 서로 찾'는 것은 새해 아침 친척 집을 찾아 새배를 다니는 세시 풍속을 나타낸 것으로, 농민에게 필요한 농사일을 장려하는 모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정월은 맹춘이라'는 1월부터 시작해서 각 달의 절기와 농사일을 소개하는 월령체 형식을 나타낸다.
② '우리 성상 애민 중농하오시니'는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히 여긴다는 것으로,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성의를 어길쏘냐'는 임금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설의적 표현으로,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지 사이 돌 끼우기'를 시험조로 해 보자고 하며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농사일을 제안하는 데서 의식의 충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8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①

ⓐ는 한 해 농사의 풍흉을 미리 짐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전인 봄에는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② ⓑ는 농사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부지런히 농사일에 임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③ ⓒ는 봄에 해야 할 농사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봄에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 해 농사가 실패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④ ⓓ는 힘든 일이 어려운 늙은이도 새끼 꼬기 등 자신의 할 일을 찾아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⑤ ⓔ는 조상을 모신 사당에 음식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는 일을 가리킨다.

09 [작품의 내용 이해]

이 글에서는 농사일과 함께 세시 풍속이 제시되는데, 정월 세시 풍속은 정조날과 보름날로 구분되어 있다. 정조날의 대표적 세시 풍속은 세배, 연날리기, 널뛰기, 윷놀이 등이고 보

름날의 대표적 세시 풍속은 약밥·산채·약술·생밤 먹기, 더위팔기, 달맞이, 횃불 놀이 등이다.

Q '세시 풍속'은 뭔가요?

A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하여 행해 온 고유의 풍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농경 사회의 풍속이었으며 해마다 농사력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행하는 행사였습니다. 음력의 월별 24절기와 명절로 구분되어 있으며, 집집마다 촌락에서 또는 민족적으로 관행(慣行)에 따라 전승되는 의식, 의례 행사와 놀이였습니다. 대표적 세시 풍속으로는 설날 세배, 정월 대보름 달맞이, 단오, 유두, 백중 행사 등이 있습니다.

27강 연행가

본문 123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⑤ **05.** ② **06.** ⑤ **07.** ⑤ **08.** ② **09.** ㉮ 화ᄉᆞ 치란 시졍들은 만물이 번화ᄒᆞ다 ㉯ 이ᄉᆞᆯ은 황금이오 손톱은 다섯 치라 **10.** (1) 청나라의 시정, 주택, 사람들의 의복과 언어, 머리 모양, 습관 등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한 것 (2) 청나라 사람들이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지저귄다고 표현한 부분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이 글은 청나라 여행에 관한 여정과 견문, 감상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한자어보다는 주로 우리말을 사용하여 소박한 표현이 주를 이룬다.

[오답 풀이]

① 8행 '이번 길은 오뉴월 염천이라'에서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5행 '이ᄉᆞᆯ은 황금이오 손톱은 다섯 치라'에서 대구가 나타나는데 이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 것이다.

④ 1행 '금셕산 지나가니 온졍평이 여긔로다'에서 여정에 의한 전개를 확인할 수 있다.

⑤ 18행 '녹창 쥬호 여염들은 오ᄉᆡᆨ이 영농ᄒᆞ고'와 28행 '아쳥 바지 반물 속것'에서 청나라 사람들의 집과 복식을 묘사하면서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 [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이 글은 청나라 사신의 일행으로 사행을 수행하고 있는 화자의 여정과 견문, 감상을 담고 있다. 화자는 청나라를 여행하면서 본 여러 풍물에 대한 다양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3 [화자의 상황과 정서 파악] **정답 ⑤**

23행에서 당사실로 댕기를 해서 모자인 마래기를 눌러쓴 모습을 소개만 하고 있을 뿐 마래기를 쓴 모양에 대해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1~2행에서 '온졍평'에서 '일셰가 황혼ᄒᆞ니 ᄒᆞᆫ돈ᄒᆞ며 슉소ᄒᆞᄌᆞ'라고 하였다.

② 21행에서 '의복기 괴려ᄒᆞ여 쳐음 보기 놀납도다'라고 하였다.

③ 5~6행에서 '역관이며 비장 방장 불상ᄒᆞ여 못 보겟다 / ᄉᆞ면 외풍 드러부니'라고 하였다. 역관, 비장 등은 사신단의 일원으로 사행을 수행하던 관리들이다.

④ 38행에서 '무어시라 인사ᄒᆞ나 ᄒᆞᆫ마ᄃᆡ도 모르겟다'라고 하였다.

04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이 글에는 청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나 문물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청나라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8행 '녹창 쥬호 여염들은 오ᄉᆡᆨ이 영농ᄒᆞ고'에서 청나라 사람들의 주거를 짐작할 수 있다.

② 26~33행 '거문빗 져구리ᄂᆞᆫ~무릎 우에 슬갑이라'에서 청나라 사람들의 옷 치장을 짐작할 수 있다.

③ 22행 '머리ᄂᆞᆫ 압흘 ᄶᅡᆨ가 뒤만 ᄯᅳᆫᄒᆞ 느리쳐셔'에서 청나라 사람들의 머리 모양을 짐작할 수 있다.

④ 34행 '공방ᄃᆡ 옥물ᄲᅮ리 담ᄇᆡ 너ᄂᆞᆫ 쥬머니의'에서 청나라 사람들의 담배 도구를 짐작할 수 있다.

05 [공간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은 사신이 자는 곳에 친 군막을 가리키고 ㉡은 역관, 비장, 방장 등이 묵는 곳에 친, 명색이 군막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가리킨다. 화자는 ㉡에 대해 '불상ᄒᆞ여 못 보겟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보다는 ㉡에서 열악함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6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화자는 청나라 여자들이 발이 커서 남자 발 같은데 비단으로 발을 동여매는 모습을 보고 명나라에서 남긴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명나라의 관습과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청나라 여자들의 발을 매는 모습을 볼 만한 일이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명나라의 관습을 존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20행 '집집이 호인들은 길의 나와 구경ᄒᆞ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화자가 이것을 명나라의 관습으로 여겨 존중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27행 '옷고름은 아니 달고 단초 다라 입어쓰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화자가 이것을 명나라의 관습으로 여겨 존중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17행 'ᄎᆞ례로 드러오니 범문 신칙 엄졀ᄒᆞ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화자가 이것을 명나라의 관습으로 여겨 존중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37행 'ᄲᅡᆨᄃᆡ인 온다 ᄒᆞ고 져의기리 지져귀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화자가 이것을 명나라의 관습으로 여겨 존중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부시**까**지 **쪄**셔 들고 뒤짐지기 버릇치라'는 담배 넣는 주머니에 부시, 즉 부싯돌까지 들고 뒷짐 지는 청나라 사람들의 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화자의 태도나 생각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금셕산', '온졍평', '봉황셩' 등은 화자가 사행을 수행하는 지역의 이름들이다.

② '삼 사신', '역관이며 비장 방장'은 공식 사행을 수행하는 관리들에 해당한다.

③ '머리**눈** 압흘 **싹**가 뒤만 **ᄊᆞᄒᆞ** 느리쳐셔'는 청나라 사람들의 머리 모양을 묘사한 것으로 청나라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기록한 것이다.

④ '타오구'나 '**쳥**두루막기' 등은 청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그들의 문물을 나타낸다.

08 [추가 내용의 효과 파악] 정답 ②

〈보기〉는 옥화관이라는 곳에서 홀로 깨어 달, 별을 보며 고향 생각을 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주로 여정과 견문이 중심인 이 글에 〈보기〉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적 감회 특히 객수(客愁: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09 [화자의 인식 파악]

'화**ᄉᆞ** **치**란 시졍들은 만물이 번화**ᄒᆞ**다'는 화려하고 찬란하며 만물이 번성하고 활기찬 청나라 시정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쏄**은 황금이오 손톱은 다섯 치라'는 이도 잘 닦지 않고 손톱도 잘 깎지 않아 이가 누렇게 되고, 손톱도 매우 길게 자란 청나라 사람들의 비위생적인 면모를 가지고 청나라 사람들을 낮추어 표현한 내용이다.

10 [표현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보기〉의 설명대로 청나라의 다양한 문물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청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보고 느낀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청나라의 시정, 주택, 사람들의 의복과 언어, 머리 모양, 습관 등을 거의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 제시하는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청나라 사람이나 문물에 대해 미개하고 열등하다는 인식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청나라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 '지저귄다'고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28강 춘면곡

본문 128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⑤ **05.** ① **06.** ④ **07.** ② **08.** ④ **09.** ㉮ 빈 소리 ㉯ 기약 ㉰ 약수 **10.** (1) 화자가 지닌 고뇌를 해소한다. (2) 윗글에서 화자는 꿈을 통해 임을 만나게 되고, 〈보기〉에서 화자는 꿈을 통해 자신의 신선다운 풍모를 드러낸다.

01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 ⑤

화자는 임을 만나 한평생 연분을 약속하며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별을 한 뒤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후 이별의 상황이 계속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화자는 헤어진 임을 잊지 못해 그리워하고 있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이 글은 부재한 임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등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는 데 활용한 반어적 진술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39행 '어화 황홀하다', 50행 '어화 내 일이야'에서 감탄사를 활용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1행 '춘면', 7행 '꽃향기'에서 봄이라는 계절적 상황을, 45~46행 '낙엽 지는 소리', '외기러기'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3~34행 '슬피 울 제', '새소리' 등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④ 6행 '백마금편'에서는 흰색과 금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화자의 화려한 행장을 드러내었고, 10행 '녹의홍상'에서는 녹색과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옷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03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 ④

22행 '석양은 재를 넘고 정마는 자주 울 제'는 석양이 다 져 가고 멀리 갈 때 타는 말이 자주 운다는 것으로, 화자와 임이 이별하는 상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따라서 임을 여읜 화자가 말을 타고 다니며 괴로움을 달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4행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창전의 덜 고인 술을 이삼 배 먹은 후'에 야유원에 갔다.

② 15~16행에서 화자와 여인은 '두 손목 마주 잡고 평생을'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 되'자고 언약을 했는데, 이때 죽어서 꽃과 나비가 되자는 것은 죽어서도 헤어지지 말자는 뜻이다.

③ 28~29행에서 '서창'을 닫았으나 '화용월태'가 아른거린다고 하였는데, 이때 '화용월태'는 아름다운 임의 모습을 의미한다.

⑤ 47행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본다는 것에서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04 [시어의 지시 대상 파악] 정답 ⑤

㉤은 홀로 떨어져 있는 외기러기처럼 임과 헤어져 슬피 우는 화자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임을 나타내는 ㉠~㉣과 다르다.

05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①**

ⓐ는 봄의 꽃, 긴 안개와 더불어 우거진 광경을 통해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는 임과 이별한 상태에서 덧없이 세월만 흐르고 있음을 드러내며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오답 풀이]

② ⓑ는 하강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지만, ⓐ는 상승의 이미지와 관련이 없다.

③ ⓐ는 과거를 상기하는 기능과 관계없으며, ⓑ도 미래를 환기하는 일과는 관계없다.

④ ⓑ는 청각적 심상과 관련되며, ⓐ는 후각적 심상과 관련이 없다.

⑤ ⓐ는 화자의 두려움과 관련이 없고, ⓑ도 화자의 만족감과 관련이 없다.

06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조물조차 샘하'였다는 것은 화자와 임의 사이를 조물주가 시샘했다는 것으로 임과의 이별을 암시할 뿐 경쟁자의 출현으로 인해 화자가 임과 이별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뜰의 꽃은 아름다운데'는 꽃이 핀 계절인,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② '술'은 호탕한 흥을 돋우는 요인으로, 화자가 야유원을 찾아가게 되는 이유이다.

③ 화자는 '야유원을 찾아'간 일로 인해 미인을 보게 된다.

⑤ '이별'은 화자가 임과 헤어진 상황임을 나타낸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②**

〈보기〉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에서 임과의 사랑을 다짐하는 방법으로 죽어서 다른 대상이 된다 해도 그것을 임과 화자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영원히 사랑을 이어 나가겠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임은 죽어 꽃이 되고 자신은 죽어 나비가 되어 변치 말고 사랑을 이어 나가자는 말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꽃향기', '달빛'은 〈보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③ '분벽사창은 침변에 어렴풋하'여 사랑하는 임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과 〈보기〉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④ '호월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고 있다는 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지만, 〈보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⑤ 여전히 '엊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은 일과 〈보기〉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08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천수만한'은 임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한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글에서 화자가 평소 임에 대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백마금편'은 '흰 말'과 '금 채찍'이라는 말로 화자의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차림을 나타낸다.

② '취와주란'은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야유원의 모습을 나타낸다.

③ '이슬'은 임과 이별한 슬픔으로 흘리는 화자의 눈물을 나타낸다.

⑤ '운산'은 구름에 싸인 산이라는 말로, 임과의 헤어져 만날 길 없는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나타낸다.

09 [감상의 적절성 파악]

화자는 임과 떨어져 있으면서 임에 관한 소식을 듣고자 하나 구름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빈 소리'뿐이다. 임에 관한 소식을 알지도 못한 채, 임과 만날 '기약'도 없이 세월만 무정하게 흘러가게 됨으로써 화자는 더욱 절망하게 된다. 이에 화자는 임과 자신 사이에 두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약수'가 놓여 있다고 인식하기에 이른다.

10 [작품 간 비교 감상]

이 글에서 '꿈'은 보고 싶은 임을 보게 한다는 점에서, 〈보기〉에서의 '꿈'은 신선이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고뇌 해소라는 공통적인 기능을 갖는다. 즉 이 글에서는 화자가 꿈을 통해 임과 해후해 잠시나마 기쁨을 누리게 되고, 〈보기〉에서는 화자가 꿈에 신선을 만나 자신이 원래 신선이었음을 깨닫고 넓고 활달한 신선적 풍모를 마음껏 드러내는 것이다.

29강 덴동어미 화전가

본문 132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6. ① 07. ⑤
08. ③ 09. 마음, 예사, 한숨, 수심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이 글은 부녀자들의 화전놀이를 바탕으로 덴동어미가 청춘 과녀에게 충고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어법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청춘 과녀를 설득하려는 덴동어미의 태도가 나타난다.
② 아름다운 꽃이나 새 등 자연물을 활용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④ 봄을 배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화자가 화전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관찰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이 글에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예찬하는 구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덴동어미와 청춘 과녀의 대화를 직접 인용해 현장감을 주고 있다.
② 21~23행 '어떤 부인은~잘도 보네'에서 대구법을 통해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③ 18~19행 '호랑나비 범나비는 머리 위에 춤을 추고 / 말 잘하는 앵무새는 잘도 논다고 치하하고'에서 의인법을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④ 15~16행 '빌빌낄낄', '벅궁벅궁'에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새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03 [운율 형성 방법 파악] **정답 ②**

㉠은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지만 중간에 어구가 삽입되어 변이된 형태로 운율감을 형성한다. 즉 반복과 변이에 의한 운율 형성인데, ②도 '창 내고쟈'가 반복되지만 어구가 삽입,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대구법에 해당한다.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④ 글감을 열거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⑤ 앞의 어구를 연쇄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Q 수미상관 구조가 뭔가요?

A 앞말의 끝과 뒷말의 처음이 서로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전개되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즉 앞 구절의 끝 말을 다시 뒤 구절의 머리에 놓아 그 뜻과 리듬을 인상 깊게 하는 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예던 길 앞에 있네. – 이황, 「도산십이곡」

'고인 못 뵈'가 앞 문장의 끝과 뒤 문장의 시작 부분에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동일한 시행이나 시어를 반복하는 반복법과는 차이가 있어요.

04 [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③**

ⓒ는 화전놀이를 하는데 덴동어미가 흥에 겨워서 춤을 추며 부르는 것으로, 청춘 과녀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는 화전놀이를 할 때 시원하게 부는 봄바람을 가리킨다.
② ⓑ는 부녀자들이 문밖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④ ⓓ는 화전놀이를 하고 있는 주위의 부녀자들을 동무라고 친근하게 표현한 말이다.
⑤ ⓔ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05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은 부녀자들이 삼월에 모여 산에 올라가 음식을 해 먹으며 즐기는 화전놀이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화전놀이의 비용 마련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2행에서 삼월에 날을 정해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10행 '노소를 갈라 좌차리고'에서 알 수 있다.
③ 14행 '일 년 일 차'에서 알 수 있다.
④ 11행에서 노인에게 먼저 꽃떡을 드리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다.

06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①**

㉢은 〈보기〉의 설명처럼 신선이 있던 곳을 나타내는 말이다. 신선이 와서 살거나 노니는 곳이라는 의미를 고려할 때 ㉢은 화전놀이를 하는 산중의 공간이 봄을 맞이해 매우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화전놀이가 부녀자들에 중요한 행사였던 것은 맞지만 ㉢은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③ 화전놀이에서는 음식을 해 먹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지만 ㉢이 이러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화전놀이를 통해 부녀자들이 삶의 애환과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는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은 고사를 인용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화전놀이로 인해 사람들끼리 친해졌다는 것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사람의 눈이 이상하'다고 한 것은 덴동어미가 청춘 과녀에게 충고하는 말의 일부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외부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덴동어미가 청춘 과녀에게 여성으로서 자신의 고민과 정서를 드러내는 말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화전놀이를 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당시 놀이의 행락이 이루어지는 모

습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② 불을 넣고 떡을 굽는 인물들의 모습은 부녀자들의 생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③ '내칙'은 여자가 지켜야 할 교훈을 담은 글이다. 내칙 편을 외우며 놀았다는 데서 당시 부녀자들의 문물제도를 엿볼 수 있다.

④ 청춘 과녀가 눈물 콧물 흘리는 모습은 남편을 잃은 부녀자의 모습이라는 데서 그 고충과 한이 드러난다.

08 [시상 전개 양상 파악] **정답 ③**

이 글에는 부녀자들이 산에 올라가 떡을 구워 먹고, 춤도 추며 화전놀이를 즐기는 모습(㉮)과 내칙 편 등을 읽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09 [작품의 내용 파악]

덴동어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청춘 과녀에게 자신의 인생살이를 들려주며 마음을 태평하게 만들면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예삿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충고를 건넨다. 이에 청춘 과녀는 덴동어미의 충고를 받아들여 자신의 현재의 한숨과 수심을 춘풍과 새에게 보내 버리고자 한다.

Ⅲ 한시

30강

제가야산독서당 | 촉규화

본문 137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6.** ⓐ 어려운 환경 속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님. / 출신상의 한계 속에서 출중한 능력을 지님. ⓑ 고귀한 신분의 인물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 주지 않음. ⓒ 출신상의 한계를 지닌 것에 대해 탄식함. / 육두품으로 태어난 것을 탄식하고 체념함.

01 [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③**

(가)는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산속 물줄기의 생동감, 물소리의 웅장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후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촉규화가 피어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매화 비'와 '보리 바람'을 통해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와 (나)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드러나 있지 않다. (가)는 물소리와 인간 세상 소리의 대비가, (나)는 출신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의 대비가 드러나고 있다.

④ (나)의 '수레 탄 사람 누가 보아 주리'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나)는 자연물인 '촉규화'에 의탁하여 화자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대상에 감정을 투영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가)의 화자가 물소리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드러낸 것은 화자의 정서가 아니라 의지이다.

0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④**

(가)에서 '흐르는 물로' '산을 둘러싸게' 한 것은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세속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는 흐르는 물소리의 웅장함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지척에서' 들리는 '사람 말소리'는 세속의 소리로, 화자가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싸게 할 정도로 피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③ '시비하는 소리'는 서로 배척하고 갈등을 일삼는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세속의 소리'라 할 수 있다.

⑤ '산'은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자연의 공간으로, '사람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가 있는 세상과 대립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03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가)의 ㉠은 갈등과 분쟁을 일삼는 세속과 단절하고자 화자가 산을 둘러싸게 하는 대상으로써,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나)의 ㉡은 촉규화가 피어 있는 곳으로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 없는, 출신상의 한계를 지닌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04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②**

3~4구에서 촉규화는 '향기'를 날리며 피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최치원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높은 학문적 경지에 이르렀음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러한 능력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구의 '거친 밭'은 화자의 출신상의 한계를, 2구의 '탐스러운 꽃송이'는 화자의 탁월한 능력을 비유한 것으로, 서로 대비된다.

③ 5구에서는 화자의 능력을 알아보고 써 줄, 고귀한 신분의 인물을 '수레 탄 사람'에 비유하며 그러한 인물에게 관심받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6구에서는 평범한 이들을 '벌 나비'에 비유하며 그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④ 7구에서는 '천한 땅'에 태어난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8구에서는 그럼에도 '참고 견디'는 화자의 한스러움이 드러나 있다.

⑤ 1~2구에서는 탐스럽게 핀 '촉규화'의 외양 묘사를 통해, 7~8구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참고 견디는 '촉규화'의 내면 서술을 통해 화자 자신의 처지와 내면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5 [작품 간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④**

(나)의 '매화 비'는 계절적 배경으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할 뿐,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보기〉의 '비'는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촉규화'를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는 '가을 바람', '비'를 활용하여 화자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의 7~8구와 〈보기〉의 2구에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 있다.

③ (나)의 '보리 바람'은 초여름이라는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보기〉의 '가을 바람'처럼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나)에는 화자가 현실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보기〉에서는 '만 리'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현실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6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

1, 2구는 화자가 출신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 5, 6구는 화자의 능력을 알아봐 줄 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7, 8구는 출신상의 한계를 지닌 것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이에 자조와 체념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1강

여뀌꽃과 백로 | 사리화

본문 140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④ **05.** ② **06.** ④ **07.** ⓐ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 ⓑ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 비판하고 풍자한다. ⓒ 수탈당하는 민중(농민) ⓓ 연민의 태도를 보인다.

01 [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가)는 '백로'의 모습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당대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나)는 '참새'의 모습을 통해 당대 권력층의 백성에 대한 수탈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의 8구에서 '사람들은 말하네'와 '기심을 잊고 서 있다고'는 어순이 도치되어 있다. 그러나 (나)에는 어순의 도치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감정 이입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물에 투영하는 것인데 (가)와 (나) 모두 감정 이입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나)의 '기구'의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참새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음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에는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에서 시적 대상이 '백로'로 '흰색'의 이미지를 띠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색채어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나)에도 색채어는 드러나 있지 않다.

02 [시어의 상징적 의미 파악] **정답 ⑤**

㉠은 백로의 깃털을 젖게 하는 것으로, 백로가 여울의 물고기를 탐하면서 처하게 된 안 좋은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라 할 수 없다.

②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기는 하지만 계절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③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 할 수 없다.

④ 가랑비는 가랑비에 깃털이 젖으면서도 여울의 물고기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백로의 모습을 부각하기 때문에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시적 대상인 백로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03 [시어나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④**

화자는 백로를 기회를 틈타 물고기를 잡아먹겠다는 욕심, 즉 기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백로를 고고한 모습으로 오해하고 있다. 따라서 백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는 '사람들'뿐이고 화자는 백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물고기'와 '새우'는 백로가 탐내고 있는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② 3~4구에서 백로가 '사람'을 보고 놀라 '여뀌꽃 핀 언덕'에 날아가 앉았다고 표현한 것을 통해 '사람' 때문에 백로가 일시적으로 '물고기와 새우'를 잡으려는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사람들은 '여뀌꽃 핀 언덕'에서 백로가 목을 빼고 가랑비에 젖는 모습을 보고, 백로가 '기심을 잊고 서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

⑤ 백로가 '여울의 물고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결국 기회를 틈타 물고기를 취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기심'을 잊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④**

[D]에서 '사람들'은 백로의 모습에 대해 '기심을 잊고 서 있다'고 말하며 백로를 청렴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C]에서 보이는 백로의 모습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A]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탐하는 백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의 '물고기와 새우'에 대한 백로의 욕망은 [B]에서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충족되지 못하였고 이에 백로는 '여뀌꽃 핀 언덕'에 날아가 앉아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리게 된 것이다.

② [B]의 '여뀌꽃 핀 언덕'은 [C]의 '사람'을 경계한 백로가 피신해 있으면서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리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③ [C]의 '깃털'이 젖은 모습은 '여울의 물고기'를 탐하는 [D]의 '마음' 때문에 백로가 처하게 된 부정적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A]~[D]에서 화자는 백로의 탐욕과 이중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5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나)의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는 물음의 형식이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참새'가 날아다니면 안 될 곳인 '밭'에 출몰함을 강조한 설의적 표현으로 '참새'에게 농작물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참새'는 민중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비판하고 풍자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③ '일 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수탈하는 비정한 관리들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홀로 갈고 맸'다는 것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정성을 다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벼며 기장'은 농민들이 애써 지어 놓은 수확물, 즉 곡식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6 [작품 간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④**

(나)에서는 참새가 농사지은 벼며 기장을 먹어 없애는 상황을 통해, 〈보기〉는 제비의 보금자리를 황새가 쪼고, 뱀이 와서 뒤지는 상황을 통해 관리들의 횡포를 직접적이 아닌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참새'와 수탈당하는 농민을 상징하는 '늙은 홀아비'라는 대립적 소재를 활용하여 당대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보기〉는 관리에게 수탈당하는 힘없는 백성을 상징하는 '제비'와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황새', '뱀'이라는 대립적 소재를 활용하여 당대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나)는 '참새'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기〉는 '제비'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제비'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나)의 '늙은 홀아비'와 〈보기〉의 '제비'는 관리에게 수탈당하는 힘없는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에서는 '벼며 기장'과 같은 곡식과 수확물을 수탈당하는 상황이, 〈보기〉에서는 '집'으로 대변되는 보금자리를 빼앗기는 상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07 [상징적 의미 및 화자의 정서 파악]

(나)에서 '참새'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층, 탐관오리(ⓐ)를 상징한다. 이들에 대해 화자는 부정적, 비판적 태도를 취하며 풍자하고(ⓑ) 있다. '늙은 홀아비'는 관리들에게 수탈당하는 힘없는 백성들(ⓒ)을 상징하며, 화자는 이들에 대해 연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32강 송인 | 자술

본문 144쪽

01. ① **02.** ③ **03.** ② **04.** ② **05.** ③ **06.** ④ **07.** ④ **08.** ③ **09.** ⓐ 해마다 ⓑ 하도 **10.** (나)의 전구과 결구에서는 가정법과 과장법을 사용하여, 헤어진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과 임을 만나고 싶은 절실한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01 [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가)는 임과의 이별 상황을 맞이한 화자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고, (나)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모두 대상과의 이별 상황이 창작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는 대상의 공간 이동 경로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는 임과의 이별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나)는 이별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낼 뿐,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노래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가)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이, (나)는 임과 이별한 상황이 드러나 있을 뿐, 둘 다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을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대상의 불공정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드러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가)는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불어넣어 정서를 강조하는 감정 이입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감정 이입의 대상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전구와 결구에서 대동강 물은 이별의 눈물이 보태져서 마를 날이 없다는 과장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가)의 전구의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는 대동강 물이 (이별의 눈물이 보태져서) 마를 날이 없다는 시적 의미를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부각한 것이다.

④ (가)의 전구와 결구는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나니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라는 정상적인 어순을 뒤바꾸는 도치를 통해 이별의 눈물로 인해 대동강 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기구와 결구의 '풀빛 고운데', '푸른 물'은 시각적 이미지를, 승구의 '슬픈 노래 부르네'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03 [시행의 의미 파악] **정답 ②**

㉠ 다음에 이어지는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나니'로 보아, ㉠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강물에 더해져 대동강 물은 마를 날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②**

'긴 둑'은 화자가 임과 이별하는 공간으로 영원성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마르리'도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설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일회성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둘을 대비하여 이별의 아픔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비 갠' 자연은 풀빛이 고와 아름답고 싱그러운 모습인 것에 비해, '임 보내'는 화자는 안타까운 이별을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 갠' 싱그러운 자연과 '임 보내'는 안타까운 인간사를 대조하여 화자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고운' '풀빛'은 싱그럽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고, '슬픈 노래'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므로, 이 둘의 대비를 통해 헤어지는 상황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이별 눈물'을 '대동강 물'에 보탠다는 것은 이 둘을 동일시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푸른 물'이 이별의 눈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별의 정한을 확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동강 물'과 '이별 눈물'을 동일시하여 이별로 인한 슬픔의 깊이를 심화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비', '대동강 물', '푸른 물' 등 형태를 달리하며 제시되는 '물'은 이별의 한(恨)이라는 물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물'의 이미지를 통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며 슬픔의 깊이를 심화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Q 동일시(同一視)가 뭔가요?

A 동일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가에서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자신과 하나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 또는 시적 화자가 둘 또는 그 이상의 시적 대상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보기〉나 선지에서 '동일시'라는 말이 나오면, 시적 화자가 무엇을 자신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지 또는 무엇과 무엇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지를 파악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추측해야 합니다.

05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③**

'넋'은 화자의 꿈속에서 돌길에 자취를 남겨서, 돌길을 모래로 만들 정도로 임의 문 앞을 찾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의 흐름상 임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화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나)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정서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넋'은 화자의 정서 변화를 일으키는 소재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화자는 사창에 떠오른 달을 보며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사창'은 얇은 비단으로 바른 창으로, 여자의 방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사창'은 화자가 여성임을 추측하게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② '꿈속'은 현실에서는 임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던 화자가 임을 찾아가 만나는 공간이므로 화자의 현실적 소망이 성취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문'은 화자의 '꿈속 넋'이 찾아가는 곳으로, 그 안에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이 있다. 따라서 '문'은 임이 있는 공간으로 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⑤ '모래'는 '꿈속 넋'이 '문 앞'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로 인해 '돌길'이 변한 것이다. 따라서 '모래'는 반복적 행위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06 [시행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은 임이 편안하게 지내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정이 담긴 표현으로, 임의 외모나 심성을 예찬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에는 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임이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③ ㉡에는 임의 소식을 알 수 없어서 궁금해하는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 무심하게 지내는 임에 대한 불만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⑤ ㉡에서 '근래'는 '가까운 요즈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임이 최근에 화자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음을 알게 해 준다.

07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해] **정답 ④**

(나)에서 화자는 임의 안부를 물음으로써 임과 헤어져 임의 안부를 모르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임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기〉에서는 화자가 '바람'에게 말을 건네고는 있으나 이때 바람은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눈 위에 남긴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존재이므로, 화자가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달'을 통해 달이 뜬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보기〉는 '눈빛'을 통해 눈이 내리는 겨울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②, ⑤ (나)에서는 이별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보기〉에서는 친구의 부재로 인해 친구를 만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사창'을 통해 여성인 화자가 자신의 방 창가에 있음을, 〈보기〉는 '땅'을 통해 화자가 주인 즉 친구 집 마당에 있음을 알 수 있다.

08 [시어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사창에 달 떠오면 하도 그리워'로 보아, '달'은 화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달'이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 화자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달'이 화자의 추억을 환기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는 화자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달'이 화자의 가치관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 화자가 내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달'이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시어의 의미 파악]

(가)의 결구에서는 '해마다'라는 부사를 활용하여 이별의 눈물을 푸른 강물에 보태는 일이 매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시적 정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나)의 승구에서는 '하도'라는 부사를 활용하여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매우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0 [표현법과 효과 파악]

(나)의 전구에서는 '꿈속 넋 만약에 자취 있다면'이라는 가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을 만나는 상황을 상정하고, 결구에서는 '문 앞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라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돌길이 모래로 변할 만큼 자주 임을 찾아갔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정법과 과장법을 사용하여 헤어진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과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절실함 마음을 부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강 보리타작[타맥행]

본문 148쪽

01. ③ **02.** ④ **03.** ① **04.** ③ **05.** ⑤ **06.** ② **07.** ⑤
08. ㉮ 건강한 삶 ㉯ 헛된 명분을 좇는 삶 **09.** 노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농민들의 모습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이 글에는 농민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으나,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에서 과장법을 활용하여 농민들의 활달한 생활상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과장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막걸리의 뿌연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④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등에서 시각적·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⑤ '무엇 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에서 설의법을 통해 벼슬길에 연연했던 지난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2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B]는 화자가 타자인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내용이 담긴 부분으로 노동하는 농민들의 정서에 대한 화자의 추측,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룬 농민들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찬탄이 담겨 있을 뿐, 농민들의 갈등 해결 양상에 대해 화자가 짐작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A]의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등에서 농민들이 마당에서 노동요를 부르며 흥겹게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모습에 대해 화자가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A]의 '삽시간에 보리 낟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등에서 농민들이 보리타작한 결과물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화자가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이 노동한 결과물에 대해 화자가 주시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B]의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에서 화자가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얼굴빛을 살펴보고 농민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다고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하는 농민들의 정서에 대해 화자가 추측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C]의 '무엇 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에서 과거 벼슬길에 연연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자신이 몰두했던 일에 대해 화자가 반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3 [외적 준거에 의한 시어 이해] **정답 ①**

화자는 마당에서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② '마당'에서 농민들끼리 또는 화자와 농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애환을 공유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③ '마당'은 농민들이 즐겁게 보리타작하는 공간이며, '마당'을 빈곤한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④ '마당'에서 현실과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마당'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고 화자가 지난 삶을 성찰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과거와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고 할 수는 있으나, 화자가 이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04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해] **정답 ③**

이 글에서는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에서, 〈보기〉에서는

'부러 무엇하리오'에서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화자는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곡식을 먹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을 뿐 대상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낙원'과 '벼슬길', 즉 농민의 삶과 화자의 과거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이 글과 〈보기〉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두 작품 모두 농사일의 힘겨움보다는 노동의 즐거움과 보람을 노래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젖빛처럼 뿌옇고',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등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였으나 〈보기〉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05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는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과정에서 생긴 보리 티끌이 지붕까지 날아다닌다는 말로, 농민들이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고 타작한 보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농민들이 노동을 헛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옹헤야 소리 내며'에서 '옹헤야'는 보리타작할 때 도리깨질을 하며 부르던 노동요이다. 또한 이어지는 '발맞추어 두드리니'로 보아,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이 노동요를 부르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② '발맞추어 두드리니'에서 '발맞추어'는 '여러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같은 목표나 방향으로 일치시켜'라는 의미이므로, 두드리는 행위 즉 보리타작을 여러 사람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주고받는 노랫가락'은 농민들이 선창과 후창으로 나누어 노랫가락을 주고받으며 노동요를 부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다.

④ '점점 높아지는데'는 농민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점점 커지고 세진다는 의미로, 노동요를 부르며 신명 나게 일하는 농민들의 흥이 고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06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밥 먹자 도리깨 잡고'는 농민들이 밥을 먹자마자 보리타작을 위해 도리깨를 잡는다는 것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는 농민들이 부지런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에서 농민들의 식사량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이 식사를 부족하게 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에서 농민들이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단서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농민들이 강요 때문에 노동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밥 먹자 도리깨 잡고'는 밥을 먹자마자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므로, 농민들이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밥 먹자 도리깨 잡고'는 식사를 마치고 잠시의 여유도 없이 일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농민들이 여유를 갖고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7 [시행의 의미 파악] **정답 ⑤**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는 1~9행에서 농민들이 건강한 삶의 자세로 열심히 노동하는 모습을 본 화자의 평가로, 12행에 제시된 자신의 모습(벼슬길을 찾아 헤맴)과 대조되고 있다. 이 구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에 임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 부귀공명과 같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가 건강한 삶이라는 깨달음이 드러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몸의 상태에 따라 마음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은 마음이 몸에 지배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몸도 쇠약해지지 않는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한다는 의미일 뿐, 이 글에서 농민이나 화자가 억압된 상태에 있다고 짐작할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억압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마음보다는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이 삶의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난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8 [시어의 의미 파악]

이 작품의 결구의 '낙원'은 화자가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깨달은 긍정적인 삶이 영위되는 공간이므로, '건강한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벼슬길'은 과거에 화자가 연연했던 것이므로, '헛된 명분을 좇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9 [시행의 기능 파악]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는 계속되는 노동으로 인해 검게 그을린 농민의 어깨의 탄탄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노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농민들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고려 가요·경기체가·악장

34강 가시리

본문 154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③ 05. ④ 06. ③ 07. ⑤
08.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 09. Ⓐ 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않을 것이) Ⓑ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이별에 처한 여인의 복합적인 감정을 간결한 형식, 순우리말 시어를 통해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감각적인 이미지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고려 시대에 평민들 사이에서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 문자로 정착된 고려 가요로, 간결하고 함축적인 순우리말 시어의 사용이 돋보인다.

③ 자신을 떠나는 임에게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가시리(a) 가시리잇고(a) ᄇᆞ리고(b) 가시리잇고(a)'에서 특정 시어(a)가 반복되는 a–a–b–a 구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의문형 어미 '–잇고', 염려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ㄹ셰라', 명령형 어미 '–쇼셔'를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 정답 ④

이 글의 화자는 '가시리잇고'를 반복하면서 자신을 떠나려는 임에게 이별의 상황을 거듭 확인한 후 임에 대한 서운함과 안타까움, 이별에 대한 수용과 체념, 기다림의 정서 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별의 상황에 대한 거듭된 확인은 화자가 갑작스럽게, 즉 예기치 않게 이별의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나타낸다.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믿기지 않아 재차 이별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예기치 못한 이별의 상황으로 인해 서러워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화자가 빈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빈곤한 상황으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에서 화자의 신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이 그 신념과 배치되는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에서 화자가 상대에 대해 동정심을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유사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 대한 동정심이 표출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글에서 화자가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표출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3 [시구의 행동 주체와 의미 파악] 정답 ③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ᄂᆞᆫ'은 '붙잡아 두고 싶지만'의 의미로, 떠나는 임을 만류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의 주체는 임이 아니며 이 구절이 임이 떠나는 원인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ᄇᆞ리고'는 '버리고'의 의미로 그 주체는 임이고, 임이 화자를 버리고 떠나는 상황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는 화자가 임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엇디 살라 ᄒᆞ고'는 '어찌 살아가라고'라는 의미로, 앞의 '날러는'으로 보아 화자가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임이 떠난다면 화자는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는 화자가 임을 떠나보내며 자신은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떠나느냐고 한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보내ᄋᆞᆸ노니'는 '보내 드리오니'라는 의미로, 주체는 화자이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로 보아, 임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⑤ '도셔 오쇼셔'는 '다시 돌아오소서'라는 의미로, 돌아오는 행위의 주체는 임이다. 이는 임이 가는 듯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04 [시상 전개에 따른 내용 이해] 정답 ③

'전'에서 화자는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임이 다시 오지 않을까 봐 이별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을 뿐,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직접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시상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기(1연)'는 시상을 제시한다고 하였으므로 '기'에서 화자가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임이 자신을 떠나가는 상황을 제시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하다.

② '기'에서는 자신을 떠나가는 임에 대한 원망과 하소연이 나타나며 '승'에서는 그러한 하소연이 고조되고 있다. 즉 '승'에서는 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화자의 심리를 제시하며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④ '전'에서 화자는 자신이 이별을 만류하면 임이 서운해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전'에서는 화자가 떠나는 임을 만류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⑤ '결'에서 화자는 임을 보내 드릴 것이니 가시자마자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소망과 기원을 드러내고 있다. 즉 '결'에서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05 [시적 구조의 파악] 정답 ④

'가시리 가시리잇고 / ᄇᆞ리고 가시리잇고'는 '가시리(가시리잇고)'를 반복하고, 'ᄇᆞ리고'에서 변주가 이루어진 a–a–b–a 구조이다. 그런데 '눈은 살아 있다. /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는 '눈은 살아 있다.'에 다른 성분이 덧붙으면서 의미가 뚜렷해지는 점층적 전개를

보이고 있을 뿐, a–a–b–a 구조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는 '살어리'(a), '살어리랏다'(a), '청산에'(b), '살어리랏다'(a)로 이루어진 a–a–b–a 구조라고 할 수 있다.

②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는 '형님 온다'(a), '형님 온다'(a), '분고개로'(b), '형님 온다'(a)로 이루어진 a–a–b–a 구조라고 할 수 있다.

③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는 '산에는' '꽃 피네'(a), '꽃이 피네'(a), '갈 봄 여름 없이'(b), '꽃이 피네'(a)로 이루어진 a–a–b–a 구조라고 할 수 있다.

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는 '나는 왕이로소이다'(a), '나는 왕이로소이다'(a),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b), '나는 왕이로소이다'(a)로 이루어진 a–a–b–a 구조라고 할 수 있다.

06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③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에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이별의 상황에서 오는 애절한 심정이 담겨 있다. 이는 임이 떠난다면 자신은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들 것이므로 자신을 떠나지 말라는 하소연이 고조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임을 붙잡지 못하고 체념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시리 가시리잇고'는 '가시리'(3글자), '가시리'(3글자), '잇고'(2글자)로 된 3 · 3 · 2조의 음수율과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기〉의 '3음보를 기본 율격으로 하여 리듬감을 형성함.'을 바탕으로 볼 때, 적절하다.

② '나ᄂᆞᆫ'은 율격을 맞추고 흥을 돋우기 위해 넣은 여음구로 음악적 효과를 높이고 있으므로 〈보기〉의 '음악적 효과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여음구를 반복함.'을 바탕으로 볼 때 적절하다.

④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는 임이 서운하게 생각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다는 의미이다. 화자는 이러한 심리 때문에, 떠나는 임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이별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이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소극적인 화자의 태도가 담겨 있음.'을 바탕을 볼 때, 이 구절에 이별의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⑤ '셜온 님 보내ᄋᆞᆸ노니'는 임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 속에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한(恨)'의 정서가 담겨 있으므로 〈보기〉의 '자신에게 닥친 부당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한(恨)의 정서가 나타남.'을 바탕으로 볼 때, 적절하다.

07 [시구의 표현과 의미 이해] 정답 ⑤

㉢에서는 1연의 ㉡을 반복하여 뜻하지 않은 이별로 인한 슬픔과 정한을 강조하고 있을 뿐, 절제와 양보를 통해 임과의 갈등을 차단하려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절제와 양보를 통해 임과의 갈등을 차단하려는 화자의 모습은 3연에서 찾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가시렵니까?'라는 의미이므로, 화자가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임이 떠나가는 이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은 '버리고 가시렵니까?'라는 의미로, 임이 화자를 버리고 떠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별의 원인이 임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에서는 ㉠을 반복함으로써 이별의 상황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임과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은 ㉡을 반복하여 임이 화자를 버리고 떠나는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정한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8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

〈보기〉는 구비 전승되는 고려 가요가 궁중의 악곡으로 정착하면서 내용과는 상관없이 작품에 송축의 내용이 담기거나 시적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시구가 덧붙여진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는 '대평셩ᄃᆡ', 즉 태평성대에 대한 송축의 내용이 담겨 있고, 이별의 상황과도 관련이 없는 시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에 어울리는 시구는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라고 할 수 있다.

09 [화자의 정서 및 심리 파악]

3연은 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임이 서운해하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며 체념하고 있다. 4연은 서러운 임을 보내 드리니 가시자마자 곧바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당부하는 것에서 화자의 소망과 기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강 동동

본문 158쪽

01. ② **02.** ③ **03.** ① **04.** ⑤ **05.** ③ **06.** 덕으란 **07.** ㉮ 임이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임을 드러낸다. ㉯ 임이 출중한 용모의 소유자임을 드러낸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반어법은 자신이 표현하려는 원뜻과 정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수사법인데 이 글에서 반어법을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덕으란 곰**ᄇᆡ**예 받**좁**고 복으란 림**ᄇᆡ**예 받**좁**고'에서 대구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아으, 다호라, 즈**싀**샷다, **돌**욋고지여, 곳고리 새여' 등에서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등ㅅ블', '**돌**욋곶'은 임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보조 관념이므로, 비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나릿믈'과 '몸'의 대조를 통해 정월을 맞아 얼었다 녹았다 하는 냇물과 달리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화자의 마음이 꽁꽁 얼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곳고리 새'와 '녹사님'의 대조를 통해 다시 찾아온 꾀꼬리 새와 달리 녹사님이 찾아오지 않아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02 [후렴구의 기능과 역할 파악] **정답 ③**

각 연마다 '아으 동동다리'가 반복되고 있으나, 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탄사와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로 이루어진 후렴구이다. 따라서 이것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각 연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어 연을 구분하고 구조적으로 형태적인 안정감을 부여한다.

② ㉠의 반복으로 리듬감이 나타나므로, 운율을 형성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킨다고 할 수 있다.

④ ㉠으로 각 연을 마무리함으로써 다양하게 전개된 시상을 통합하고 있다.

⑤ ㉠에서 '동동'은 북 소리를, '다리'는 그 외의 다른 악기 소리를 흉내 낸 것이므로, ㉠이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로 이루어진 후렴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03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①**

〈1월령〉의 '나릿믈'은 봄을 맞이하여 녹으려 하고 있는데, 화자는 세상에 태어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 때문에 얼어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나릿믈'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월령〉의 '봉**당** 자리'는 화자가 홑적삼을 덮고 누운 차가운 공간으로,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봉**당** 자리'를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5월령〉의 '받**좁노이**다'에서 바치는 '약'에는 임의 장수를 바라는 화자의 정성과 기원이 담겨 있다. 또한 〈7월령〉의 '비**솝노이**다'는 임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에 화자의 정성과 기원이 담겨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6월령〉의 '좃니노**이**다'에는 임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 〈7월령〉의 '**ᄒᆞᆫ**ᄃᆡ 녀가져'에는 임과 함께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 둘에 화자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6월령〉의 '빗'은 벼랑에 버려진 것이고, 〈10월령〉의 '**ᄇᆞᄅᆞ**'은 꺾여 버려진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이 버림받은 화자의 신세를 비유한 사물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10월령〉의 '업스샷다'는 임에게 버림받아 함께 지낼 사람이 없는 화자의 처지를, 〈11월령〉의 '스**싀**옴 녈셔'는 임과 이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화자의 외로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둘에 고독하게 지내는 화자의 삶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4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이해] **정답 ⑤**

〈10월령〉에 제시된 [A]는 '져미연 **ᄇᆞᄅᆞ**'으로 잘게 썬 고로쇠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B]는 고로쇠를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다며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B]를 임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월령〉에 제시된 [A]는 '나릿므른' '어져 녹져 **ᄒᆞ논ᄃᆡ**'로 보아, 얼었다 녹았다 하는 냇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는 세상 가운데 나서는 이 몸은 홀로 살아간다고 한 데서 외롭고 고독한 처지라고 할 수 있다.

② 〈4월령〉에 제시된 [A]는 '오실셔 곳고리 새여'로 보아, 다시 찾아온 꾀꼬리 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는 어찌하여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시냐고 한 데서 무심한 임에 대한 원망이라고 할 수 있다.

③ 〈5월령〉에 제시된 [A]는 '수릿날 아**ᄎᆞᆷ** 약'으로 보아, 단오에 먹는 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는 천년을 길이 사실 약이라 바친다고 한 데서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④ 〈9월령〉에 제시된 [A]는 '약이라 먹논 / 황화고지'로 보아, 약으로 먹는 국화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는 누런 국화꽃이 집 안에 피니 초가집 안이 조용하다고 한 데서 임이 없는 적막감이라고 할 수 있다.

05 [시행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은 임의 앞에 놓은 젓가락을 손님이 가져다가 입에 물었다는 의미로, 여기서 젓가락은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원치 않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 화자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 전체로 보아, 이별한 임이 돌아오지 않아 화자가 마음 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서 임이 화자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아 화자가 임을 원망하고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은 화자가 임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었다는 것이지, 임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④ ㉡에서 임이 알아주지 않아도 임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다는 화자의 각오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에서 임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6 [연의 의미와 기능 파악]
이 글에서 〈서사〉는 임이 덕이 있고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별한 상황에서의 다양한 정서를 읊은 다른 연들과 이질적이다. 이는 민간에서 유행하던 이 노래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면서 궁중 의식의 절차를 갖추기 위해 임금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담은 〈서사〉가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사〉의 첫 어절인 '덕으란'을 써야 한다.

07 [시구의 의미 이해]
㉮는 뒤에 이어지는 '만인 비취실 즈싀샷다'로 보아, 임이 온 백성을 비추실 모습, 즉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는 '**ᄂᆞᄆᆡ** 브롤 즈**슬** 디녀 나샷다'로 보아,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 즉 출중한 용모의 소유자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36강 정과정

본문 161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6.** ⓐ는 감정 이입을 사용하여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의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07.** ⓑ에는 '임이 이미 나를 잊었을지 몰라.'라는 의구심과, '임이 아직 나를 잊지 않았을 거야(생각할 거야).'라는 기대감의 이중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

01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 **정답 ⑤**
이 글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임이 자신을 다시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임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날 뿐, 화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에서 화자는 자신을 모함한 사람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을 포용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과도 허물도 천만 업소이다'에서 화자는 자신에게 잘못과 허물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도람 들으샤 괴오소서'에서 화자는 임의 사랑을 되찾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체념적인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작품 전체에서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02 [소재의 시적 기능 파악] **정답 ⑤**
이 글의 화자는 '아니시며 거츠르신달 아으 / 잔월효성이 알으시리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화자를 모함하는 말이 옳지 않으며 거짓인 것을 알고 있는 '잔월효성'은 화자의 결백을 증명해 줄 천지신명 즉 초월적 존재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잔월효성'은 화자의 결백을 증명하는 천지신명이고, 이 글에서 화자와 임과의 재회를 방해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소재는 찾을 수 없다.
② 이 글에서 '잔월효성'이 화자와 임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③ 이 글에서 '잔월효성'이 화자의 미래를 알려 주는 예언적 존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④ 이 글에서 '잔월효성'이 화자와 임을 헤어지게 만든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화자와 임이 헤어지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벼기더시니', 즉 화자를 참소한 뭇사람들이다.

03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②**
'아으'는 감탄사로, 감흥과 율조에 영향을 미치는 여음구에 해당할 뿐, 각 절의 끝에 되풀이되는 후렴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으'가 후렴구를 사용하는 고려 가요의 특징을 보여 준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우니다니'는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우니다니'의 3음보율로 이루어진 구절이므로 적절하다.
③ '아소'는 감탄사로, 11행인 낙구의 첫머리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를 사용하는 10구체 향가의 특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④ '아소 님하 도람 들으샤 괴오소서'는 '아아 임이시여, 다시 들으시어 사랑해 주소서.'의 의미로 앞에서 전개된 시상이 여기에서 화자의 소망이나 기원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낙구에 시상을 집약하는 10구체 향가의 특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⑤ 이 글은 연 구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시가로, 연이 나뉘는 분연체로 구성되는 고려 가요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04 [시어 및 시구의 의미와 기능 이해] **정답 ③**
'말힛 마리신저'는 '뭇사람의 참소하는 말입니다.'의 의미로, 자신에 대해 임이 들은 말이 모두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화자가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임과 이별한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며 지내고 있다는 의미로 화자의 고독하고 쓸쓸한 처지를 드러낸다.
② ㉡은 '거짓인 줄을'의 의미로, 자신에 대해 참소하는 말이 옳지 않으며 거짓된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는 화자와 관련해 임이 알고 있

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해명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은 '슬프구나'의 의미로, 다른 사람의 모함으로 임과 이별하여 지내고 있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감정을 직접 드러낸 것이다.

⑤ ㉤은 '다시 들으시어'의 의미로, 자신에 대해 남들이 한 말을 다시 잘 조사해 달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는 임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해] **정답 ⑤**

[A]와 〈보기〉에서 '넋이라도'는 자신이 죽어서 넋이 되면 그 넋이라도 임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A]와 〈보기〉 모두 화자가 자신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는 '뉘러시니잇가', 〈보기〉는 '누구입니까'를 통해 '우기던 사람'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A]와 〈보기〉 모두 물음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A]의 '님은 한데'와 〈보기〉의 '임과 함께'는 모두 임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A]의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에는 자신을 모함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으며, 〈보기〉의 '우기던 사람 누구입니까'에도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A]와 〈보기〉 모두 화자가 타인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A]에서는 시어나 시구를 반복한 부분을 찾을 수 없는데, 〈보기〉에서는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자 했는데'를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A]와 달리 〈보기〉는 반복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6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산 접동새 난 이슷하요이다'는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의 의미로, '산 접동새'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화자는 임과 이별하여 임을 그리워하며 울면서 슬프고 고독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감정을 산에서 울고 있는 '산 접동새'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감정 이입의 방법을 사용하여,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의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7 [화자의 정서 및 심리 파악]

〈보기〉에서는 '날 생각난가'에 기대감과 의구심이라는 이중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의 '님이 나를 하마 잊으시니잇가'도 '임께서 벌써 나를 잊으셨습니까?'의 의미로, 임이 이미 나를 잊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과, 임이 아직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다.

37강 정석가

본문 166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① **07.** ② **08.** 1연의 내용으로 보아, 임은 임금이고 이 작품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송축가라고 할 수 있다. **09.** 3연의 '바회'는 꽃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6연의 '바회'는 구슬이 떨어지면 깨지는 곳으로, 사랑의 장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2~5연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부분과 6연에서 천 년을 외로이 살아간다고 가정한 부분 등에서 과장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임과 헤어지지 않을 것이며 임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에서 문장 성분의 순서를 뒤바꾸어 긴장감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이 글에서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이 글은 화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졌을 뿐,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이 글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작가의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반복되고 있을 뿐 점층적으로 시상이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02 [작품의 형식적 특징 파악] **정답 ⑤**

1연은 반복 어구를 제외하면 2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2~5연은 반복 어구를 제외하면 4행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6연도 반복 어구인 '구스리 바회예 디신ᄃᆞᆯ', '즈믄 ᄒᆡᄅᆞᆯ 외오곰 녀신ᄃᆞᆯ'을 제외하면 4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1연은 3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2~6연은 모두 6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1연이 나머지 연과는 형식적인 이질감을 보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1연은 1행을 2행에 반복하고, 2~6연은 1행을 2행에, 4행을 5행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2~6연은 각 행이 대체로 세 번 끊어 읽는 3음보의 음보율을 보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2~5연의 마지막 행에서 반복되는 '유덕ᄒᆞ신 님(믈) 여ᄒᆡᄋᆞ와지이다'는 후렴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1, 6연에서는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 6연을 제외한 2~5연은 마지막 행이 동일한 어구로 반복되어 후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3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 **정답 ④**

화자는 모래 벼랑에 심은 구운 밤에 싹이 나는 상황, 옥으로 새겨 바위에 접붙인 연꽃이 피어나는 상황, 무쇠로 마름질하

여 철사로 주름 박은 옷이 허는 상황, 무쇠로 된 소가 쇠로 된 풀을 먹는 상황처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후 그것이 이루어져야 임과 이별하겠다는 역설 논리의 표현을 통해 임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을 뿐, 화자와 임의 이별 여부나 화자가 이별을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화자가 임을 원망하거나 재회를 기원하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다.

②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임과 이별하겠다고 하며 절대로 임과 헤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04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③**

2연의 '그 바미'는 '그 밤이'의 의미로,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ᄂᆞᆫ /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로 보아,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심은 구운 밤을 의미한다(ㄱ). 5연의 '그 쇠'는 '그 소가'의 의미로, '므쇠로 한 쇼를 디여다가 / 텰슈산애 노호이다'로 보아, 무쇠로 만들어서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은 큰 소를 의미한다(ㄹ).

[오답 풀이]

ㄴ. 3연의 '그 고지'는 '그 꽃이'의 의미로, '옥으로 련ㅅ고즐 사교이다 / 바회 우희 접듀ᄒᆞ요이다'로 보아, 옥으로 새겨 바위에 접붙인 연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이 바위 위에 피어난 옥같이 예쁜 꽃을 의미한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ㄷ. 4연의 '그 오시'는 '그 옷이'의 의미로, '므쇠로 텰릭을 ᄆᆞᆯ아 나ᄂᆞᆫ / 텰ᄉᆞ로 주롬 바고이다'로 보아, 무쇠로 재단하여 철사로 주름 박은 옷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이 무쇠로 만든 가위로 천을 재단하여 철사를 박은 옷을 의미한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5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②**

2~5연의 '유덕ᄒᆞ신 님믈 여히ᄋᆞ와지이다'는 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화자는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여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별하겠다고 표현함으로써 임과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연의 '션왕셩ᄃᆡ예 노니ᄋᆞ와지이다'는 태평성대에 놀고 싶다는 의미로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2~6연과는 어울리지 않는데, 이를 통해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될 때 체제에 대해 옹호적인 이 부분이 첨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③ 2연은 구운 밤에서 싹이 나는 상황을, 3연은 옥으로 새겨 바위에 접붙인 연꽃이 피는 상황을, 4연은 무쇠 옷이 다 헐게 되는 상황을, 5연은 무쇠 소가 쇠로 된 풀을 먹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임과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2연의 '삭나거시아'는 싹이 돋아나는 것을, 3연의 '퓌거시아'는 꽃이 피는 것을 뜻하므로, 모두 생성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연의 '헐어시아'는 옷이 허는 것을, 5연의 '머거아'는 풀을 먹는 것을 뜻하므로 모두 소멸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생성과 소멸의 대칭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⑤ 6연의 '긴'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끈'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끈처럼 화자와 임의 인연과 사랑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대상과의 인연이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6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해] **정답 ①**

A는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 B는 중장에서 청산의 불변성에 빗대어서 임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A와 B 모두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A와 B는 모두 이별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반성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A와 B 모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이별하게 되었음을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B는 임이 떠나더라도 임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한편 떠나는 임도 자신을 잊지 못해 울며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A는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A에게는 아직 이별의 상황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와 B 모두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뒤의 아쉬움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B는 이별을 하더라도 임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반면에 A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이별하겠다고 하며 이별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별의 상황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B가 아니라 A이다.

⑤ A와 B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07 [시어 및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②**

'나ᄂᆞᆫ'은 특별한 의미 없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 사용한 여음구이다. 이를 '나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여음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삭삭기'는 '바삭바삭'이라는 의미로, '잘 마른 물건을 잇따라 가볍게 밟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하는 단어이므로,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음성 상징어라고 할 수 있다.

③ '구스리'는 '구슬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구슬은 화자와 임 사이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시어라고 할 수 있다.

④ '즈믄 히'는 '천 년'이라는 의미로, 이어지는 '외오곰 녀신ᄃᆞᆯ'로 보아 오랜 세월 외로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시구라고 할 수 있다.

⑤ '그츠리잇가'는 '끊어지겠습니까'라는 의미로,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시어라고 할 수 있다.

08 [화자 및 작품의 성격 파악]

이 작품이 궁중 음악으로 쓰인 경우에는 1연의 '딩아 돌하 당금에 계샹이다 / 션왕셩ᄃᆡ예 노니ᄋᆞ와지이다'로 보아, 함께 하고 싶은 임은 임금이고 화자는 신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노래인 송축가라고 할 수 있다.

09 [소재의 의미 및 기능 파악]

3연에서 '바회'는 옥으로 새긴 연꽃을 접붙일 수 없는 공간, 즉 꽃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6연에서 '바회'는 구슬이 떨어지면 깨질 수 있는 곳인데, 구슬은 임과 화자의 사랑을 비유한 말이므로, 이는 둘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8강 서경별곡

본문 170쪽

01. ③ **02.** ① **03.** ③ **04.** ③ **05.** ② **06.** ④ **07.** ⑤ **08.** ④ **09.**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화자가 임에 대한 원망을 전가한 대상이다. **10.** (1) 고즐 (2) 임이 만날 다른 여인

01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③

화자가 사랑하는 삶의 터전인 '서경', 임과의 공간적 단절감을 드러내는 '대동강' 등의 배경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 등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서경', '대동강' 등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것이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글에서 공간은 제시되지만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도 않다.

④ 화자가 임과의 이별이라는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은 맞지만 긍정적 미래를 가정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에는 특정한 계절적 배경이 소재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이 글에서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어구에 이어받아 심상을 강조하는 연쇄법을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3연 '빗 내여 노혼다 샤공아', '녈 빗예 연즌다 샤공아' 등에서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사공을 원망하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③ 1연에서 '서경이', '닷곤ᄃᆡ'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가 처한 시적 정황을 부각하고 있다.

④ 2연 '긴힛ᄯᅳᆫ 그츠리잇가', '신(信)잇ᄃᆞᆫ 그츠리잇가' 등에서 설의법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2연 '구스리 바회예 디신ᄃᆞᆯ', '긴힛ᄯᅳᆫ 그츠리잇가'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함없다는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Q 연쇄법과 반복법의 차이는 뭔가요?

A 연쇄법은 앞 구절의 마지막 말을 뒤에 이어지는 구절의 처음에 다시 사용하여 그 뜻과 리듬을 인상 깊게 하는 기법으로, 마치 고리와 고리가 이어진 쇠사슬처럼 말이 계속 꼬리를 무는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반복법은 단순히 같은 단어나 구절, 행을 되풀이하는 기법을 말하죠. 예를 들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건 기차' 등과 같이 어렸을 때 했던 말놀이가 연쇄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03 [화자의 심리 및 태도 파악] **정답** ③

2연에서 화자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구슬을 꿴 끈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 빗대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이별한 채 지낸다고 해도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영원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을 뿐, 임의 뜻을 따르는 순종적인 여성이 되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쇼셩경'과 생계 수단인 '질삼뵈'를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며,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2연에서 화자는 오랜 세월인 '즈믄 ᄒᆡ'를 홀로 살아가더라도 임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인 '신(信)'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④ 3연에서 화자는 사공에게 대동강 물이 넓은지 몰라서 임을 태울 배를 내어 놓았느냐며 사공을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동강이 크고 넓어서 임이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화자의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3연에서 화자는 임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꽃을 꺾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꽃은 다른 여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임이 강을 건너면 다른 여인을 사귀게 될 것 같다며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04 [시어와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는 임을 배에 태우고 떠나는 사공에 대해 사공의 아내가 음란하다고 모함하며 '네 아내나 잘 챙기지 왜 남의 임을 배에 태우고 떠났느냐'고 원망하는 것일 뿐, 음란한 세태의 비판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질삼뵈'는 '길쌈과 베' 또는 '길쌈하던 베'의 의미인데, '길쌈'은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로 주로 여성이 담당하였으므로, 화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우러곰 좃니노이다'는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의 의미로, 화자가 임

과의 이별을 거부하고 임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샤공'은 임을 배에 태워 강을 건너는 인물로, 화자는 '샤공' 때문에 임과 자신이 이별했다고 여기고 '샤공'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샤공'이 자신과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긴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ᄇᆡ** 타들면 것고리이다'는 '배를 타고 건너면 꺾을 것입니다'의 의미로, 여기서 꺾는 주체는 임이고, 대상인 '곶'은 다른 여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는 임이 강을 건너면 다른 여인을 만날 것을 염려하는 화자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절에 미래에 나타날 임의 행동을 경계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5 [다른 작품과의 비교 이해] **정답 ②**

[A]의 '신(信)과 [B]의 '붉은 마음'은 모두 임을 향한 변하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A]와 [B]에서 '바위'는 '구슬'을 깨뜨리는 존재로, 화자와 임을 이별하게 만드는 장애물,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信)'과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와 [B]에서 모두 '구슬'은 바위에 떨어져 깨질 수 있는 대상이지만, '긴'이나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구슬'은 변하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A]에서 화자는 '신(信)'을 통해, [B]에서 화자는 '붉은 마음'을 통해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④ [A]와 [B]는 모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A]는 고려 가요이고, [B]는 한시이다. 따라서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에 수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A]에는 '아즐가', '나**ᄂᆞᆫ**'이라는 여음구와 후렴구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B]에는 특별한 여음구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와 [B]가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6 [특정 부분의 내용 파악] **정답 ④**

화자는 임이 대동강을 건너면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이라 여기며 그 대상을 질투하고 있지만, 화자와 그 여인과의 갈등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화자와 화자가 질투하는 대상과의 갈등이 심화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대동강'은 화자와 임이 이별의 상황을 맞고 있는 공간이므로 임과의 단절감을 드러내는 공간이 나타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ᄇᆡ** 타들면 것고리이다'에서 임이 대동강을 건너면 화자에 대한 마음이 변하여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이라고 염려하는 화자의 심경이 드러난다.

③ '대동강 너븐디 몰라셔'에서 대동강이 넓다는 속성을 통해 화자와 임과의 거리감을 부각하고 있다.

⑤ 화자는 사랑하는 임을 배에 태워 떠나게 하는 사공을 자신과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인물로 여기며 원망하고 있다.

07 [여음구 및 후렴구의 역할 파악] **정답 ⑤**

'나**ᄂᆞᆫ**'은 특별한 의미 없이 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한 여음구로, 음악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나**ᄂᆞᆫ**'이 임과의 인연이 영원할 것이라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의 '아즐가'는 감탄하는 소리로, 모든 행의 첫 음보 뒤에 붙어 행의 시작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음률을 맞추어 주는 여음구이다.

② ㉡은 'ㄹ, ㅇ'을 많이 사용하여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하는 후렴구로, 모든 행의 뒤에 붙어 행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한다.

③ ㉡은 거문고, 대금, 징 등의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로 이루어져, 특별한 의미 없이 흥을 돋우고 음악적 효과를 주는 후렴구이다.

④ '나**ᄂᆞᆫ**'은 '긴힛**ᄉᆞᆫ** 그츠리잇가 나**ᄂᆞᆫ**', '신(信)잇**ᄃᆞᆫ** 그츠리잇가 나**ᄂᆞᆫ**', '**ᄇᆡ**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ᄂᆞᆫ**'에만 사용되었는데, 이는 특별한 의미 없이 흥을 돋우는 여음구로 고려 가요에 자주 등장한다.

08 [시어 및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④**

대동강이 넓은 줄 몰랐느냐는 ⓓ의 생각은 사공의 생각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다. 하지만 이후 화자는 임을 배에 태워 대동강을 건너는 사공에 대한 원망과 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낼 뿐, 좌절감을 극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를 화자의 좌절감 극복의 원인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는 '작은 서울'이라는 뜻으로 평양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화자가 '질삼뵈'를 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는 '사랑해 주신다면'의 의미이다. 즉 임이 사랑해 준다면 좋겠다는 것으로, 임의 행위에 대한 가정이며 화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는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의 의미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는 '떠나가는 배에 실었느냐'라는 의미로, 사공이 임을 배에 태워 강을 건너는 행위에 대한 질책이자 화자가 사공을 비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09 [소재의 기능 파악]

이 글에서 화자는 임을 배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해 주는 '샤공'을 비난하며 원망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떠난 임을 직접 원망할 수 없어 책임을 '샤공'에게 전가한 것으로, 임에 대한 원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의 화자도 '고운 님'을 돌아가게 한 '개'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게 전가하여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은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10 [시구의 해석 및 상징적 의미 파악]

㉣은 '꺾을 것입니다'의 의미로 후렴구 앞에서 나온 '고즐여'와 함께 '꽃을 꺾을 것입니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글에서 '꽃을 꺾다'는 임이 다른 여인을 만나는 것을 상징한다.

39강 청산별곡

본문 174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④ **05.** ③ **06.** ④ **07.** 5연과 6연의 순서를 맞바꾸면 대칭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08.** ⓐ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 ⓑ 연주를 들으며 삶의 괴로움을 잊고 싶은 화자의 심정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이 글에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표현하여 강조하는 방법인 반어법을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살어리(a) 살어리랏다(a) **청**산애(b) 살어리랏다(a)', '우러라(a) 우러라 새여(a) 자고 니러(b) 우러라 새여(a)', '가던 새(a) 가던 새 본다(a) 믈 아래(b) 가던 새 본다(a)' 등에서 a-a-b-a 구조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1~3연에서 '살어리랏다', '우러라 새여', '가던 새 본다' 등의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8연의 '조롱곳 누로기 **ᄆᆡ**와 잡ᄉᆞ와니 내 엇디ᄒᆞ리잇고'에서 '누룩'이 화자를 잡는다고 하여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통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⑤ 2연의 '널라와 시름 한 나'에서 '너(새)'보다 화자 '나'가 시름이 많다고 하여 다른 대상과 화자의 비교를 통해 근심, 걱정이 많은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02 [시공간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에졍지'는 '외딴 부엌'의 의미로, 화자가 '바**ᄅᆞᆯ**'을 향해 가다가 잠시 들러 사슴이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을 화자가 정착한 자연의 세계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청**산'은 화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믈 아래'는 '가던 새(갈던 밭)'가 있는 곳으로, 청산과 대비되는 속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믈 아래 가던 새 본다'로 보아, 화자가 아직도 속세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밤'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어서 화자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하는 시간이므로, 화자에게는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바**ᄅᆞᆯ**'은 속세와 대립되는 공간으로, 절대적 고독과 비극적 운명으로 힘들어하던 화자가 새롭게 찾는 이상향이나 도피처라고 할 수 있다.

03 [시어 및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④

'**ᄆᆡ**리도 괴리도 업시'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라는 의미로, 이어지는 '마자셔 우니로라'와 같이 해석하면 돌을 맞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맞아서 울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는 화자가 돌을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멀위랑 **ᄃᆞ**래' 즉 '머루랑 다래'는 화자가 청산에서 살기 위해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화자의 소박한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얄리얄리 얄랑(라)셩 얄라리 얄라'는 각 연에 반복되는 후렴구로, 주로 'ㄹ', 'ㅇ' 음을 사용하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며 음악성을 부여하고 있다.

③ '**ᄯᅩ** 엇디호리라'는 '또 어찌하리오'의 의미로, 외롭고 고독하게 있어야 할 밤은 또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즉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과 비탄을 드러낸 것이다.

⑤ '**ᄂᆞᄆᆞ**자기 구조개'는 화자가 지향하는 '바**ᄅᆞᆯ**'에서 살기 위해 먹어야 할 양식인데, 이는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 아니므로, '바**ᄅᆞᆯ**'에서의 삶이 풍족하거나 안락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오리도 가리도 업슨'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의 의미로, 화자를 유랑민으로 볼 때 고독하고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이 여기저기 방랑하는 신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청**산'과 '바**ᄅᆞᆯ**'은 화자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화자를 좌절한 지식인으로 볼 때 속세에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는 지식인이 은둔하고자 하는 자연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시름 한'은 '근심, 걱정이 많은'의 의미로, 화자를 유랑민으로 볼 때 그 걱정은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아갈 일에 대한 근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막막함을 의미한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③ 화자를 실연당한 사람으로 볼 때 '가던 새'는 '날아가던 새'의 의미로, 새는 이별한 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⑤ '마자셔 우니노라'는 '(돌에) 맞아서 울고 있노라'의 의미로, 화자를 실연당한 사람으로 볼 때 '돌'은 임과의 이별을 의미하며 돌(이별)에 맞아서 울고 있는 화자는 슬퍼하면서 체념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임과의 이별을 비극적 운명으로 인식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05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5연에서 화자는 '돌'에 맞아서 울고 있는데 이때 '돌'은 화자가 피할 수 없는 것 즉 비극적 운명을 의미하므로 화자의 비애감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8연의 '강수'는 화자가 마실 수밖에 없는 술로 현실의 고뇌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5연에서 '돌'이 화자의 성찰을 유발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8연의 '강수'는 화자의 고뇌를 잠시 잊게 해 주는 수단일 뿐 슬픔을 심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② 8연의 '강수'는 화자의 현실에서의 괴로움을 잠시 잊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연에서 화자는 '돌'에 맞아서 울고 있으므로 '돌'이 화자의 자긍심을 유발한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5연에서 '돌'이 화자의 그리움을 유발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8연의 '강수'는 화자의 고뇌를 잠시 잊게 해 줄 뿐,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소재는 아니다.

⑤ 5연의 '돌'이 화자의 원망을 유발하는 소재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8연의 '강수'는 화자에게 현실의 고뇌를 잠시 잊게 해 줄 뿐, 화자가 현실에 적응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06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2연의 '우러라'를 '노래하다'로 해석할 경우,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는 '너보다 근심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노라'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너를 원망하는 나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고통을 낙천적으로 해소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없다.

[오답 풀이]

① '살어리랏다'를 '살고 싶구나'로 해석할 경우, 이는 청산에 살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므로 화자는 현재 청산에 살고 있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살어리랏다'를 '살고 싶구나'로 해석한다면, 화자는 청산에 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을 동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② '살아야만 하는구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살아야 한다는 한탄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청산에 살고 있고, '살어리랏다'를 '살아야만 하는구나'로 본다면, 화자가 괴롭지만 청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한탄을 표현한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③ 화자가 자신이 괴롭고 근심 걱정이 많아서 울고 지내는 것처럼 새도 근심 걱정이 많아서 울고 있다고 표현한 것에서 2연의 '새'는 화자의 분신이며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연에 등장하는 '새'를 화자의 분신, '우러라'를 '우는구나'로 본다면, 화자가 울고 있는 새를 보며 새처럼 울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한 감상은 적절하다.

⑤ 화자를 유랑민으로 보면 3연의 '가던 새'는 화자가 과거에 갈던 사래(밭)를 의미하고, '잉 무든 장글란'은 이끼 묻은 쟁기를, '가던 새 본다'는 자신이 갈던 사래를 보며 아직도 속세의 삶에 미련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연의 '가던 새'는 '갈던 사래(밭)'의 뜻이며 '녹슨 연장을 가지고 갈던 밭을 본다'로 풀이하여 옛 생활에 대한 미련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고 한 감상은 적절하다.

07 [작품의 구조적 특징 파악]

이 시는 1연과 6연, 2연과 5연, 3연과 7연, 4연과 8연이 대응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5연과 6연의 순서를 맞바꾸면 전반부의 '청산 노래'와 후반부의 '바다 노래'가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게 된다.

08 [화자의 정서 파악]

7연에서 사슴을 진짜 사슴으로 보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므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슴을 가면을 쓴 광대로 보는 경우는, 화자가 광대의 연주를 들으며 자신이 처한 삶의 괴로움을 잊고 싶은 심정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0강 한림별곡

본문 178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④ **05.** ④ **06.** ① **07.** ⑤ **08.** ③ **09.** ③ **10.** 사대부들에 대한 자긍심과 그들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사대부들이 지닌 문재와 학문적 능력을 나타내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01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 ③**

이 글의 화자는 자신과 같은 부류인 사대부 문인들에 대한 자긍심과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쉬움의 정서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이 글 전반에서 화자는 사대부 문인들의 재능과 학문적 능력 등에 대한 만족감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경 긔 엇더ᄒᆞ니잇고'와 같은 표현을 통해 과시하고 있다.

⑤ 이 글 전반에서 화자는 사대부 문인들의 모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02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 ③**

이 글의 화자는 사대부 문인들의 문재와 학문적 능력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화자는 자신과 시적 대상 간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 화자가 과거의 모습을 회상한 부분과 무상감을 드러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글에서 화자가 시적 대상의 무리에 합류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글의 〈제1장〉, 〈제2장〉, 〈제8장〉에는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현실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이 동경하는 이상향의 세계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표현인 '홍실'이 〈제8장〉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이 글의 모든 장에서 '경 긔 엇더ᄒᆞ니잇고'라는 설의적 표현이 반복되며 사대부들에 대한 자긍심과 예찬 등 장면을 통해 말하고자 한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

② 〈제1장〉과 〈제2장〉의 1~3행에는 유사한 성격의 대상이 열거되어 있다.

③ 이 글은 3·3·4조의 음수율과 3음보의 율격이 반복되어 사용됨으로써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04 [작품의 의도 파악] **정답 ④**

이 글을 창작하고 향유한 계층은 당대 사대부들로, 〈제1장〉, 〈제2장〉에는 사대부들의 문벌과 능력, 학문 수련에 대한 자긍심이 나타나 있으며, 〈제8장〉에는 풍류를 즐기는 유생들의 즐거운 모습이 나타나 있다.

05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④**

이 글의 〈제8장〉에는 '혀고시라 밀오시라', '내 가논 ᄃᆡ ᄂᆞᆷ 갈 셰라'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제1장〉이나 〈제2장〉에서와 달리 우리말 표현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제1장〉에는 사대부 문인들이 글을 쓰는 문재가, 〈제2장〉에도 사대부 문인들이 유학 서적을 읽고 학문을 연구하는 능력이 제시되어 있다.

② 〈제1장〉에는 '금ᄒᆞᆨᄉᆞ의 옥슌문ᄉᆡᆼ'이, 〈제8장〉에도 '샥옥셤셤 쇽슈ㅅ길헤'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제2장〉은 사대부 문인들의 실제 이름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드러나며, 〈제8장〉에도 사대부 유생들이 그네를 타고 즐기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⑤ 이 글에는 4음보의 율격이 아닌 3음보의 율격이 사용되고 있다.

06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①**

'경 긔 엇더ᄒᆞ니잇고'는 '(시험장의)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라는 의미로 설의법을 사용해 사대부의 자긍심을 드러낸 표현이다. 뒤에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열된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제1장〉, 〈제2장〉, 〈제8장〉 모두에서 ㉠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글의 갈래는 경기체가로, ㉠에 사용된 음운의 일부인 '경 긔~'를 활용하여 갈래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④, ⑤ ㉠을 통해 화자는 사대부 문인들에 대한 자긍심과 예찬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7 [시구의 기능 파악] **정답 ⑤**

이 글에는 3·3·4조의 음수율과 3음보의 율격이 사용되고 있다. '당당당'은 시행의 첫 음보를 3자로 맞추기 위해, 뒤에 이어지는 '당추자'의 '당'을 3번 반복하여 제시한 것이다.

08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③**

〈제2장〉에서 화자는 사대부들이 유명한 유교 서적들을 주석까지 읽으며 공부하는 학문적 능력과 태도를 예찬하고 있다. 그러므로 퇴계가 시적 대상들이 유학 서적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경 긔 엇더ᄒᆞ니잇고'는 화자가 사대부 문인들의 모습을 예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그들에 대한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화자의 자세는 퇴계에게 교만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제1장〉에서 화자는 사대부 문인들의 글을 열거하며 그들의 뛰어남을 예찬하고 이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퇴계에게 이러한 행동은 방탕하고 교만해 군자의 행동으로서는 부적절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제8장〉에서 사대부 유생들이 붉은 그네를 뛰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은 퇴계의 입장에서 방탕한 행동이라고 느껴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시적 대상에 대한 과시와 지나친 자긍심을 드러낸 「한림별곡」과 같은 작품들이 더 존재했기 때문에, 퇴계가 '「한림별곡」과 같은 유'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09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③**

이 글의 〈제1장〉에서는 이름난 문필들의 글과 글씨, 〈제2장〉에서는 사대부들이 읽는 유명한 책을 나열하며 감탄의 근거로 삼고 있다. 〈보기〉에서도 '도자전 마로저재 금은보패 놓였구나'라며 비녀, 가락지, 장도의 종류를 나열하며 감탄의 근거로 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한양이라는 특정 지역의 문물을 다루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특정 지역의 문물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는 '경 긔 엇더ᄒᆞ니잇고'의 설의적 표현을 활용해 사대부의 문벌, 학문 수련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④ 이 글에는 학문적 경지에 대한 자부심과 풍류를 즐기는 모습에 대한 만족감이 나타나 있으나 〈보기〉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⑤ 이 글에서 대립적 소재를 활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보기〉에서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10 [시적 표현의 효과와 의도 파악]

이 글의 〈제1장〉과 〈제2장〉의 주제는 '사대부 문인들의 문재와 학문적 능력에 대한 자긍심과 과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1장〉에서 사대부 문인들의 글을 열거한 것, 〈제2장〉에서 사대부 문인들이 학문 수양의 과정에서 읽는 이름난 서적들을 열거한 것은 이러한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1강 용비어천가

본문 182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④ **05.** ② **06.** ⑤ **07.** ④
08. 중국의 사적을 제시하고 이를 조선 6대조의 행적과 비교하여 두 행적이 유사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01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⑤**

이 글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송축하기 위한 의도로 창작된 작품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훈민정음으로 창작된 첫 번째 작품이다.
② 이 글은 일정한 음보와 음수율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조선 왕조에 대한 송축과 조선 6대조에 대한 예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으로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에서는 조선 건국의 과정이나 6대조의 위업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 고려 왕조가 패망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02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④**

(가)에서는 의문의 형식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동일한 어미 '~시니'로 시행을 마무리하고 있다.
② '해동'은 우리나라를 뜻하는 말이며, '육룡'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에 이르는 조선 6대조를 의미한다.
③ '고성'은 오래전 성인을 뜻하는 말로, (가)에서는 중국의 옛 성인들을 의미한다.
⑤ (가)에서는 중국의 옛 성인과 조선 6대조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곶'과 '내'는 모두 조선이 번창하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시어이지 조선 창업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시어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뿌리가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모두 '바람'과 '가뭄'과 같은 시련에도 휘거나 그치지 않고 그 명맥을 이어 가는 것으로, 기초가 굳건한 조선 왕조를 상징한다.
⑤ '열매'가 많고, '내'가 '바다'에 이르는 것은 모두 번성하는 자연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나)~(라)는 모두 전절과 후절에서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하여 대구를 이루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라)에서는 의도적으로 어순을 도치시킨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나)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③ (다)~(라)에서 미래를 예측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나)~(라)에서 명사형 종결을 통해 시적 여운을 형성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05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②**

(다), (라) 모두 전절에는 중국의 사적을 제시하고 후절에서는 이와 유사한 조선 6대조의 사적을 제시함으로써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후절에서는 조선 6대조의 사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후절에 지양해야 할 대상을 제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전절과 후절의 공통점을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④ (다)는 태조가 아닌 익조의 사적을 언급한 것이다.
⑤ (다), (라)의 전절에서는 중국의 사적을 제시하고 있다.

06 [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나)에서는 조선 6대조의 위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다), (라)에서는 조선 6대조의 위업과 중국의 사적 간의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을 뿐 조선 6대조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천복이시니', (다)의 '하ᄂᆞᆯ ᄠᅳ디시니'를 통해 조선 건국이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의 '여름 하ᄂᆞ니', '바ᄅᆞ래 가ᄂᆞ니', (바)의 '복년이 ᄀᆞᆮ업스시니'를 통해 조선의 무궁한 번영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다), (라)에서는 전절에 중국의 사적을 제시하고, 후절에 이와 유사한 조선 6대조의 행적을 제시함으로써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마)에서는 '민천지심', (바)에서는 '경천근민'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여 후대 임금이 백성을 위하며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마)의 '강시'는 길 위에 있는 죽은 백성의 시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시어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민막'을 모르면 하늘이 버린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바)에서는 설의법을 통해 중국의 태강왕이 할아버지의 덕만 믿고 산행에 정신이 팔려 국정을 살피지 않다가 폐위된 사실을 언급하며 후대 임금에게 권계하고 있다.
③ (마)에서는 '민천지심', (바)에서는 '경천근민'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여 후대 임금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⑤ (마)의 '마ᄅᆞ쇼셔'와 (바)의 '아ᄅᆞ쇼셔'는 모두 아주 높임의 명령형 어미가 사용된 것으로 후대 임금에 대한 강력한 권계를 나타낸다.

08 [표현의 효과와 의도 파악]

조선 창업 당시 이 글에 제시된 중국의 사적들은 건국, 역사, 사회, 정치의 모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조선 6대조가

이러한 중국의 사적과 유사한 행적을 보이거나 위업을 달성하는 것은 곧 바람직하고 바른 것으로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V 민요·잡가

42강

잠 노래 | 초부가

본문 189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과 ㉡은 모두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대상이다. 이처럼 화자와 상반된 성격을 가진 대상을 대비하면 화자의 부정적 상황과 처지가 부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01 [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④**

(가)에는 밤늦은 시간까지 바느질을 해야 하는 가난한 여인의 삶의 애환이 드러나 있고, (나)에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나무꾼의 삶의 애환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나) 모두 시간의 역전적 흐름을 통한 시상 전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 (나) 모두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 (나) 모두 선명한 색채 대비가 나타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가), (나) 모두 대상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고통과 슬픔이 제시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가)에는 명령형 어미와 의문형 어미 등이 사용되었지만 청유형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 4행에서 민요에 자주 사용되는 a–a–b–a 구조의 문장이 사용되어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는 '잠'이 의인화되어 있으며, 화자는 이와 같이 의인화된 '잠'에 대해 원망스러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에는 4음보와 3·4, 4·4의 음수율이 일정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악성과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가)에는 주야에 한가하여 빈둥거리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람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여 화자의 고단한 삶과 애환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3 [시상 전개 과정 파악] **정답 ⑤**

[B]에서는 '버선짝', '토시짝', '털먹신' 등 짝이 있는 물건을 열거하며 화자의 애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A]와 [C]에는 화자의 신세에 대한 한탄만 나타날 뿐, 짝이 있는 물건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A]~[C] 모두 짝이 있는 물건을 열거하며 화자의 애상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화자는 '지게 목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크고 넓은 집에 살면서 만 석의 녹봉을 받으며 살아간다. 화자는 이런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② [B]에서 '항상 지게는 못 면하고 남의 집도 못 면하고', '버선짝도 짝이 있고', '토시짝도 짝이 있고'와 같이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여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③ [C]에서 화자는 기구한 자신의 신세를 벗어날 기약은 없지만 그럼에도 나뭇짐을 지고 산을 내려가야 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④ [A], [C]에 '이히후후 에헤', '이히후후'와 같은 의성어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성어의 사용을 통해 화자의 정서에 생동감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나)에서 화자가 나무를 하러 가자고 한 것은, 불행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화자를 도와주지 않으며,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무를 하러 가자는 화자의 제안은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가)의 여인은 늦은 밤에도 바느질을 해야 하는 처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나무꾼은 나무를 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어려운 처지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여인은 생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바느질을 해야 하지만, 잠이 찾아와 바느질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잠은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를 더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열거와 대구의 방식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팔자를 '더런 놈의 팔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②**

ⓐ의 '기러기'는 화자가 의인화한 대상으로 '너도 또한 임을 잃고 임 찾아서 가는 길가'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자신과 같이 외로운 처지에 있는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와 '기러기'는 모두 외로운 처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 대상이다.

③ '기러기'는 외로운 자연물이므로,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를 상징하는 존재로 보기 어렵다.

④ '기러기'는 화자가 생활 주변에서 자주 마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비현실적인 존재가 아니다.

⑤ '기러기'가 화자에게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기러기'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기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06 [시구의 기능과 효과 파악]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속성 등을 상반된 대상이나 속성과 병치하거나 대비하면,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속성이 부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3강

정선 아리랑 | 유산가

본문 193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④ **05.** ⑤ **06.** (가)에서 음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요소로는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각 연마다 후렴구 이외의 부분에서 4음보의 일정한 운율이 반복되는 것도 음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01 [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 ⑤**

(가)는 민요이고, (나)는 잡가로 두 작품 모두 민중의 정서를 반영하여 민중들에게 널리 향유되고 불린 노래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는 정선 지역의 민중들에 의해 창작되고 구전되며 불린 민요이다. 그러므로 (가)가 (나)에 비해 학식이 뛰어난 지배 계층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와 풍류를 제시한 작품으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는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화자의 심리 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⑤**

(가)에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지만, 이 후렴구는 시적 의미와는 관계없이 음악성을 높이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는 강원도 정선 지역의 민중들의 정서와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민요이다.

③ (가)는 각 연마다 완결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인 시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④ (가)는 산, 해당화, 두견새, 동백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가)의 4연에서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 쌓이기라도 하여 함께할 수 있지만 화자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지 못한 임이 그리워 못 살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떨어진 동박'은 임이 부재한 화자의 심리가 이입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정선 아리랑의 창작 배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동백을 따러 가기로 했던 총각과 처녀의 약속이 실현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 작품의 창작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3연의 화자는 〈보기〉에 제시된 총각이나 처녀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처녀와 총각은 올동백을 따러 가자고 약속했으므로, 그들의 약속이 실현되기 전에 동백이 떨어지는 것은 그들이 바라지 않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강물이 비로 인해 불어 배가 뜨지 못해 총각과 처녀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3연의 화자가 사공에게 배를 건네 달라고 요청한 것은 올동백을 따러 가자는 총각과 처녀 사이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올동백을 함께 따러 가자고 했던 총각과 처녀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간밤에 내린 비로 인해 배가 뜨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④**

(나)의 [A]에는 7언으로 된 한시 양식을 통해 아름다운 봄 산의 시각적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B]에는 우리말로 된 음성 상징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여 주로 청각적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는 대상이 지닌 과거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② [B]에서 특정 음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A], [B] 모두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정서가 드러나 있다. 또한 [B]에도 자연물의 외형적 묘사가 드러나 있다.

⑤ [B]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A]에는 음성 상징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05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⑤**

㉠은 화자가 고달픈 삶 속에서 '정선'의 옛 지명을 언급한 것으로, 현재의 화자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화자가 있는 아름다운 봄 산을 일컬어 말한 것으로 화자가 직접 경험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화자가 삶을 살아가는 깨달음을 얻는 공간은 아니다.

②, ③ ㉠을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세계라고 볼 수 없으며, ㉡은 아름다운 봄 산의 모습을 지칭하는 것으로, 화자 자신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을 통해 이룩한 세계라고 볼 수 없다.

④ ㉠은 화자의 괴로움의 정서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고, ㉡도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공간은 아니다.

06 [문학적 전통과 의미 파악]

동일한 음운, 문장, 어미, 음수율, 음보 등의 반복은 작품의 음악성과 리듬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VI 향가·고대 가요

44강 헌화가 | 처용가

본문 198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③ **05.** ① **06.** ④ **07.** ③
08. 역신이 아내를 침범한 상황 **09.** 화자는 역신이 자신의 아내를 범한 상황에 대하여 체념하고 관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 화자는 아내를 범한 역신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관용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01 [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 ③**

(가)는 4구체 향가이고, (나)는 8구체 향가이다. 향가는 신라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에 창작된 작품으로, 우리의 문자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국어의 어순대로 적은 표기법인 향찰에 의해 기록된 문학 갈래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고려 가요 「처용가」와 탈춤 「처용무」 등으로 다양하게 개작되었지만, (가)는 다른 장르의 작품으로 개작되지 않았다.

② (나)는 (가)와 달리 민중의 소박하고 보편적인 미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볼 수 없다.

④ (가), (나) 모두 비유와 상징보다는 직설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의 배경 설화는 이미 존재하는 작품에 대하여 창작되기까지의 과정, 창작 동기, 창작 당시의 상황 등을 소개하고 있다. (나)의 배경 설화에는 처용의 모습을 그려 문에 붙이게 되었다는 후일담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의 배경 설화에서 작품이 창작되고 난 뒤의 일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없다.

02 [화자의 상황과 태도 파악] **정답 ②**

(가)의 화자는 사모하는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락을 구하고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가 대상과 함께할 미래를 떠올린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에서도 화자와 대상이 함께했던 과거가 제시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③ (나)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회한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⑤ (가), (나)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 변화나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에서 수로 부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상황을 가정한 뒤, 그에 따른 자신의 행동,

즉 꽃을 꺾어 바치겠다고 예고함으로써 화자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③**

화자가 끌고 가던 '소'는 화자의 신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소'를 화자의 분신이자 수로 부인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자연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수로 부인은 강릉 태수가 된 순정공의 아내이며, 화자는 소를 끌던 노인이므로, 이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가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화자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정도로 꺾기 힘든 벼랑의 꽃을 꺾어 바쳤으므로 담대한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수로 부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보아 희생 정신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⑤ 화자는 수로 부인에 대한 순정과 흠모를 바탕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벼랑에 핀 꽃을 꺾어 바친 인물이다.

05 [중심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①**

(가)의 '꽃'은 화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꺾어 바치려 한 사물로 수로 부인에 대한 화자의 순정과 흠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⑤ '꽃'은 수로 부인이 꺾어다 주기를 바란 것으로 화자가 수로 부인에 대한 흠모의 정을 갖게 된 계기나, 수로 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징표로 볼 수 없다.

③ 대상인 수로 부인이 '꽃'을 꺾어다 주기를 바란 것은 맞지만, 수로 부인이 화자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④ 화자와 수로 부인이 과거를 함께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6 [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둘은 누구핸고'라는 표현은 '네 개의 다리 중 둘은 아내의 것이지만, 나머지 둘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처용이 자신의 아내를 범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구의 '동경'과 '밝은 달'을 통해 경주에 달이 떠 있는 밤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②, ③ 처용은 '다리가 넷'이라고 하면서, '둘은 내해' 즉 둘은 자신의 아내의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리가 넷'이라는 표현을 통해 처용의 아내를 누군가가 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본디 내해'라는 것은 원래 자신의 것이라는 의미로, 이는 아내가 본래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7 [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보기〉에서는 처용이 역신에게 관용을 베풀자, 역신이 그 은혜를 생각하여 처용이 있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역병을 막기 위해 처용의 초상을 붙여 두는 풍습이 생겼고 악귀를 쫓기 위해 「처용가」를 불렀다고 하였다. 따라서 처용이 역신에게 베푼 관용이 결국 「처용가」가 주술적 효과를 얻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역신이 악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역신이 곧 쫓아내려는 악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처용의 초상을 붙여 두는 풍습은 역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처용처럼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④ 처용의 화상을 붙여 두면 역병이 번지지 않는다는 풍습이 생긴 것은 처용이 역신에게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이지, 처용이 '다리 넷'을 발견했기 때문은 아니다.

⑤ 향가 「처용가」가 고려 가요로 계승·발전된 것은 악귀를 쫓기 위해서이지 관용의 태도를 중시했기 때문이 아니다.

08 [작품의 비교 감상]

이 글의 일부가 〈보기〉에 그대로 삽입되면서 역신이 아내를 침범한 상황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는 역신에 대한 처용의 관용적 태도가 나타나지만 〈보기〉에는 역신에 대한 처용의 분노의 태도가 '열병신을 날 잡아 주소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09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

화자는 ㉡에서 '이미 빼앗은 것(아내)을 어찌하리오'라는 말을 하며 역신에 대한 분노와 공격의 태도가 아닌 관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45강 제망매가 | 찬기파랑가

본문 202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③ **05.** ⑤ **06.** ⑤ **07.** ④ **08.** ② **09.** ③ **10.** ⑤ **11.** 10구체 향가로서 (가)와 (나) 모두 낙구에 감탄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낙구의 감탄사)은 시상을 집약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기능을 한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⑤**

(가)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정서가, (나)에는 '기파랑'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화자와 시적 대상이 함께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가)에는 '한 가지'라는 비유적 표현에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가 드러나 있지만, (나)에는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가)에는 시적 대상에 대한 추모의 정서는 드러나고 있으나 예찬의 정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가)에는 화자가 시적 대상과 '미타찰'에서 재회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지만, (나)에는 기파랑과 재회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02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 **정답 ④**

(가)에서 '한 가지'는 화자와 시적 대상이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혈육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단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단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물음의 형식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가)에서는 '떨어질 잎'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시적 대상의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 상징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③ (가)에는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나)에서는 '물', '수풀', '잣나무 가지' 등의 자연물을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표현되어 있다.

⑤ (가)는 부재한 시적 대상인 '누이'를 '떨어질 잎'에, (나)는 부재한 시적 대상인 '기파랑'을 '달', '물가', '수풀', '잣나무 가지' 등의 자연물에 빗대어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③**

(가)는 비유와 상징이 두드러질 뿐, 반어와 역설의 표현법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 지은 작품이다.

② (가)와 관련하여 작품이 창작된 계기와 작가인 월명사에 대한 설화가 전해 오고 있다.

④ (가)는 10구체 향가이며, 향가는 한자를 이용해 우리말을 표현한 향찰로 표기되어 있다.

⑤ (가)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떨어질 잎', '한 가지' 등의 비유와 상징을 이용해 표현하고 있다.

04 [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가)에서 화자는 누이를 '떨어질 잎'으로 표현하는 한편 화자 자신과 누이가 '한 가지'에서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는 화자와 누이의 관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누이의 말을 인용하여 화자가 위안을 얻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는 간다'는 누이의 실제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며, 이 표현을 제시하면서 화자가 얻은 감정도 위안이 아니라 슬픔과 허무감이다.

② (가)에서 누이의 죽음이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화자가 누이의 죽음을 통해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얻고 있지는 않다. (가)에서의 깨달음은 누이의 죽음을 통한 인생무상의 감정을 극복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다.

④ (가)의 화자는 종교적인 힘을 통해 누이와 재회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이겨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화자가 누이와의 추억을 회상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5 [시어와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⑤**

'미타찰'은 불교의 극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와 누이가 함께 동경했던 이상향의 세계가 아니라 화자가 죽은 누이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여기는 공간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죽은 누이가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맥락 속에서 제시된 시어로,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②, ③ (가)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자연물과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이른 바람'은 누이가 어린 나이에 요절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빗대어 표현한 시구이다.

④ 죽은 이를 뜻하는 '떨어질 잎'과 화자 자신이 '한 가지'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한 가지'는 화자와 죽은 이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06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 **정답 ⑤**

〈보기 2〉에서는 명사형으로 종결된 시행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는 화자의 시적 대상인 '누이'의 죽음을 '떨어질 잎'이라는 자연물에, 〈보기 2〉는 시적 대상인 아들의 죽음을 '산새'라는 자연물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② (가)는 '미타찰'이라는 시어를 통해 누이의 죽음을 불교적으로 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기 2〉에서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③ (가)에서는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라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 2〉에서는 물음의 형식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④ (가)는 9~10행에서, 〈보기 2〉는 마지막 행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07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 ④**

(나)의 화자는 '기파랑'의 죽음에 대해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파랑'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 (나)의 화자는 '기파랑'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추모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만족감이나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8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나)에서 화자는 '기파랑'의 마음을 좇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낙구에서 감탄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④ '달'과 '물', '잣나무 가지' 등의 자연물을 통해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 지조, 절개 등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예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수풀이여', '고깔이여'에서 감탄의 뜻이 포함된 호격 조사를 통해 고조된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9 [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 ③**

(나)뿐만이 아니라 〈보기〉도 마지막 구에서 시적 대상을 부르는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와 〈보기〉의 '잣나무'는 '소나무'처럼 곧게 뻗은 푸른 침엽수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그러므로 '잣나무 가지'는 시적 대상인 기파랑의 인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나)는 '물가'의 '수풀'에서, 〈보기〉는 '새파란 냇물'에서 기파랑의 모습이 환기되고 있다.

④ 〈보기〉에서는 '조약돌'을 언급하며 원만한 기파랑의 인품을 좇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에는 냇가의 '조약돌'이 등장하지 않는다.

⑤ 〈보기〉의 3구 '흰 구름 좇아 떠가는 것 아니냐'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설의법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10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나)의 '달'은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적 대상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암울한 정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달'은 밤하늘에서 빛이 나는 것으로 화자의 암울한 정서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한 가지'에서 나온 '잎'은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가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혈육임을 의미한다.

② (가)의 '잎'은 '이른 바람'으로 인해 떨구어진 것이므로, 이때 '바람'은 시적 대상의 죽음을 표현하기 위한 자연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수풀'은 물과 어울려서 깨끗하고 푸른 이미지를 가진 자연물로, 이는 시적 대상이 지닌 깨끗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을 예찬하며 '눈'이 덮지 못할 '고깔'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때 '눈'은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눈'은 차가운 속성을 지닌 자연물로서 역경과 시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 [갈래상의 특성 파악]

향가는 4, 8, 10구체가 있으며, 그중에서 10구체 향가는 가장 완성된 형태의 향가로 평가되고 있다. 10구체 향가는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 시상을 집약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특징이 있다.

46강

공무도하가 | 구지가

본문 206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② **05.** ⑤

01 [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 ①**

(나)에는 '거북'이 청자로 설정되어 있지만, (가)의 경우 1구만 청자가 '임'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구는 특정한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가)는 화자가 사랑하던 임의 죽음으로 인해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개인적 서정시의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배경 설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집단적 가창이 이루어졌던 노래이다.

③ (가)는 개인적 정서를 드러낸 작품이지만, (나)는 노래를 통해 집단의 우두머리가 출현하기를 소망했다는 점에서 주술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상고 시대의 가요로, 처음에는 기록 수단이 없어 구전되다가 이후 한자로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하게 된 작품이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관련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하고 있다.

02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 **정답 ③**

(가)의 1구에는 임이 물을 건너기 전에 임이 물을 건너는 것을 만류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또 2구와 3구에는 임이 물을 건너 죽음에 이르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4구에는 임이 죽은 후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가)에는 임의 죽음과 관련한 전후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가)에는 임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을 뿐 임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에 죽은 임과 재회하려는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에 가상의 상황이 드러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3 [시어의 상징적 의미 파악] **정답 ④**

(가)의 1, 2, 3구에서 임은 '물'을 건너다 죽음으로써 삶의 세계에 있는 화자와 이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을 삶과 죽음의 세계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자연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구에서 화자는 사랑하는 임이 '물'을 건너는 것을 만류하고 있으므로, 이때 '물'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보여 주는 계기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2구에서 '물'을 건너는 임의 행위는 곧 화자의 사랑에서 벗어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이때 '물'을 건너는 행위는 곧 화자와 임의 이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3구에서 임이 '물에 빠져 죽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때 '물'은 곧 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배경 설화에 따르면 백수 광부의 아내는 임이 죽자 곧 따라 죽었다. 이때 '물'은 화자와 임이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만나도록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4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②**

(나)에서 자연물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비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구에서 '거북아'라는 부름을 반복하여 시적 대상이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2구에서는 명령이, 4구에서는 위협이 나타나며 임금의 출현에 대한 창자의 소망을 주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⑤ (나)는 집단적 가창을 통해 집단의 우두머리가 출현하기를 주술적으로 기원했던 노래이다.

05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4구에 등장하는 '구워 먹으리'는 소원 성취를 위한 주술적 성격을 보여 줄 뿐 농사와 같은 노동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농민들의 동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보기〉에서 (나)가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해 부른 영신군가'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거북'에게 '머리'를 내밀라는 (나)의 내용은 주술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나)는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한 노래이자 노동요라고 하였으므로, (나)가 집단적으로 불렸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흙을 파는 행위는 농경의 행위로서, 이 노래가 이러한 행위와 함께 불렸다는 〈보기〉의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노동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한 노동요였음을 알 수 있다.

47강 황조가 | 정읍사

본문 209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③ **05.** ⑤ **06.** 시조 / 정리된 구절의 형식이 시조의 3장 6구 형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01 [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 ④**

(가)는 '외로워라'에서 화자의 정서가 담긴 직설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나)에는 '드**딕**욜셰라', '졈그롤셰라'와 같은 직설적 표현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고려 가요집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한자가 아닌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작품이다.
② (가), (나) 모두에서 시간의 역전을 통한 시상 전개 양상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가), (나) 모두 개인의 서정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작품으로 집단적인 가창이 이루어졌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는 음악성을 띠고 의미는 없는 후렴구가 사용되고 있지만, (가)에서는 후렴구의 사용을 찾아볼 수 없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가)에서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구에서 '펄펄'이라는 의태어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상인 꾀꼬리의 역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② 1, 2구는 꾀꼬리의 모습(선경)을, 3, 4구는 화자의 정서(후정)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암수 서로 정답게 노는 꾀꼬리와,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가 대비되며 주제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⑤ 4구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3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③**

'암수 서로 정답'게 노닐고 있는 '꾀꼬리'는 사랑하는 임이 떠나 버린 화자의 처지와 상반되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꾀꼬리'는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므로, '꾀꼬리'를 화자가 회피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꾀꼬리'는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놓인 자연물이므로 화자의 심리 상태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가)에서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④ '꾀꼬리'를 화자가 숭상하고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꾀꼬리'가 화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다.
⑤ '꾀꼬리'가 화자로 하여금 과거의 일을 성찰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0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③**

(나)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인 '**돌**'에게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을 뿐 '**돌**'과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 2구에서 자연물인 '**돌**'을 인격화하여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② 후렴구 '어긔야 어**강**됴리 / 아으 다**롱**디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음악성을 높이고 있다.
④ 밝은 빛을 내는 '**돌**'과 어둡고 위험한 곳을 뜻하는 '즌 **ᄃᆡ**'를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제시하여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일까 두렵다'의 의미를 지닌 '-ㄹ셰라'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남편에 대해 염려하는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05 [시어 및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⑤**

'졈그롤셰라'는 '날이 저물까 두렵다'라는 의미로 화자의 정서

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드러내기 위한 역설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돌**'은 화자가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대상이다.

② '-곰'은 강조의 의미를 지닌 접미사로, '머리곰'은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투영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져재'는 '시장에'라는 의미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곧 행상인이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어이다.

④ '즌 ᄃᆡ'는 사전적 의미로는 '진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에게는 '위험한 곳'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06 [형식상 특징 파악]

(나)에서 여음구와 후렴구를 제외하면 초장, 중장, 종장의 3장과 6개의 구로 이루어진 시조와 그 형식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Ⅶ 복합

48강

남은 다 쟈는 밤에 | 장상사 | 상사곡

본문 215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④ **05.** ① **06.** ② **07.** ③ **08.** ④ **09.** (나)의 '꿈속'은 화자와 '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인 데 반해, 〈보기〉의 '**쑴**'은 화자가 '임'을 잠깐이나마 볼 수 있었던 공간이다. **10.** (1) 반쪽 거울 (2)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

01 [시적 상황의 파악] **정답 ②**

(가)의 화자는 '외로운 **쑴**'이라고 하면서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을 뿐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ᄂᆡ** 어이 홀로 **ᄭᅵ**야'를 통해 화자가 '나(ᄂᆞ)'로 표면에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임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천 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④ 화자는 '남은 다 쟈는 밤'에 '옥장 깊푼 곳'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⑤ 화자는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자신만 홀로 깨어 임을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02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 **정답 ⑤**

(나)의 화자가 '꿈속에서도 요산 남쪽 건너지 못하였'다고 한 것은 꿈에서도 임을 만나지 못한 화자의 슬픔과 애타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화자가 '이 마음의 응어리 어느 때나 고칠까'라고 한 것에서 화자는 이별로 인한 슬픔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화자는 자신의 심적 고통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② (나)의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이 '하늘 모퉁이'에 있다고 한 것에서 화자는 임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임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홀로 앉아 공후를 연주하는데, 공후 소리가 '하소연하는 듯 흐느끼는 듯'하여 비단 적삼이 젖는 줄도 모를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즉 화자의 슬픔은 '공후'를 연주하고 나서도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④ (나)에서 화자는 '밝은 달'이 되어 '임의 창문 휘장'을 뚫고 비춰 들고 싶다고 하였다. 즉 화자는 달이 되어 임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03 [시적 상황의 파악] **정답 ②**

(나)에서 화자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심적 고통을 표출하며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견강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라는 뜻이므로 (나)의 화자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구곡간장'은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의 심적 고통을 표현하는 말로 적절하다.

③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로 적절하다.

④ '전전반측'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으로, 임을 그리워하며 애태우는 화자의 마음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⑤ '학수고대'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으로, 임과 재회하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상황을 잘 나타낸다.

04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④**

(다)에서 화자는 임과의 이별 때문에 고통과 근심이 불과 같고, 눈물이 장마같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전장'은 마음속에 불과 같은 근심이 일고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화자는 '수화상극'이라는 말도 거짓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수화상극'은 물과 불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거짓이 되어 화자의 몸 안에 물과 불이 모두 있어 화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전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전장'은 '수화상극'인 상황이 아니라 '수화상극'이 아닌 상황이다.

② '전장'은 임과 이별한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전장'이 임을 '사라셔 못 보'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을 '사라셔 못 보'는 것이 '전장'의 이유가 된다.

③ '전장'은 '이 비'가 '뎌 블'을 끄지 못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⑤ '전장'은 '수인씨'에 대한 원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임과의 이별로 인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05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셟다 셟다 ᄒᆞᆫᄃᆞᆯ 우리ᄆᆞ티 셜울런가', '몃 삼월을 디내연고', '진토이 되다 니ᄌᆞᆯ소냐', '니친 ᄒᆞᆯ니 이실소냐' 등은 의문형 어미를 통해 이별로 인한 화자의 서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24행에 '**징징**'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6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에서 '**쑴**'은 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천 리 예', '외로운', '오락가락 ᄒᆞ노라' 등으로 볼 때 ㉡은 '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자의 '**쑴**'을 통해 화자가 먼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남은 다 쟈는'의 '남'의 상황과 '**ᄂᆡ** 어이 홀로 **ᄭᅦ**야'의 '나', 즉 화자의 대비되는 상황을 통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의 '돗자리'와 '돌'은 각각 '말아 두고', '굴러 낼 수 있'지만, '이 마음의 응어리'는 고칠 수 없다고 한 표현에서 '돗자리'와 '돌'은 화자의 마음과 대비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응어리'는 화자의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인데, 이를 '어느 때나 고칠까'라고 하여 풀리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홀로 앉아' '공후'를 연주하는 소리가 '하소연하는 듯 흐느끼는 듯'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는 '슬픈 노래'를 통해 화자의 슬픈 감정을 드러내는데, '밤'에 잠 못 들고 있는 화자가 그 밤을 '어찌 이리 긴고'라고 하여 밤을 길게 느끼는 것을 통해 화자의 애절한 감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7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③**

(다)에서는 임과의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수심을 가슴속에 저절로 피어난 '블'에 비유하고 있으며, 화자는 그 불이 피어난 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심'이 '가**슴**'에 피어난 것이 '**놈**의 탓도 아니로**딕**'라고 한 것을 왕을 원망하는 신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하늘 모퉁이'는 '그리운 사람'이 있는 공간인데, 이를 '멀리' 있다고 했으므로 신하가 왕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기나긴 그리움에 공연히 애만 끊노라'에서 '기나긴 그리움'은 왕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그리움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검던 머리 희도록'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여흴 제'와 '못 보**ᄂᆞᆫ**고'에서 이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를 충신연주지사로 볼 때 이는 왕과 신하가 이별한 지 오래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밝은 달'은 화자가 되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에 '임의 창문 휘장'을 비추겠다고 한 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나타낸다. 또한 (다)의 '내 **ᄠᅳᆺ**'은 임을 '다시 볼가 **ᄇᆞ**라'는 것이기 때문에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나타낸다. (나), (다)를 충신연주지사로 볼 때, 이것들은 왕에 대한 신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구절들이다.

08 [소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④**

(나)의 '원컨대 쌍쌍이~서 있고자'에서 '새'는 화자가 임을 보기 위해 되고 싶은 대상이므로, '새'가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의 '수심은 블이 되여'를 통해 '블'이 걱정을 나타냄을 알 수 있는데, '풍우중에 **ᄇᆞ**노왜라'에서 '블'이 바람과 비에도 쉽게 꺼지지 않을 만큼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심, 즉 걱정하는 마음이 몹시 강함을 의미하므로, '블'은 애타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새'는 화자의 심리를 전환시키지 않는다. '블'이 화자의 성격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블'은 화자의 미래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③ '새'가 화자의 내적인 갈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블'은 화자의 심리적 고통을 드러낸다.

⑤ '새'를 통해 화자가 자신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블'을 통해 화자의 실천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09 [다른 작품과의 비교]

〈보기〉는 정철의 「속미인곡」 중 일부로, 제시된 부분을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잠깐 사이에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 옥과 같이 곱던 모습이 반나마 늙었구나.
>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사뢰려고 하였더니
> 눈물이 계속 나니 말인들 어찌 하며,
> 정회를 못다 풀어 목마저 메니,
>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나)의 화자는 '꿈속에서도 요산 남쪽 건너지 못하였네'라고 하면서 꿈속에서도 임과 만나지 못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나)의 '꿈속'은 화자와 '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꿈**'은 화자가 '임'을 잠깐이마나 볼 수 있었던 공간이다.

10 [시구의 의미 파악]

〈보기〉에 제시된 부분을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지간의 어떤 일이 남들에게는 서러운가?
>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
> 양대에 구름 비는 내린 지가 몇 해인가?
> 반쪽 거울에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 있구나.
> 푸른 새도 안 오고 흰 기러기도 그쳤으니
> 소식을 못 듣는데 임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다)에서 화자는 임과 이별한 자신을 '어엿**쁜** 이 몸', 즉 '불쌍한 이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기〉에서 이별한 화자를 상징하는 표현은 '반쪽 거울'이다. 따라서 (다)의 '어엿**쁜** 이 몸'과 〈보기〉의 '반쪽 거울'은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시구라고 할 수 있다.

Q 고전 시가에서 '꿈'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A 고전 시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꿈'은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화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화자의 현실 속 고통이 가중되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쪽이든 화자의 현실적 문제가 꿈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예 풋잠에 꿈을 꾸어 천상십이루(天上十二樓)에 들어가니
옥황은 웃으시되 뭇 신선이 꾸짖는구나
어즈버 백만억 창생을 어느 사이 물어보리

– 윤선도, 「몽천요」

「몽천요」에서 '꿈'은 옥황과 만나고자 한 화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뭇 신선들로 인해 자신의 소망을 제대로 펼칠 수 없게 되는 좌절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49강

황계사 | 봄의 단상

본문 220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③ **05.** ② **06.** ⑤ **07.** ③
08. 지어자 좋을시고 **09.** 하나의 생각이나 신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 순응하면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가)는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삼 일로 아니 오더냐', '저 달아 보느냐' 등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여 임과 이별한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황계 수탉'에서 색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물음을 던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⑤ '이 아해야 말 듣소', '지어자 좋을시고'라는 표현을 반복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굳은 다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가)의 화자는 '하운이 다기봉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라고 말하고 있다. 즉 산이 높아 임이 못 오는 것이냐고 말하고 있으므로 '산'은 화자가 사랑의 방해물로 여기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아해'는 화자가 하소연하는 대상일 뿐 화자에게 임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은 아니다.
② 화자는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라고 말하며 임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을 뿐 '황혼 저문 날'에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다.
④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 다리고 희롱한다'는 「구운몽」의 한 장면을 활용하여 화자와 대비되는 인물인 성진과 팔선녀를 제시함으로써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부분이다. 화자가 '팔선녀'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화자는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둥덩실 떠서 노자'라고 말하며 죽어서라도 임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바람'이 사랑의 부질없음을 깨닫게 해 주고 있지는 않다.

03 [시적 상황의 파악] **정답 ⑤**

'지어자 좋을시고'는 조흥구로,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이별의 상황에 맞지 않게 흥을 표현하여 그 슬픔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지어자 좋을시고'를 반복하는 것과 작품의 화자가 임과 반드시 재회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관련이 없다. 또한 화자는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면서 죽어서라도 다시 임과 만나고 싶다는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임과 반드시 재회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10행에서 '육관대사 성진이'를 작품에 등장시킨 것에서 이 작품이 「구운몽」의 내용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구운몽」이 창작된 이후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무삼 일로 아니 오더냐'(2행)라고 말한 뒤 '개가 짖어 못 오는가'(4행), '물이 깊어 못 오던가'(6행), '산이 높아 못 오던가'(8행), '달이 밝아 못 오던가'(22행) 등에서 '아니 오더냐', '못 오는가', '못 오던가'라는 의문형 문장을 통해 임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다양하게 추측하고 있다.

③ '둥덩'(12행), '꼬꾀요'(14행), '둥덩실'(18행)과 같은 음성 상징어는 일상성이 두드러지는 어휘로, 이 작품의 작가가 사대부보다는 서민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④ 화자는 '달'에게 임 계신 곳을 밝게 비추어 임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임 계신 곳에 '명휘'를 비춰 달라고 하는 것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자 임에게 밝은 빛이 닿기를 바라는 축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의한 종합적 감상] **정답 ③**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산이 높아 못 오던가'를 통해 화자는 '물'이 깊고 '산'이 높다는 외부적 요인에서 임과의 재회가 늦어지는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추측일 뿐,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보기〉의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①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 '무삼 일로 아니 오더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별 상황에 대해 화자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답답함과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②의 진술은 적절하다.

④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꼬꾀요 울거든 오랴는가'에서 '병풍에 그린 황계'가 우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불가능한 상황이 실현되어야만 임이 돌아올 것인지 묻고 있으므로 화자는 임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기〉에서 「황계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임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황계사」에 '임과 재회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점을 바탕으로 볼 때, '너란 죽어 황하수 되고 날란 죽어 도대선 되야', '둥덩실 떠서 노자'는 화자가 죽어서라도 임과 재회하고 싶어 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05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에서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은 아니다. ㉡에는 여인들이 주고받는 민요에 대한 글쓴이의 궁금증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의 '고운 비단을 펼쳐 놓은 듯'을 통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의 '옥피리와 생황을 연주하'는 것은 청각적 요소를, '울긋불긋한 꽃'은 시각적 요소를 환기한다. ㉢에서는 이러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사람이 보는 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의 '빈방을 지키고 있다.'에서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빈방을 지키고 있는 여인은 현재 남편과 이별한 뒤 한스러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슬픔에 차 있는 인물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에서 '때로는 ~도 하고(한다)'를 반복하는 대구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에 따라 봄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06 [작품의 구조와 내용 이해] **정답 ⑤**

(나)의 '나'는 '닥쳐오는 상황을 마주하고 변화하는 조짐을 순순히 따르며 나를 둘러싼 세상과 더불어 움직여 가리니'라고 하였다. 이는 상황의 변화를 따르며 살겠다는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이 '나'를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확장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봄을 즐기느라 온화한 표정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가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B의 '나'의 생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② B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흡족해하는 '천자'의 모습을 바탕으로 봄을 대하는 부귀한 사람의 태도를 추측하고 있다.

③ B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은 '호탕한 벗들'과 봄을 즐기고 있지만 '나그네'는 집을 떠나 한스러운 마음인 것에서 서로 입장이 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B에서 '천자',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부인', '나그네'가 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보이는 경치와 처한 상황'에 따라 봄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C의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07 [구절의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③**

[A]에서는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날개를 치면서 우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임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B]에서는 천자와 같은 부귀한 사람들이 봄을 보는 상황,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같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봄을 보는 상황, 남편과 이별한 여인이 봄을 보는 상황 등 봄을 보는 사람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그들의 눈에 비친 봄의 모습을 추측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화자가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나 화자의 격정적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B]에서 글쓴이가 현학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② [A]에서는 일상적 소재를 나열하고 있지 않다. 또한 [B]에서 글쓴이가 어려운 한자어를 나열하여 자신에 대한 우월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④ [A]에서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날개를 치고 우는 상황을 설정한 것은 과장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글쓴이가 단정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글쓴이는 '봄을 볼 때는 이러하리라.'라면서 추측의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⑤ [A]에서 병풍에 그린 수탉이 날개를 치고 우는 상황을 비현실적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현재의 고통을 초월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B]에서는 다양한 상황 설정을 통해 봄과 관련된 글쓴이의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08 [외적 준거에 의한 구절의 이해]

「황계사」는 가사체의 노래에 곡을 붙인 궁중 음악으로 음악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지어자 좋을시고'는 이별의 상황에 걸맞지 않게 흥을 표현함으로써 그 슬픔을 부각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운율을 형성하여 가창 가사의 음악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Q 문학 작품이 궁중 음악으로 편입된 이유는 뭔가요?

A 「황계사」는 십이 가사 중 하나인데, 곡을 붙여 궁중 음악으로 연행되기도 했어요. 우리 고전 시가에서는 궁중 음악으로 편입된 작품이 많은데, 이는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를 통해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남녀는 그 대상이 임금과 신하로 치환될 수 있었고, 민중의 정서를 궁중 음악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화합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요. 「황계사」, 「춘면곡(春眠曲)」, 「상사별곡(相思別曲)」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09 [주제 의식의 이해와 적용]

「봄의 단상」은 바람직한 삶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담은 수필이다. 글쓴이는 봄이 여름, 가을, 겨울과 달리 변화무쌍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글의 마지막 문장 '닥쳐오는 상황을~없는 것이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압축된 부분으로 하나의 생각이나 신념을 고집하지 말고 변화하는 세상에 순응하면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교훈을 준다.

50강

가사의 갈래적 특징 및 변화 양상 | 상춘곡 | 갑민가

본문 226쪽

01. ④ **02.** ① **03.** ④ **04.** ② **05.** ① **06.** ⑤ **07.** 물아일체어니 흥이**읜** 다**롤**소냐

01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④**

1문단에서 시조의 형식이 간결한 것에 비해 가사는 복잡한 체험을 두루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길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가사의 특징 때문에 가사는 '장가'라고 불리었다. 따라서 가사가 두 마디씩 짝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장가'라고 불렸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가사는 복잡한 체험을 두루 표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임진왜란을 경계로 후기 가사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가사는 표현하려는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늘어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가사의 작자층 확대로 다양한 관심사가 형상화되고, 이에 따라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표현 방식도 다양해졌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작자층의 확대와 표현 방식의 다양화는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2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나)의 '물아일체어니 흥이**읜** 다**롤**소냐'와 (다)의 '해마다 맞춰 무니 석숭인들 당**홀**소냐'에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들 표현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는 봄, (다)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나)는 애상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고, (다)에서는 겨울에 돈피를 구하려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장면에서 기층민의 비애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애상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애상은 처절함, 참담함처럼 정도가 심하고 분명한 슬픔과는 구분되는 아련하고 막연한 슬픔의 정서로 볼 수 있다.

③ (나)와 (다) 모두 대화의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다)는 작품 전체로 보면 생원의 질문에 갑민이 대답하는 대화 형식을 띠지만 제시된 지문은 갑민의 대답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새'와 (다)의 '오갈피잎'은 의인화된 대상이다. 그러나 (다)에서는 대상의 긍정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⑤ (나)와 (다) 모두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03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④**

(나)의 '공명'은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다)의 화자는 조상 덕에 '좌수별감'과 같은 직을 수행하였으나 군사 계급으로 강등된 인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을 뿐 사대부들의 경건한 삶의 자세를 풍자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도화행화'를 감상하고 있다. 그러나 (다)의 화자는 부역을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인**솜**싹'을 찾고 있다.

② (나)의 '세우'는 '녹양방초'와 어우러져 화자의 흥취를 돋우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의 '눈'은 서민인 화자의 고통을 더욱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봉두'에 올라 '연하일휘**논** 금수**롤** 재**펏논** 듯'이라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입**손**'하여 사냥에 앞서 산신께 발원하고, 사냥에 실패한 일 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나)는 화자가 '단표누항에 흣튼 혜음 아니 **ᄒᆞ**'며 만족하는 모습을 통해 안빈낙도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보여 주고 있다. (다)는 '뷘손'으로 표현된, 화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화자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04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은 화자가 혼자 봄의 흥취를 즐기느라고 사립문 주변을 걸어 보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 보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봄의 정경을 함께 즐길 사람을 기다리는 심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조물주의 솜씨가 미쳐 화려한 것이라고 예찬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③ ㉢은 날이 추워 검었던 들판에 봄이 와 봄빛이 넘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④ ㉣은 '열두 ᄉᆞ롬', '사십육냥'처럼 구체적인 수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짊어진 신역의 부담이 매우 큼을 나타낸다.

⑤ ㉤에서 화자는 발가락이 없다며 탄식하고 있는데, 이는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으로, 화자가 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매우 심하게 고생했음을 나타낸다.

05 [화자에 대한 이해] **정답 ①**

(다)의 화자는 1~2행에서 조상 덕에 읍 안에서는 벼슬이 가장 높은 정도에 이르렀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체면을 고려하여 지위가 낮은 벼슬은 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했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다)의 화자는 12행에서 도망간 친족들의 신역을 해마다 대신 부담하는 것이 '석숭'도 못 당해 낼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③ (다)의 화자는 30행에서 눈 내린 산길을 헤쳐 인가를 겨우 찾아 들고 있는데, 그때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 '혼비ᄇᆡᆨᄉᆞᆫ 반주검'이라고 말하고 있다.

④ (다)의 화자는 7행에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야 해 다른 친척들처럼 도망을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화자는 도망친 친족들에 대해 '시름 업슨 친족들', 즉 '걱정 근심 없는 친족들'이라고 비난하며 원망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⑤ (다)의 22행에서 화자는 'ᄂᆡ 정성이 부족ᄒᆞᆫ지 ᄉᆞ망실이 아니 붓ᄂᆡ'라고 말하였다. 이는 산에서 담비 가죽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화자가 자신의 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06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⑤**

[E]는 갑민이 돈피 사냥에 실패한 후 겪은 시련을 보여 주는 것이지, 유배를 가는 길에서 겪은 시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에는 신분의 이동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A]에는 '원수인의 모해' 때문에 갑민의 처지가 바뀌게 되었음이 제시되어 있다.

② 〈보기〉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족에게 세금을 대신 물리는 족징의 폐해가 심각했'다고 했는데, [B]에는 친척들이 충군이 된 후 모두 도망가 버리고, 여러 사람의 신역을 갑민 혼자서 물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③ 〈보기〉에서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독자에게 사실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C]에서는 '허항영'처럼 실제 지명을 언급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④ 〈보기〉에서 '그 지역에서 행하는 민속을 드러내어 사실감을 높이기도 한다'고 했는데, [D]에서 갑민이 싸리를 꺾어 누대를 치고 잎갈나무로 모닥불을 피우고 산신에게 발원하는 것은 갑산 지역에서 돈피 사냥에 앞서 행하던 민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07 [시구의 의미 파악]

자연에서 느끼는 일체감이 드러나는 부분은 (나)의 8행 '물아일체어니 흥이ᄋᆡ 다ᄅᆞᆯ소냐'이다.

51강

'출'과 '처'에 대한 사대부의 의식 | 우국가

본문 232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① **05.** ① **06.**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는 나라가 굳건하면 백성들도 안정감을 찾는다는 의미로 '나라가 굳으면'이라는 가정법은 당위를 제시하고 있다. '명당이 기울면 어느 집이 굳으리오'는 나라의 기강이 허약해지면 백성들도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로 '명당이 기울면'이라는 가정법은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01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⑤**

3문단에서 사대부들이 '처'의 삶을 살면서도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한 근심을 표현하며 우국충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의 본분을 지키려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사대부들은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출'을 의롭지 못하다고 여겨 '처'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② 4문단에서 '영달과 부귀는 고위 관직에 올라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③ 4문단에서 '궁'은 '빈궁'과 '빈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와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고 하였고, '달'은 '영달'과 '부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과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고 하였다. 2문단에서 '출'은 '유교적 가르침을 부단히 수양한 사대부가 관직에 나아가 사대부로서 품었던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라고 하였으므로, '빈궁'을 사대부들이 '관직에 나아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서 '궁'은 '빈궁'과 '빈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빈궁'과 '빈천'은 '혼탁한 세상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지 않는 삶'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02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③**

'빈천을 사양 마라'는 '빈천'을 사양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가)의 4, 5문단에서 '빈천'은 '처'와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문단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사대부들은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출'을 거부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처"를 선택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여겼'다고 하였다. 따라서 '빈

천을 사양 마라'를 '처'의 삶을 거부해야 한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의 '치군택민'은 '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즉 관직에 나아가 유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4문단에서 '빈궁'과 '빈천'은 혼탁한 세상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지 않는 삶으로 '궁'을 의미하고 '궁'은 '처'와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의 '빈천거'는 '처'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오리라'에서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B]의 '신명을 못ᄂᆞ이라'는 '위기'인 '부귀'를 선택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의미하고 있다. (가)에 따라서 '부귀'는 '출'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B]에는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위기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A]의 종장, [B]의 초장과 종장에서 각 화자는 모두 '부귀'의 삶을 지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에 따르면, [A], [B]에서 이와 같이 '부귀'의 삶을 지향하지 않는 것은 당파 싸움이 심한 시대에 '출'의 삶을 위기로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

03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은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며, 시대 상황에 따라 '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귀'를 위기로 여기며 '빈천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의 2, 3문단에 따르면, 이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출'의 가치를 유학적 가르침에 맞게 판단함으로써 의로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가)의 3문단에서는 사대부들이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는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출'을 거부하고 '처'를 선택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겼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관직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을 ㉠의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2문단을 보면 ㉠은 '출'을 통해 유교적 이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를 자연에 은둔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2, 3문단을 보면 ㉠은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⑤ (가)의 3문단을 보면 ㉠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현실에서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처사(處士, 조선 중기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서 은둔한 선비들을 일컫는 말)로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다.

04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①

'고립 무조'란 홀로 있어 도움이 없다는 의미이다. 고립 무조의 상태에 처한 것은 화자가 아닌 '님'이다. 따라서 화자가 '고립 무조'를 선택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공도 시비'란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도 시비'를 하지 않아 '환난'이 길어지는 것은 (가)의 2문단의 표현에 따르면 정치가 순리대로 실현되지 않는 세상이다. 화자는 당대 현실이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따지지 않으며, 정치가 순리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보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화자는 '집만 돌아보고 나라 일 아니 하'는 당대의 사대부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가)의 2문단을 바탕으로 '나라 일 아니 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유교적 가치를 바르게 실천하지 않은 사대부들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가)의 5문단에서 관직의 유무에 따른 사대부의 처지와, 그와 관련된 그들의 삶의 태도는 '출–달–부귀'와 '처–궁–빈천'이라는 대조적 맥락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명'과 '부귀'를 바라지 않는 화자의 모습에서 화자가 '달'의 삶을 지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화자는 공명과 부귀를 바라지 않으며 '초가 한 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가)를 바탕으로 할 때 화자가 '처', 즉 '궁'의 삶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초가 한 간'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상시'를 느끼는 것은 화자가 '궁'의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해 근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5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B]에서는 '부귀', '탐', '빈천', '절로' 등의 시어들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도 〈제14수〉에서 '외다'가, 〈제25수〉에서 '시비'가, 〈제26수〉에서 '나라'와 '집' 등의 시어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반복은 의미를 강조한다.

[오답 풀이]

② [B]는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말을 들은 상대가 화자에게 대답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나)는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나)와 [B] 모두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나)는 〈제26수〉의 종장과 〈제28수〉의 초장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B]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B]와 (나) 모두 상승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다.

06 [시구의 의미 파악]

[C]에서는 '나라가 굳으면', '명당이 기울면'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각 상황에서의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나라가 굳으면' 집 또한 굳건할 것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여 나라가 굳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를 말하고 있으며 '명당이 기울면' 집 또한 기울 것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여 당쟁을 하지 말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